부천지역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방안 연구

2003. 12

정인수 · 윤진호 · 김동배 · 권민경

부 천 상 공 회 의 소
한 국 노 동 연 구 원

목 차

Ⅰ. 부천지역 경제 및 산업구조 개관 1

1. 지역내 총생산의 추이 1

2. 산업구조의 변화 2

3. 사업체 구성비 추이 5

4. 제조업 업종별 구성비 7

Ⅱ. 부천지역 노동시장 구조 및 인력부족 9

1. 노동시장 수요구조 9

1) 취업자 산업별 구성비 9

2) 규모별 구성비 11

3) 제조업 업종별 구성비 12

4) 직종별 구성비 13

2. 노동시장의 공급구조 14

1) 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규모

..... 14
2) 인구이동
..... 16
3) 통근인구
..... 18
4) 외국인 노동력
..... 19
5) 부천지역 노동력의 구성
..... 20
6) 부천지역 사업체의 노동력 구성
..... 22
3. 노동력의 질적 수준
..... 23
1) 학교교육
..... 25
2) 직업훈련
..... 27
4. 인력부족 현황
..... 30
1) 규모별 인력부족 현황
..... 30
2) 제조업 업종별 인력부족 현황
..... 32
3) 직종별 인력부족 현황 .....
33
5. 근로조건과 임금 .....
33
1) 임금 .....
33
2) 근로시간 .....
34

3) 고용안정 35
4) 근로여건 만족도 36
6. 요약과 결론 39

Ⅲ. 부천지역 중소사업체 실태조사 결과..... 41
1. 조사의 개요 41
2. 인력 수급 현황 47
1) 설비투자, 해외이전계획 47
2) 인력현황 50
3) 인력 수급 실태 58
4) 교육훈련 67
3. 실태조사의 요약 및 시사점 69
1) 실태조사의 요약 69
2) 정책 시사점 71

Ⅳ. 정책과제 72
1. 인력부족해소의 기본방향 .....

72
2. 구체 정책과제 76
1) 지역별 업종별 중소기업 직업훈련센터설립 76
2) 고령자, 여성 및 장기실업자의 활용과 “중소기업 취업적응 프로그램”의 개발 77
3) 비진학 중도탈락 청소년 직업훈련수요 파악 77
4) 중소기업공동복지시스템 구축 78
5) 중소기업작업환경개선 지원 78
6) 직장체험 중소기업으로 대상 확대 78
7) 기업의 교육만족도조사 실시 79
8) 주문식 교육의 활성화 79
9) 학교교육과 산업수요의 정보전달 79
10) 중소기업 해외 자격증 취득 연수 지원(예: 독일 Maister 자격취득 지원) 80
[부록 1]
전국 중소기업 인력부족의 실태와 원인 81

[부록 2]

부천시 중소기업 인력수급실태 설문지 91

Ⅰ. 부천지역 경제 및 산업구조 개관

1. . 지역내 총생산의 추이

- 부천지역은 80년대 이후 서울의 위성도시이자 중소 제조업의 생산기지로서 급속한 발전을 이룩하여 왔음.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천시의 지역내총생산 규모는 1993년의 3조 5,540억원으로부터 2000년에는 7조 2,000억원으로 증가하였음. 이 기간 중 부천지역 총생산액의 성장배율은 102.6%로서 거의 정확히 두 배 가량 성장한 것임.

- 부천시의 지역총생산액 증가추세를 서울, 인천 및 경기도 내 다른 도시들과 비교해보면 부천시의 성장세는 전국 평균이나 서울, 인천 등 인접 대도시의 성장률에 비해서는 훨씬 높은 것이지만 안산, 성남 등 수도권 내의 다른 도시들의 성장률에 비하면 다소 낮은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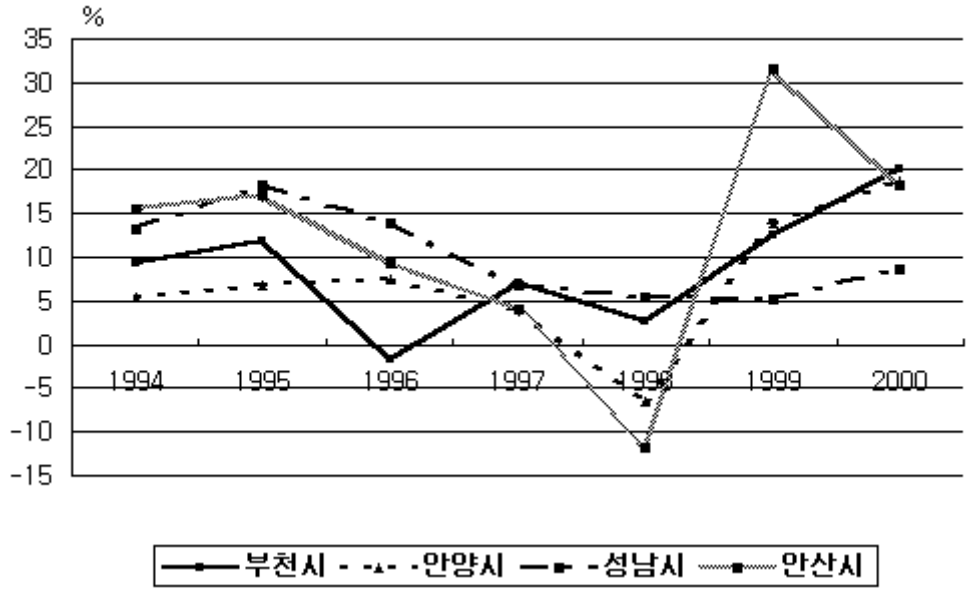
<표 1> 지역내총생산 증가추세 비교(경상가격)

단위: 10억원, %

	전국	서울시	인천시	부천시	안양시	안산시	성남시
1993	270,858 (100.0)	68,643 (25.3)	13,439 (5.0)	3,554 (1.3)	2,833 (1.0)	4,033 (1.5)	2,432 (0.9)
1994	310,369 (100.0)	76,224 (24.6)	15,074 (4.9)	4,065 (1.3)	3,105 (1.0)	4,693 (1.5)	2,893 (0.9)
1995	357,723 (100.0)	84,599 (23.6)	18,007 (5.0)	4,833 (1.4)	3,547 (1.0)	5,979 (1.7)	3,665 (1.0)
1996	398,639 (100.0)	93,272 (23.4)	19,721 (4.9)	5,098 (1.3)	3,945 (1.0)	6,762 (1.7)	4,367 (1.1)
1997	432,195 (100.0)	97,947 (22.7)	21,149 (4.9)	5,484 (1.3)	4,290 (1.0)	7,309 (1.7)	4,898 (1.1)
1998	424,709 (100.0)	94,695 (22.3)	19,738 (4.6)	6,597 (1.6)	4,187 (1.0)	6,777 (1.6)	5,423 (1.3)
1999	470,357 (100.0)	102,460 (21.8)	20,937 (4.5)	6,590 (1.4)	4,597 (1.0)	8,019 (1.7)	5,565 (1.2)
2000	503,785 (100.0)	109,307 (21.7)	22,378 (4.4)	7,200 (1.4)	5,158 (1.0)	8,743 (1.7)	5,818 (1.2)
증가율(%) (1993-00)	86.0	59.2	66.5	102.6	82.1	116.8	139.2

자료: 통계청, [지역내총생산 및 지출], 각년도판; 경기도, [시-군단위 지역내 총생산]. 각년도판.

<그림 1> 지역총생산 증가율 비교



- 한편 [그림 1]에서 부천시 지역총생산의 실질증가율을 살펴보면 90년대 초까지는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96년에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다시 IMF경제위기 이후인 98년에도 성장률이 크게 둔화되었음.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경기도 전체의 평균성장률이나 안산, 안양시의 성장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어 상대적 부진상태임을 알 수 있음.

2. 산업구조의 변화

- 부천지역의 산업구조 변화를 살펴보면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조업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전체 생산액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음. 부천지역의 제조업 비중은 90년대 전반까지 계속 하락추세를 보였으나 90년대 중반 이후 다시 상승추세로 전환되어 2000년 현재 전체 생산액의 49.6%를 차지하고 있음.

- 비제조업 가운데는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건설업, 도 소매업, 금융 보험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등의 순으로 그 비중이 높음. 추세적으로는 건설업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다양한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표 2> 부천시의 산업구성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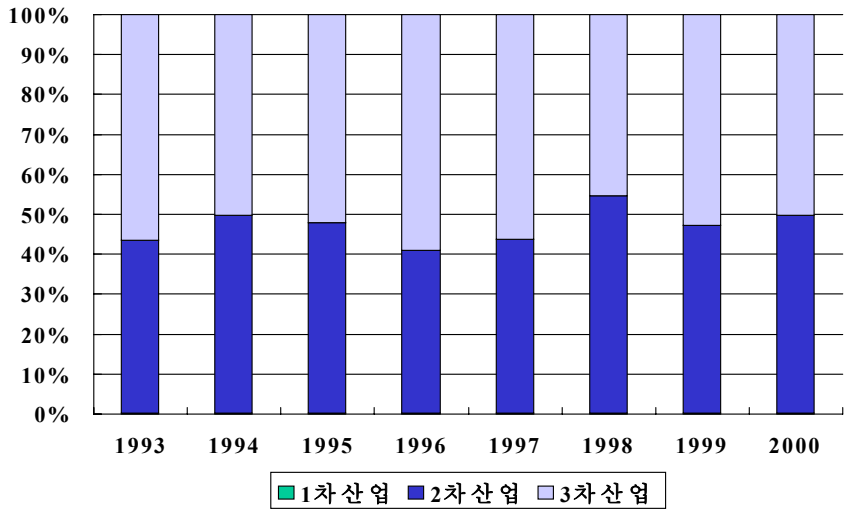
단위: %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농림어업	0.3	0.2	0.2	0.3	0.2	0.2	0.2	0.2
광업	0.0	0.0	0.0	0.0	0.0	0.0	0.0	0.0
제조업	43.2	39.6	38.1	40.6	43.5	54.5	47.0	49.6
전기가스수도업	2.6	2.8	2.8	2.7	2.6	2.3	2.2	1.5
건설업	11.2	14.1	15.7	11.8	10.9	8.6	11.4	10.5
도・소매업	9.7	9.1	7.9	8.2	7.8	5.8	6.8	6.3
음식 숙박업	3.5	2.9	2.7	2.6	2.7	1.7	2.1	2.2
운수 창고업	2.3	2.5	2.3	2.3	2.3	2.0	2.1	2.2
통신업	1.9	1.7	1.7	1.7	1.5	1.3	1.4	1.5
금융 보험업	4.1	4.7	4.9	5.4	5.3	4.4	6.0	6.0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11.9	12.7	14.5	14.1	12.9	10.7	12.0	11.3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4.2	4.8	4.7	5.3	5.8	5.0	5.4	5.1
일반 공공행정	2.3	2.2	2.6	2.2	2.1	1.7	1.8	1.8
기타 서비스업	2.8	2.7	2.4	2.8	2.4	1.9	1.6	1.8

자료: 통계청, [지역내총생산 및 지출], 각년도판; 경기도, [시-군단위 지역내 총생산], 각년도판

-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천시의 산업 구성비의 추이를 보면 90년대 들어 2차 산업의 비중이 점점 감소하고 3차 산업의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으나 90년대 중반 이후 그 추세가 역전되어 현재는 2차 산업과 3차 산업의 비중이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

[그림 2] 부천시의 산업구조 변화



- 한편 <표 3>에서 산업별 구성비를 도시별로 비교해 보면 부천시는 안산시를 제외한 다른 도시들에 비해 제조업 비중이 높은 반면,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등 각종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특징을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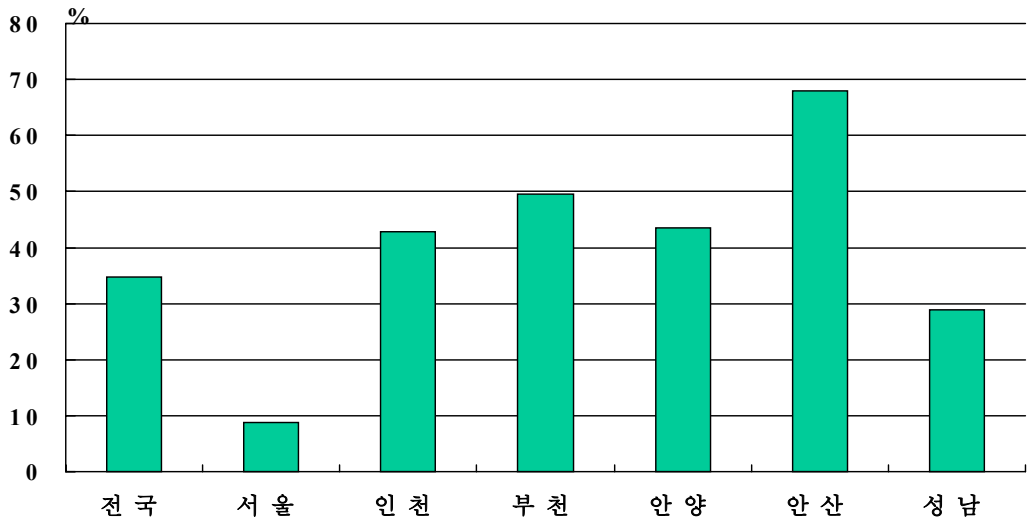
<표 3> 산업구성비의 도시별 비교(2000)

단위: %

	전 국	서울시	인천시	부천시	안양시	안산시	성남시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농림어업	4.5	0.5	1.6	0.2	0.1	0.5	0.1
광업	0.2	0.0	0.2	0.0	0.0	0.0	0.0
제조업	34.8	8.8	42.9	49.6	43.6	67.9	28.9
전기가스수도업	2.9	1.4	3.0	1.5	3.1	1.4	5.5
건설업	8.7	6.4	8.5	10.5	6.5	6.1	6.8
도 소매업	9.8	17.7	7.4	6.3	7.8	3.6	9.7
음식 숙박업	2.2	2.3	1.5	2.2	2.4	1.3	2.8
운수 창고업	4.7	7.6	6.1	2.2	3.0	1.5	3.5
통신업	2.4	4.4	3.4	1.5	1.7	1.1	2.2
금융 보험업	7.6	17.7	5.1	6.0	6.7	3.4	8.1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12.4	25.5	10.2	11.3	14.9	7.2	19.3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5.0	8.0	4.5	5.1	6.0	3.6	7.5
일반 공공행정	3.1	3.4	2.7	1.8	2.5	0.9	3.0
기타 서비스업	1.7	-3.8	2.8	1.8	1.8	1.4	2.7

자료: 노동부, [노동력수요동향조사보고서], 2002.

[그림 3] 제조업 비중의 도시간 비교



3. 사업체 구성비 추이

- <표 4>에서 부천지역 소재 사업체 수의 산업별 구성비 추이를 살펴보면 1995년 이후 1998년까지 사업체 수는 감소하였으나 이후 다시 증가추세로 돌아서서 1995-2001년 기간 중 전체 사업체 수는 약 7.7% 증가하였음.

- 산업별로는 도 소매업 사업체가 2001년 현재 전체 사업체의 25.5%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기타 서비스업 등의 순임.

- 전체 산업 가운데 운수, 창고, 통신업과 기타 서비스업 등은 그 구성비가 상승하고 있는 반면, 도, 소매업, 교육서비스업, 제조업 등은 그 구성비가 하락하였음.

<표 4> 산업별 사업체 수 구성비 추이

단위: %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증 가 율 (95-01)
전 체	45,415 (100.0)	44,882 (100.0)	44,892 (100.0)	43,337 (100.0)	48,164 (100.0)	49,033 (100.0)	48,926 (100.0)	7.7
농림어업	0.0	0.0	0.0	0.0	0.0	0.0	0.0	-
광업	0.0	0.0	0.0	0.0	0.0	0.0	0.0	-
제조업	20.0	20.2	19.3	18.5	18.7	19.2	19.3	-0.7
전기 가스 수도사업	0.0	0.0	0.0	0.0	0.0	0.0	0.0	0.0
건설업	2.0	1.9	1.9	1.7	1.7	1.8	1.5	-0.5
도 소매업	30.9	29.6	29.4	28.9	26.8	26.3	25.5	-5.4
숙박 및 음식점업	17.0	17.7	18.5	18.7	18.3	17.6	17.6	0.6
운수, 창고, 통신업	5.9	6.0	6.0	6.6	7.3	8.2	9.3	3.4
금융 및 보험업	1.2	1.2	1.1	1.1	1.0	1.0	0.9	-0.3
부동산,사업서비스업	5.6	5.5	5.4	5.7	5.5	5.5	5.7	0.1
공공행정 및 국방	0.2	0.2	0.2	0.2	0.2	0.2	0.2	0.0
교육서비스업	4.1	4.0	3.8	3.6	3.5	3.3	3.2	-0.9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5	1.9	2.1	2.3	2.0	2.1	2.0	0.5
기타 서비스업	11.6	11.7	12.1	12.8	15.0	14.8	14.6	3.0

자료: 부천시,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판.

- <표 5>에서 부천시의 산업별 사업체 수 구성비를 다른 도시들과 비교해 보면 부천시의 제조업 사업체 수 비중은 다른 도시에 비해 높은 대신, 다양한 서비스 업체들의 비중은 다른 도시에 비해 낮은 특징을 나타내고 있음.

<표 5> 산업별 사업체 수 구성비의 비교 (2001)

단위: %

	전 국	서울시	인천시	부천시	안양시	안산시	성남시
전 체	3,051,482 (100.0)	725,569 (100.0)	147,081 (100.0)	48,926 (100.0)	35,682 (100.0)	33,290 (100.0)	39,696 (100.0)
농림어업	0.1	0.0	0.0	0.0	0.0	0.0	0.0
광업	0.1	0.0	0.0	0.0	0.0	0.0	0.0
제조업	10.9	10.5	13.9	19.3	10.7	15.2	8.6
전기 가스 수도사업	0.0	0.0	0.0	0.0	0.0	0.0	0.1
건설업	2.4	2.4	1.9	1.5	2.9	2.4	2.5
도 소매업	29.3	31.8	26.6	25.5	29.4	25.6	25.7
숙박 및 음식점업	20.2	16.5	20.3	17.6	19.0	19.7	21.8
운수, 창고, 통신업	9.7	12.1	10.2	9.4	8.8	8.5	7.9
금융 및 보험업	1.2	1.2	1.0	1.0	1.1	1.0	1.2
부동산,사업서비업	5.5	7.9	5.6	5.7	7.1	6.2	7.7
공공행정 및 국방	0.4	0.2	0.3	0.2	0.3	0.2	0.3
교육서비스업	3.5	2.9	3.2	3.2	4.0	3.4	4.7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2.1	2.1	2.0	2.0	2.1	2.3	2.9
기타 서비스업	14.6	12.4	14.9	14.6	14.5	15.3	16.8

자료: 부천시,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판.

- 규모별 사업체 수 구성비를 <표 6>에서 보면 종업원 1-4인 규모의 영세 사업체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서 2001년 현재 전체 사업체의 83.6%를 차지하고 있음. 90년대 후반 이후 영세사업체의 비중은 계속 증가해 온 반면, 중소규모 기업의 비중은 계속 감소하고 있음.

<표 6> 규모별 사업체 수 구성비 추이

단위: %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증 가 율 (95-01)
전 체	45,415 (100.0)	44,882 (100.0)	44,892 (100.0)	43,337 (100.0)	48,164 (100.0)	49,033 (100.0)	48,926 (100.0)	7.7
1-4명	83.2	83.0	84.2	86.3	85.2	83.5	83.6	0.4
5-9명	9.0	9.5	9.0	7.4	8.4	9.5	9.2	0.2
10-19명	4.4	4.3	3.8	3.6	3.6	4.1	4.2	-0.2
20-49명	2.6	2.4	2.3	2.0	2.0	2.1	2.2	-0.4
50-99명	0.6	0.6	0.5	0.5	0.6	0.6	0.5	-0.1
100-299명	0.2	0.2	0.2	0.2	0.1	0.2	0.2	0.0
300-499명	0.0	0.0	0.0	0.0	0.0	0.0	0.0	0.0
500-999명	0.0	0.0	0.0	0.0	0.0	0.0	0.0	0.0
1,000명 이상	0.0	0.0	0.0	0.0	0.0	0.0	0.0	0.0

자료: 부천시,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판.

<표 7> 규모별 사업체 수 구성비의 비교 (2001)

단위: %

	전 국	서울시	인천시	부천시	안양시	안산시	성남시
전 체	3,051,482 (100.0)	725,569 (100.0)	147,081 (100.0)	48,926 (100.0)	35,682 (100.0)	33,290 (100.0)	39,696 (100.0)
1-4명	84.6	82.5	83.5	83.6	84.1	80.5	84.1
5-9명	8.7	10.2	9.0	9.2	8.6	9.6	8.8
10-19명	3.7	4.1	4.3	4.2	3.9	4.7	4.0
20-49명	2.1	2.1	2.3	2.2	2.3	3.1	2.0
50-99명	0.6	0.6	0.7	0.5	0.7	1.2	0.7
100-299명	0.3	0.4	0.3	0.2	0.3	0.8	0.3
300-499명	0.0	0.1	0.0	0.0	0.0	0.1	0.1
500-999명	0.0	0.0	0.0	0.0	0.0	0.0	0.0
1,000명 이상	0.0	0.0	0.0	0.0	0.0	0.0	0.0

자료: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판; 경기도,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판.

- <표 7>에서 규모별 사업체의 비중을 다른 도시와 비교해 보면 부천지역의 영세기업 비중은 서울, 인천 및 경기도 내 다른 도시의 영세기업 비중과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4 . 제조업 업종별 구성비

- <표 8>에서 제조업만을 따로 떼어서 그 업종구성의 변화를 살펴보면 부천시의 전체 제조업 부가가치액은 1996년의 3조 4,700억원으로부터 차츰 감소하여 2001년에는 3조 2,110억원을 기록하고 있음.

- 업종별로는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업, 기타 기계 및 장비업, 고무 및 플라스틱업 등의 순으로 부가가치액의 비중이 높음. 그러나 부천시 제조업의 전통적 주력산업이었던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업과 기계 및 장비업 등은 90년대 후반 이후 그 비중이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 고무 및 플라스틱업, 전기기계 및 전기변화장치업 등의 비중은 높아지고 있어 부천지역 제조업 내부에서 급속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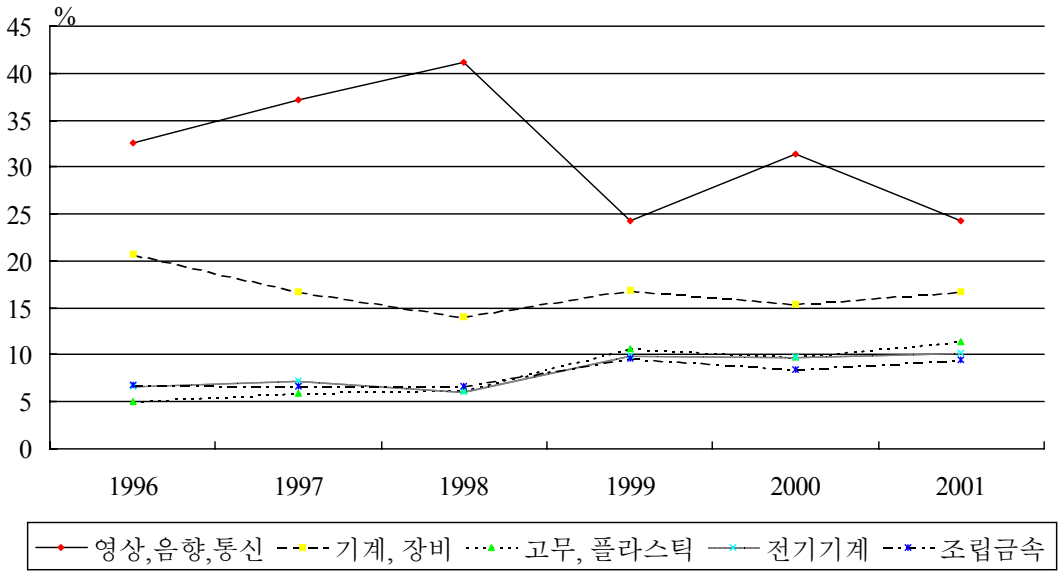
<표 8> 제조업 부가가치 구성비 추이

단위: 10억원, %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증 가 율 (96-01)
제조업 전체	3,470 (100.0)	3,241 (100.0)	3,204 (100.0)	3,148 (100.0)	3,820 (100.0)	3,211 (100.0)	-7.5
음식료품	2.2	2.3	2.5	2.9	1.8	2.2	0.0
섬유제품	2.4	1.6	1.1	1.7	1.3	1.0	-1.4
의복 및 모피제품	1.3	1.3	1.2	1.3	1.2	1.4	0.1
피혁제품 및 신발	1.5	1.3	0.9	1.1	0.7	1.7	0.2
목재 및 나무제품	0.2	0.2	0.1	0.2	0.2	0.1	-0.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1.2	1.2	1.4	1.0	0.7	0.9	-0.3
출판, 인쇄, 기록매체	1.0	1.0	1.0	1.5	1.5	2.0	1.0
코크스, 석유정제품	0.0	0.0	0.0	0.0	0.0	0.0	0.0
화합물 및 화학제품	6.0	5.5	7.3	7.1	6.4	6.7	0.7
고무 및 플라스틱	5.1	5.9	6.2	10.7	9.7	11.4	6.3
비금속 광물	2.9	2.5	2.1	2.5	2.5	4.2	1.3
제1차 금속	1.4	1.6	1.1	1.8	1.3	0.9	-0.5
조립금속제품	6.8	6.6	6.7	9.6	8.4	9.4	2.6
기타 기계 및 장비	20.7	16.7	14.0	16.9	15.4	16.7	-4.0
사무, 계산, 회계용 기계	0.9	0.7	0.8	1.0	1.2	1.4	0.5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6.6	7.2	6.0	9.9	9.7	10.2	3.6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32.5	37.1	41.2	24.3	31.4	24.3	-8.2
의료, 정밀, 광학기기, 시계	2.2	2.5	2.8	2.7	3.5	3.3	1.1
자동차 및 트레일러	2.4	2.0	1.4	1.6	0.9	0.6	-1.8
기타 운송장비	0.2	0.0	0.4	-	0.1	0.1	-0.1
가구 및 기타 제조업	2.5	2.8	1.8	2.2	2.2	1.8	-0.7

자료: 경기도,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판.

[그림 4] 부천시 제조업 5대 업종 구성비 변화추이



Ⅱ. 부천지역 노동시장 구조 및 인력부족

1. 노동시장 수요구조

- 한 지역의 노동수요는 파생수요로서 특정 지역의 기업이 상품생산이나 용역의 제공을 위해서 생산요소로서의 노동을 고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임. 따라서 노동력에 대한 수요는 최종생산물인 상품의 수요에 의존함. 즉 한 지역의 노동력 수요는 지역 내 총생산의 규모와 기술 및 생산구조에 의존함.

- 앞 절에서 우리는 부천지역 생산구조의 특징으로서 제조업 위주의 급속한 성장과 이에 따른 제조업의 압도적 비중, 영세규모 기업의 압도적인 비중, 영상-음향-통신장비업 및 기계-장비업의 높은 비중과 최근의 감소현상 등을 지적한 바 있음. 부천지역 생산구조의 이러한 특성은 노동시장의 수요구조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음.

1) 취업자 산업별 구성비

- 먼저 부천지역의 전체 취업자 구성비 및 그 증가추세를 <표 9>에서 살펴보면 부천지역 전체 사업체 종사자 수는 90년대 후반에 계속 감소추세를 보여 98년에는 173천명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이후 다소 회복되었으나 2001년 현재 종사자 수는 95년에 비해 겨우 4% 늘어난 정도로서 취업자 수는 정체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음.

- 취업자의 산업별 구성비를 보면 2001년 현재 제조업이 37.2%로서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도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의 순임. 그러나 증가추세를 보면 제조업의 쇄락 및 3차산업 종사자의 비중 증가가 뚜렷한 추세로 나타나고 있음. 즉 95년에 전체 취업자의 44.4%를 차지하고 있던 제조업 종사자 비중은 이후 하락을 계속하여 2001년에는 37.2%까지 떨어졌으며 같은 기간 중 총 12.8%의 취업자 감소율을 보였음. 반면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사업서비스업, 운수-창고-통신업 등의 종사자 수는 높은 증가세를 보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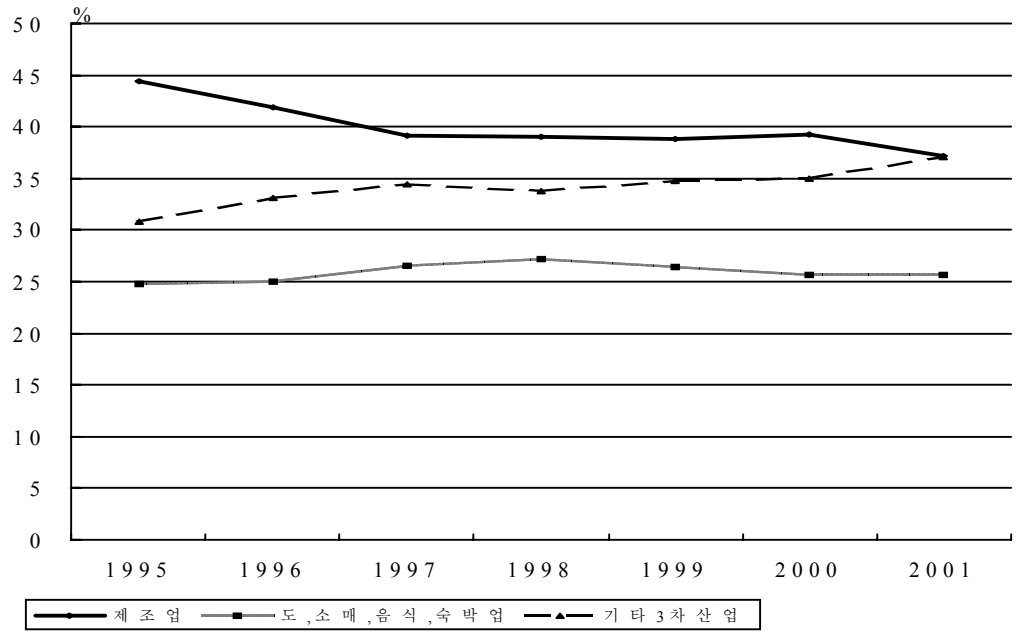
<표 9> 부천지역의 산업별 종사자 수 추이

단위: 명, %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증 가 율 (95-01)
전 체	204,298 (100.0)	203,350 (100.0)	191,139 (100.0)	173,155 (100.0)	192,057 (100.0)	206,969 (100.0)	212,498 (100.0)	4.0
농림어업	12 (0.0)	4 (0.0)	0 (0.0)	5 (0.0)	5 (0.0)	0 (0.0)	0 (0.0)	-
광업	24 (0.0)	21 (0.0)	17 (0.0)	9 (0.0)	15 (0.0)	15 (0.0)	0 (0.0)	-
제조업	90,698 (44.4)	85,197 (41.9)	74,797 (39.1)	67,476 (39.0)	74,502 (38.8)	81,422 (39.3)	79,097 (37.2)	-12.8
전기 가스 수도사업	533 (0.3)	479 (0.2)	770 (0.4)	364 (0.2)	427 (0.2)	729 (0.4)	578 (0.3)	8.4
건설업	3,892 (1.9)	5,253 (2.6)	5,526 (2.9)	3,618 (2.1)	3,823 (2.0)	4,794 (2.3)	5,283 (2.5)	35.7
도 소매업	33,583 (16.4)	32,968 (16.2)	32,430 (17.0)	30,116 (17.4)	31,152 (16.2)	32,115 (15.5)	32,231 (15.2)	-4.0
숙박 및 음식점업	17,167 (8.4)	17,936 (8.8)	18,191 (9.5)	17,050 (9.8)	19,603 (10.2)	21,035 (10.2)	22,382 (10.5)	30.4
운수, 창고, 통신업	8,035 (3.9)	8,122 (4.0)	7,621 (4.0)	6,543 (3.8)	7,686 (4.0)	8,538 (4.1)	10,660 (0.5)	32.7
금융 및 보험업	9,489 (4.6)	9,466 (4.7)	9.873 (5.2)	8,611 (5.0)	8,287 (4.3)	9,064 (4.4)	7,999 (3.8)	-15.7
부동산,사업서비스업	7,880 (3.9)	8,086 (4.0)	8,524 (4.5)	7,685 (4.4)	9,404 (4.9)	10,407 (5.0)	10,530 (5.0)	33.6
공공행정 및 국방	5,301 (2.6)	5,731 (2.8)	5,281 (2.8)	4,433 (2.6)	4,480 (2.3)	3,982 (1.9)	5,666 (2.7)	6.9
교육서비스업	11,259 (5.5)	11,838 (5.8)	11,181 (5.8)	10,788 (6.2)	12,338 (6.4)	13,498 (6.5)	15,278 (7.2)	35.7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4,580 (2.2)	4,945 (2.4)	5,432 (2.8)	5,595 (3.2)	5,672 (3.0)	6,388 (3.1)	7,186 (3.4)	56.9
기타 서비스업	11,845 (5.8)	13,304 (6.5)	11,496 (6.0)	10,862 (6.3)	14,663 (7.6)	14,982 (7.2)	15,608 (7.3)	31.8

자료: 부천시,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판.

[그림 5]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 추이



2) 규모별 구성비

- <표 10>에서 기업규모별 종사자 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부천지역 기업들의 영세규모화가 뚜렷한 추세로 나타나고 있음. 즉 종업원 1-4명 규모의 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수는 1995년의 67천명으로부터 2001년에는 75천명으로 12.3%나 늘어났으며 이에 따라 2001년 현재 1-4인 규모 종사자가 전체 부천지역 사업체 종사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4%에 달하고 있음. 5-9명 규모 및 10-19명 규모 종사자 비중 역시 이 기간 중 늘어났음. 반면 20-999명 규모의 중소기업 종사자 수와 그 비중은 대부분 크게 감소하였음. 다만 1,000명 이상 대기업의 종사자 수는 다소 늘어나 기업 규모에 따른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10> 부천지역의 규모별 종사자 수 추이

단위: 명, %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증 가 율 (95-01)
전 체	204,298 (100.0)	203,350 (100.0)	191,139 (100.0)	173,155 (100.0)	192,057 (100.0)	206,969 (100.0)	212,498 (100.0)	4.0
1-4명	67,015 (32.8)	66,748 (32.8)	67,537 (35.3)	66,180 (38.2)	72,531 (37.8)	73,950 (35.7)	75,226 (35.4)	12.3
5-9명	26,010 (12.7)	27,040 (13.3)	25,477 (13.3)	20,286 (11.7)	25,689 (13.4)	29,419 (14.2)	28,878 (13.6)	11.0
10-19명	26,534 (13.0)	25,441 (12.5)	22,548 (11.8)	20,855 (12.0)	23,119 (12.0)	26,660 (12.9)	27,106 (12.8)	2.2
20-49명	33,937 (16.6)	32,024 (15.7)	29,690 (15.5)	25,828 (14.9)	28,239 (14.7)	31,102 (15.0)	31,873 (15.0)	-6.1
50-99명	18,592 (9.1)	17,259 (8.5)	16,309 (8.5)	14,177 (8.2)	17,977 (9.4)	18,082 (8.7)	17,445 (8.2)	-6.2
100-299명	12,828 (6.3)	13,146 (6.5)	11,877 (6.2)	10,784 (6.2)	10,349 (5.4)	11,983 (5.8)	13,612 (6.4)	6.1
300-499명	6,640 (3.3)	7,739 (3.8)	6,169 (3.2)	5,934 (3.4)	7,720 (4.0)	7,704 (3.7)	5,820 (2.7)	-12.3
500-999명	7,912 (3.9)	9,660 (4.8)	7,843 (4.1)	4,370 (2.5)	3,356 (1.7)	3,643 (1.8)	7,326 (3.4)	-7.4
1,000명 이상	4,830 (2.4)	4,293 (2.1)	3.689 (1.9)	4,741 (2.7)	3,077 (1.6)	4,426 (2.1)	5,212 (2.5)	7.9

자료: 부천시,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판.

3) 제조업 업종별 구성비

- <표 11>에서는 제조업의 업종별 종사자 수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음. 90년대 초반까지 부천지역 제조업의 주력고용업종이던 기계 및 장비제조업의 종사자 비중이 급속히 하락한 대신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과 조립금속제품제조업 종사자의 비중이 증가하였음. 그러나 비교적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업종인 컴퓨터 등 사무용기계제조업과 각종 전자부품제조업, 의료-정밀-광학기계제조업 등의 종사자 비중은 거의 정체상태에 있음.

<표 11> 제조업 업종별 종사자 구성비 추이

단위: 명, %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증 가 율 (96-01)
제조업 전체	85,197 (100.0)	74,797 (100.0)	67.476 (100.0)	74,502 (100.0)	81,422 (100.0)	79,097 (100.0)	-7.2
음식료품	2.8	3.0	3.2	2.6	2.5	2.9	0.1
섬유제품	2.5	2.9	2.5	2.1	2.0	1.8	-0.7
의복 및 모피제품	3.7	3.5	3.4	3.7	3.7	3.6	-0.1
피혁제품 및 신발	1.5	1.5	1.4	1.6	1.3	1.2	-0.3
목재 및 나무제품	0.5	0.4	0.3	0.3	0.2	0.2	-0.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1.2	1.2	1.1	1.0	0.8	0.7	-0.5
출판, 인쇄, 기록매체	2.1	2.3	2.8	3.1	3.0	2.5	0.4
코크스, 석유정제품	0.0	0.0	0.0	0.0	0.0	0.0	0.0
화합물 및 화학제품	3.6	3.6	3.4	3.5	3.7	3.3	-0.3
고무 및 플라스틱	7.1	6.5	8.3	8.5	11.7	12.2	5.1
비금속 광물	2.1	1.9	1.5	1.2	1.6	1.6	-0.5
제1차 금속	1.7	2.1	1.6	1.8	1.4	1.1	-0.6
조립금속제품	11.1	10.3	13.7	12.7	13.5	13.8	2.7
기타 기계 및 장비	22.5	21.4	20.6	20.0	17.9	12.2	-10.3
사무, 계산, 회계용 기계	1.2	1.1	1.2	1.0	1.5	1.6	0.4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9.6	10.1	9.6	10.2	10.5	11.6	2.0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15.2	16.3	15.0	15.9	15.1	15.9	0.7
의료, 정밀, 광학기기, 시계	3.2	3.9	3.4	3.9	4.3	4.1	0.9
자동차 및 트레일러	3.1	3.0	2.9	2.5	1.6	1.1	-2.0
기타 운송장비	0.4	0.3	0.3	0.2	0.1	0.1	-0.3
가구 및 기타 제조업	4.8	4.5	3.9	4.1	3.4	3.6	-1.2

자료: 경기도,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판.

4) 직종별 구성비

- 부천지역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직종별 구성비를 보면 <표 12>과 같음.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천지역 생산직 근로자 가운데는 제조 관련 및 서비스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다음으로 기계 조작원 및 관련종사자의 비중이 높음. 수도권의 다른 도시들의 직종별 구성비와 비교해 보더라도 부천지역은 단순노무자의 비중이 매우 높아 인력수요의 질이 높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12> 직종별 고용구조

단위: 명, %

	부천	서울	인천	안양	성남
추출 및 건설 기능 종사자	2.22	2.29	2.21	1.60	1.99
금속, 기계 및 관련 기능 종사자	3.48	1.81	4.31	0.90	0.70
기계설치 및 정비 기능 종사자	5.18	12.48	7.51	10.79	12.62
정밀기구, 세공 및 수공예 기능 종사자	2.14	3.63	2.58	1.30	5.39
기타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3.23	9.34	2.67	4.41	12.74
고정기계장치 및 시스템 조작 종사자	3.50	1.72	6.05	8.40	2.60
기계 조작원 및 관련 종사자	18.29	7.27	18.24	9.32	5.75
조립 종사자	8.80	4.09	10.52	10.84	7.26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	5.01	16.00	10.55	11.19	13.90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 종사자	18.65	31.65	15.37	19.17	16.17
농림어업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0.05	0.08	0.01	0.04	0.07
제조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28.56	5.79	11.23	17.56	18.99
광업,건설 및 운송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0.89	3.83	8.74	4.49	1.81
합 계	114,950	626,244	243,731	96,038	73,640

자료: 통계청, [지역내총생산 및 지출], 각년도판; 경기도, [시-군단위 지역내 총생산], 각년도판

2. 부천지역 노동시장의 공급구조

- 노동력의 공급구조는 크게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음. 양적인 측면은 근로자 수나 노동시간과 같은 노동력의 총량적인 공급구조를 의미하며 질적인 측면이란 근로자의 교육, 숙련 혹은 기능상의 공급구조를 의미함. 결국 지역노동시장의 노동력 공급은 지역 내 인구규모, 인구이동, 경제활동참가율, 인력의 질 등에 의해 결정됨.

1) 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규모

-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천지역의 인구는 80년대 이후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90년대 전반까지도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었음. 이는 부천지역이 서울 및 인천 등 인근 대도시의 위성주거도시이자 공단지역으로서 급격한 인구유입이 이루어진 것이 그 주원인임. 그러나 중동신도시 등의 입주가 완료된 90년대 중반 이후 부천지역의 인구는 감소세로 전환되어 1996-2001년의 기간 동안 마이너스 1.3%의 인구증가율을 나타냈음. 부천지역은 다른 수도권의 도시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가장 낮은 인구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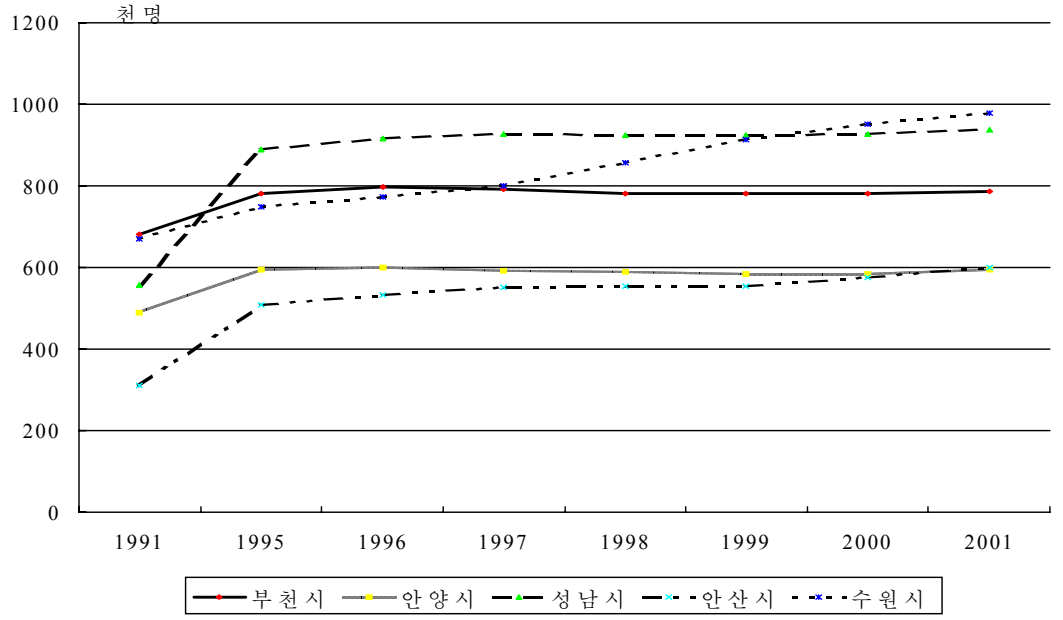
<표 13> 인구증가추세 비교

단위: 천명, %

	1991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증가율(%)	
									91-96	96-01
서울시	10,905	10,596	10,470	10,389	10,321	10,321	10,373	10,331	-4.0	-1.3
인천시	1,964	2,362	2,404	2,461	2,498	2,524	2,562	2,582	22.4	7.4
부천시	682	781	796	791	782	780	780	786	16.7	-1.3
안양시	489	594	601	593	588	584	583	594	22.9	-1.2
성남시	558	889	917	927	924	925	928	938	64.3	2.3
안산시	310	508	533	551	553	554	576	599	71.9	12.4
수원시	670	748	772	801	856	913	951	979	15.2	26.8

자료: 통계청, [시-군-구 100대 지표], 2002.

[그림 6] 수도권 도시들의 인구 추이



- 인구증가와 더불어 부천시의 15세 이상 인구(잠재노동력 인구)도 역시 급속히 증가하였음. 15세 이상 인구수는 1986년의 340 천명으로부터 1997년에는 585 천명으로 증가하였으나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서 2000년에는 569 천명을 기록하였음 (표 14).

- 인구 증가와 더불어 경제활동인구도 1986년의 183 천명으로부터 2000년에는 315 천명으로 증가하였음. 그러나 경제활동인구의 증가세 역시 90년대 중반 이후 마이너스로 돌아서서 전체 취업자 수가 1997년의 308 천명으로부터 2000년에는 300 천명으로 감소하였음.

- 부천시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86년의 53.8%로부터 차츰 상승하여 2000년에는 55.4%를 기록하고 있음.

<표 14> 부천지역의 경제활동인구 추이

단위: 천명, %

	1986	1989	1992	1997	2000
15세 이상 인구	340	395	474	585	569
경제활동인구	183	226	257	-	315
(경제활동참가율)	53.8%	57.2%	54.2%	-	55.4%
취업자	175	218	252	308	300
실업자	8	9	5	-	16
(실업률)	4.4%	4.0%	1.9%	-	5.1%

자료: 통계청, [고용구조조사보고서],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각년도판.

<표 15> 경제활동참가율의 비교 (2000)

단위: 천명, %

	전 국	서울시	인천시	부천시	안양시	안산시	성남시
15세 이상 인구	35,584	7,870	1,857	569	441	399	700
경제활동인구	19,279	4,149	1,004	315	235	231	375
(경제활동참가율)	54.2	52.7	54.1	55.4	53.3	57.9	53.6
취업자	18,456	3,948	962	300	227	223	361
실업자	823	201	43	16	8	7	13
(실업률)	4.3	4.8	4.3	5.1	3.4	3.0	3.5

주: 경제활동참가율 및 실업률은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2000.

- <표 15>에서 부천지역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수도권의 다른 도시들과 비교해 보면 부천시는 인구구조가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까닭에 경제활동참가율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실업률 역시 수도권 여러 도시 가운데 가장 높은 5.1%(2000년)을 기록함으로써 고용사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2) 인구이동

- <표 16>에서 보듯이 다른 지역으로부터 부천지역으로 유입되는 인구전입율은 1995년의 26.3%로부터 1998년에는 15.9%까지 급속하게 감소하였으나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서 2001년 현재 연간 17만명 (23.1%) 정도의 인구가 유입되고 있음. 반면 부천지역으로부터 다른 시, 도로 유출되는 인구전출률은 1995년의 24.3%로부터 1998년에 18.0%까지

떨어졌다가 이후 다시 늘어나 2001년에는 23.2%의 유출률을 기록하고 있음. 그 결과 부천지역의 인구 순전입자 수는 1995년에는 15,000명의 入超였던 것이 1997-2000년 기간에 대폭적인 순전출을 기록한 후 2001년에는 전, 출입이 균형을 이루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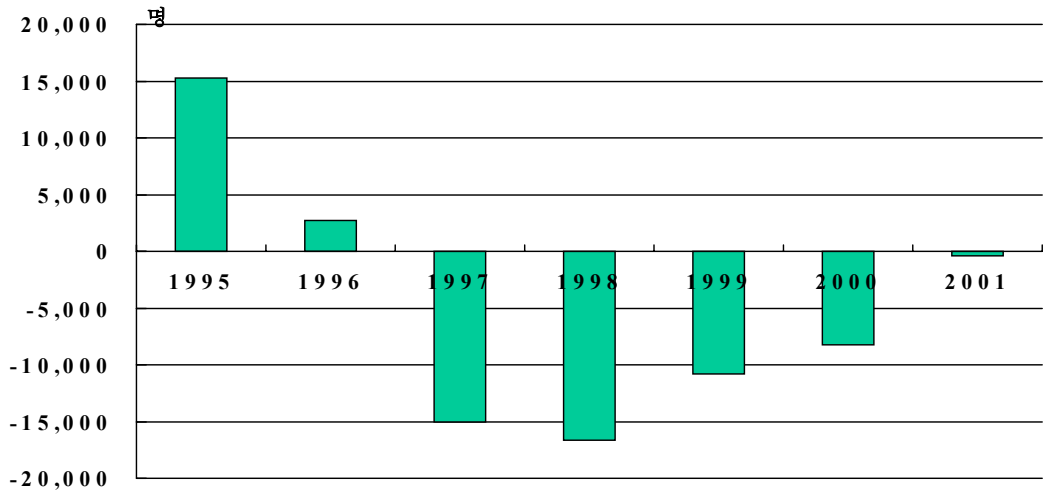
<표 16> 천시의 인구 전, 출입자 수 추이

단위: 명, %

	전 입 자 (전입률)	전 출 자 (전입률)	순전입자
1995	202,072 (26.3)	186,798 (24.3)	15,274
1996	176,109 (22.4)	173,424 (22.0)	2,685
1997	151,284 (19.1)	166,339 (21.0)	-15,055
1998	124,320 (15.9)	140,936 (18.0)	-16,616
1999	164,023 (23.1)	174,840 (24.6)	-10,817
2000	158,735 (22.3)	166,973 (23.5)	-8,238
2001	169,666 (23.1)	170,073 (23.2)	-407

자료: 통계청, {인구이동통계연보}, 2001.

[그림 7] 부천시의 순 전입인구 추이



- <표 17>에서 전출입 인구의 대상지역을 보면, 2001년에 부천지역으로 전입된 인구의 절대다수인 59.1%가 경기도 다른 지역으로부터의 전입이었으며, 20.8%는 서울로부터, 9.1%는 인천으로부터, 그리고 나머지 10.9%는 기타 도시 및 농촌지역으로부터의 전입임. 한편 전출인구의 경우 64.0%가 경기도로, 16.2%가 서울로, 10.8%가 인천으로, 그리고 9.0%가 기타 도시 및 농촌지역으로 유출되었음. 그 결과 부천지역은 서울로부터 7,768명, 다른 도시 및 농촌으로부터 3,279명의 순 전입인구가 발생한 반면, 경기도에 8,491명,

인천에 2,963명의 순 전출인구가 발생하였음.

<표 17> 부천시의 전출입지별 인구이동 (2001)

단위: 명, %

	계	경기도 내	서 울	인 천	기 타
전 입 인 구	169,666 (100.0)	100,285 (59.1)	35,368 (20.8)	15,444 (9.1)	18,569 (10.9)
전 출 인 구	170,073 (100.0)	108,776 (64.0)	27,600 (16.2)	18,407 (10.8)	15,290 (9.0)
순 전입인구	-407	-8,491	7,768	-2,963	3,279

자료: 통계청, {인구이동통계연보}, 2001.

- 즉 전체적으로 볼 때 부천지역은 서울과 다른 시, 도로부터 인구를 받아들이고 그 대신 경기도와 인천으로 인구를 유출시키고 있으며 전출입 수는 거의 균형을 이루고 있음. 과거 커다란 규모의 인구 순전입이 계속되어 왔던 부천지역에서 전입율이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은 부천지역이 다른 지역으로부터의 노동력 흡인력을 점차 상실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음.

3) 통근인구

- 부천시는 서울, 인천 및 경기도 내의 기타 주요 도시들과 1-2 시간 내의 통근거리에 있으므로 이들 지역과 중첩된 노동시장을 형성하고 있음. 따라서 이들 지역과 부천 간의 통근실태를 밝히는 것은 부천지역의 노동력 공급을 산정함에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 할 변수임.

- <표 18>에서 부천지역의 야간 상주인구와 주간 인구를 비교해 보면 야간인구 747,525명에 비해 주간인구는 677,670명으로서 약 7만명이 적음. 그 가운데 통근에 따른 타지역으로부터의 유입인구가 76,789명, 타지역으로의 유출인구가 136,710명으로서 약 6만명 정도가 순유출되고 있음.

<표 18> 부천시의 통근인구 수 (2000)

단위: 명

상주인구	유입인구			유출인구			주간인구
	전체	통근	통학	전체	통근	통학	
747,525	93,117	76,789	16,328	162,972	136,710	26,262	677,670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2000.

- 또 <표 19>에서 부천시민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43.4%만이 부천 시내에 직장

이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29.1%는 서울로, 9.3%는 인천으로, 그리고 13.9%는 경기도로 통근하는 등 부천시 직장인의 절반 이상이 부천시 이외의 지역에 직장소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남성일수록, 연령이 젊을수록,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천시 이외의 지역에 직장이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우수 노동력이 부천 밖으로 유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19> 부천시민의 직장 소재지

단위: %

	부천 시내	서 울	인 천	경 기 도	기 타
전체평균	**43.4**	**29.1**	**9.3**	**13.9**	**4.3**
(성별)					
남	42.4	29.7	9.5	14.3	4.1
여	66.7	12.5	6.3	6.3	8.3
(연령)					
29세 미만	45.9	27.9	11.5	11.5	3.3
30-39세	40.3	34.6	9.8	12.1	3.2
40-49세	40.0	30.0	10.3	17.1	2.6
50-59세	55.8	18.1	7.2	13.8	5.1
60세 이상	48.6	16.2	0.0	5.4	29.7
(교육수준)					
초등졸이하	55.2	6.9	0.0	10.3	27.6
중 졸	58.2	10.4	10.4	14.9	6.0
고 졸	48.9	23.4	6.9	16.5	4.3
대졸이상	33.9	40.1	12.3	11.3	2.3

자료: 부천시, [부천시민의식조사], 2000.

4) 외국인 노동력

- 부천지역 소재 중소 영세기업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국내 인력의 기피현상이 심각함에 따라 다수의 중소기업들은 외국인 노동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 이들 외국인 노동력 가운데는 산업연수생처럼 합법적인 신분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다수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그러나 이들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실태에 대해서는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힘듬.

- 다만 통계청에서 2000년에서 실시한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부천시 거주 외국인 수는 <표 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3,557명이며 그 가운데 남자가 3분의 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국별로는 중국(조선족), 필리핀, 중국, 베트남, 파키스탄 등 대부분 저소득 개발도상국 출신인 것으로 보아 외국인 노동자로 추정됨. 다만 이 조사에서도 다수의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이 조사대상에서 누락된 것으로 추정되어 실제 부천시 거주 외국인 노동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됨.

<표 20> 부천시 거주 외국인 현황 (2000)

단위: 명, %

	전 체	남 자	여 자
외국인 전체	3,557 (100.0)	2,325 (65.3)	1,232 (34.7)
중국(조선족)	625 (17.6)	352 (15.1)	273 (22.2)
필리핀	502 (14.1)	333 (14.3)	169 (13.7)
중국	454 (12.8)	215 (9.2)	239 (19.4)
베트남	392 (11.0)	268 (11.5)	124 (10.1)
파키스탄	241 (6.8)	229 (9.8)	12 (1.0)
방글라데시	197 (5.5)	190 (8.2)	7 (0.6)
태국	194 (5.5)	128 (5.5)	66 (5.4)
인도네시아	184 (5.2)	153 (6.6)	31 (2.5)
기타	768 (21.6)	457 (19.7)	311 (2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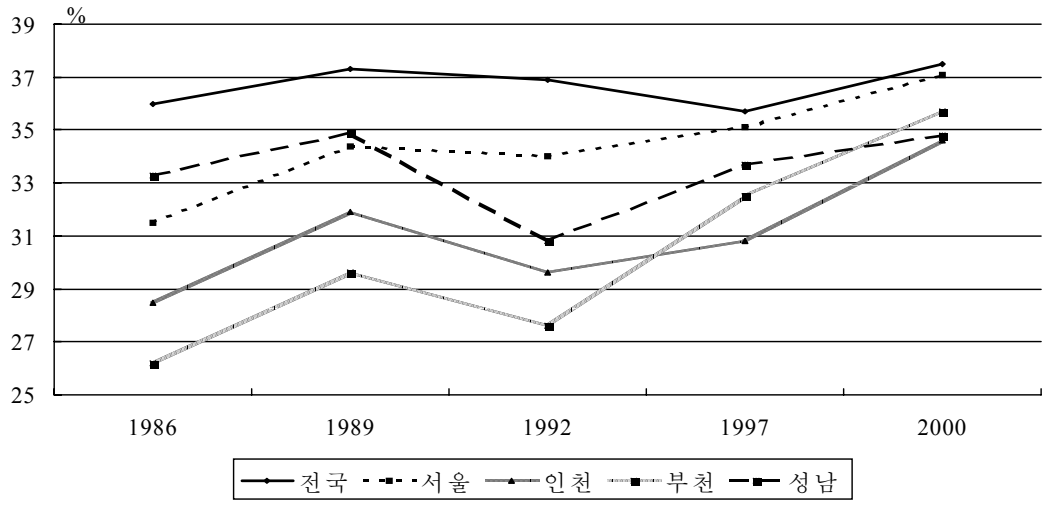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2000.

5) 부천지역 노동력의 구성

가. 성별 구성

- 부천지역 경제활동인구 중 여성 노동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6년의 26.2%로부터 2000년에는 35.7%까지 높아졌음. [그림 8]에서 다른 인근 도시의 여성 노동력의 비중을 보면 부천시의 여성 노동력 비중은 전국 평균이나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훨씬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8] 여성 노동력의 비중 추이 비교



나. 연령별 구성

- <표 21>에서 부천시 경제활동인구의 연령별 구성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한편으로는 학령기 노동력 인구의 급속한 감소,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력 인구의 고령화 현상이 눈에 뜨임. 1986년에 전체 취업자의 34.5%를 차지하고 있던 20대 연령층의 비중은 2000년에는 22.2%로 줄어들었음. 30대 연령층의 비중은 1986년의 35.5%로부터 2000년 33.7%로 약간 감소하였음. 반면 40대 연령층의 비중은 1986년의 13.7%로부터 2000년에는 29.3%로 급증하였음. 50대 연령층의 비중 역시 1986년의 6.6%로부터 2000년에 10.0%로 상승하였으며 60세 이상 노령인구 노동력 역시 1986년의 1.6%로부터 2000년 현재 2.9%까지 높아졌음. 이와 같은 청년 노동력의 공급 감소와 중-노령 연령층의 증가는 지역 노동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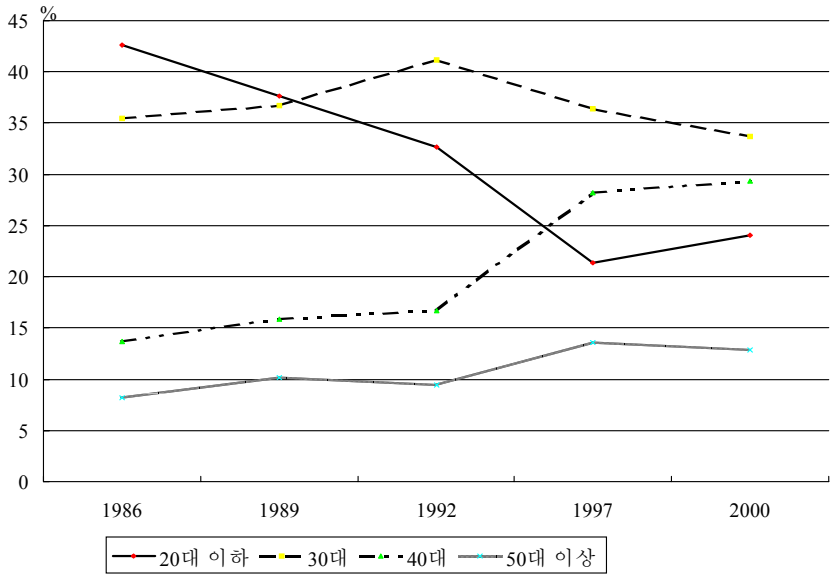
<표 21> 부천지역의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구성 추이

단위: %

연도별	전 체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1986	100.0	3.3	39.3	35.5	13.7	6.6	1.6
1989	100.0	3.1	34.5	36.7	15.9	8.0	2.2
1992	100.0	1.6	31.1	41.2	16.7	7.8	1.6
1997	100.0	1.3	20.1	36.4	28.2	10.4	3.2
2000	100.0	1.9	22.2	33.7	29.3	10.0	2.9

자료: 통계청, {고용구조조사보고서}, 각년도판;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판.

[그림 9]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구성비 추이



다. 교육정도별 구성

- <표 22>에서 보는 대로 부천지역 경제활동인구의 고학력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어 왔음. 중졸 이하 학력자의 비중은 1986년의 36.1%로부터 1989년 29.6%, 1997년 23.4%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음. 고졸자의 비중은 1986년의 45.4%로부터 1992년 52.9%까지 늘어났다가 1997년에는 43.3%로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전체 노동력의 대종을 이루고 있음. 전문대졸 의 비중은 1986년의 6.0%로부터 1992년에는 8.2%까지 늘어났다가 1997년에는 다시 6.5%로 즐어들었음. 반면 대졸 이상의 학력자 비중은 1986년의 12.6%로부터 1992년 16.0%, 그리고 1997년에는 19.2%로 급증하였음.

6) 부천지역 사업체의 노동력 구성

- 다음으로 부천지역 소재 사업체에 종사하는 노동력의 구성을 살펴봄으로서 부천지역 노동시장에 공급되는 노동력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함. 이를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조사한 “사업체실태조사”로부터 부천지역 및 인근 도시 소재 사업체 노동력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함.

<표 22> 부천지역의 교육정도별 경제활동인구 비중 추이

단위: 천명, %

연도별	전 체	중졸 이하	고 졸	전문대졸	대졸 이상
1986	183(100.0)	36.1	45.4	6.0	12.6
1989	189(100.0)	29.6	52.2	6.2	11.9
1992	257(100.0)	23.0	52.9	8.2	16.0
1997	308(100.0)	23.4	43.3	6.5	19.2

가. 규모별 성별 노동력 분포

- 먼저 종업원 규모별로 성별 노동력 구성을 <표 23>에서 살펴보면 5인 미만의 영세사업체와 300인 이상의 대기업에서 여성 노동력의 비중이 절반을 넘어서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에서는 남성 노동력의 비중이 높음.

<표 23> 규모별 성별 노동력 분포 (2003)

단위: 명, %

	남성	여성	합계
5인 미만	46.9	53.1	48,426 (100.0)
5인-10인 미만	66.4	33.6	23,280 (100.0)
10인-30인 미만	69.0	31.0	52,687 (100.0)
30인-100인 미만	49.5	50.5	43,010 (100.0)
100인-300인 미만	73.3	26.7	9,857 (100.0)
300인-500인 미만	44.3	55.7	7,032 (100.0)
500인 이상	40.9	59.1	27,606 (100.0)
합계	11,7406 (55.4)	94,492 (44.6)	211,898 (100.0)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실태조사 DB]

나. 규모별 연령별 노동력 분포

- <표 24>에서 규모별 연령별 노동력 분포를 살펴보면 대체로 종업원 규모가 작은 영세기업에서는 50대 이상의 중고령층 노동력의 비율이 높은 대신 청년층 노동력의 비중이 낮아 인력부족을 실감할 수 있음. 반면 300인 이상의 대기업에서는 전체 노동력의 절반 이상이 20대의 청년층 노동력으로 충원되어 있으며 50대 이상의 중고령층 노동력의 비중은 매우 낮음.

<표 24> 규모별 연령별 노동력 분포

단위: 명, %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합계
5인 미만	24.6	35.7	29.2	5.9	4.6	100.0
5인-10인 미만	25.6	37.4	23.6	11.3	2.1	100.0
10인-30인 미만	24.6	26.3	27.0	12.8	9.3	100.0
30인-100인 미만	29.3	29.1	28.6	8.8	4.2	100.0
100인-300인 미만	18.0	28.5	30.5	20.4	2.5	100.0
300인-500인 미만	57.3	22.8	17.9	1.4	0.5	100.0
500인 이상	51.9	24.9	17.5	4.5	1.2	100.0
합계	61,960 (29.8)	62,662 (30.1)	54,372 (26.1)	19,093 (9.2)	9,958 (4.8)	208,406 (100.0)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2000.

다. 규모별 교육수준별 노동력 분포

- <표 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노동력의 60%를 고졸이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중졸 이하, 초대-전문졸, 대졸의 순임. 그러나 규모별로는 교육수준별 노동력 분포가 상이한데 대체로 영세기업일수록 저학력자의 비중이 높고 대졸자의 비중이 낮은 반면, 대기업일수록 고학력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25> 규모별 교육수준별 노동력 분포

단위: 명, %

	중졸 이하	고졸	초대졸	대졸	대학원졸	합계
5인 미만	12.4	68.4	9.6	9.5	0.0	100.0
5인-10인 미만	15.6	62.1	9.6	12.5	0.3	100.0
10인-30인 미만	14.3	59.5	13.0	10.9	2.2	100.0
30인-100인 미만	18.5	50.9	13.6	16.1	0.9	100.0
100인-300인 미만	16.1	39.5	12.5	13.3	18.6	100.0
300인-500인 미만	2.8	75.6	10.0	11.2	0.5	100.0
500인 이상	9.0	53.8	21.0	13.8	2.4	100.0
합계	29,120	123,822	27,076	25,890	4,141	210,048
	(13.9)	(59.0)	(12.9)	(12.3)	(2.0)	(100.0)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실태조사 DB]

라. 규모별 경력년수별 노동력 분포

- <표 26>에서 규모별 경력년수별 노동력 분포상황을 살펴보면 규모가 작은 영세기업의 경우 노동시장 경력이 1년 미만인 단기경력 노동력의 비중이 매우 높은 반면 노동시장 경력이 10년 이상인 장기경력자의 비중은 매우 낮음. 반대로 종업원 규모 500인 이상인 대기업에서는 1년 미만의 단기경력자의 비중은 7.8%에 불과한 반면 경력 10년 이상의 장기경력자의 비중이 21.4%에 달하고 있어 대조적인 모습을 보임.

<표 26> 규모별 경력연수별 노동력 분포

단위: 명, %

	1년 미만	1-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합계
5인 미만	42.6	33.6	9.5	10.7	3.6	100.0
5인-10인 미만	35.6	32.8	9.4	16.4	5.8	100.0
10인-30인 미만	29.5	31.6	13.3	13.1	12.6	100.0
30인-100인 미만	37.9	34.6	14.0	9.7	3.9	100.0
100인-300인 미만	14.9	44.7	8.4	12.2	19.9	100.0
300인-500인 미만	30.9	36.8	11.8	14.5	5.9	100.0
500인 이상	7.8	29.4	10.5	31.0	21.4	100.0
합계	66,510	70,529	24,362	30,800	19,698	211,898
	(31.4)	(33.3)	(11.5)	(14.5)	(9.3)	(100.0)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2000.

마. 규모별 근속년수별 노동력 분포

- <표 27>에서 규모별 근속년수별 노동력 분포를 살펴보면 대체로 영세기업에서는 1년 미만의 단기간 근속자의 비중이 높은 반면 장기근속자의 비중이 낮아 이직이 빈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반면 500인 이상의 대기업에서는 1년 미만 단기근속자의 비중은 매우 낮은 대신 장기근속자의 비중이 높아 고용이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음.

<표 27> 규모별 근속년수별 노동력 분포

단위: 명, %

	1년 미만	1-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합계
5인 미만	21.2	27.1	22.3	7.5	22.0	100.0
5인-10인 미만	14.9	32.6	11.9	21.8	18.8	100.0
10인-30인 미만	10.6	30.2	12.5	15.5	31.1	100.0
30인-100인 미만	21.5	35.0	15.1	18.1	10.4	100.0
100인-300인 미만	5.7	19.7	9.3	19.0	46.3	100.0
300인-500인 미만	15.1	35.3	12.8	19.2	17.7	100.0
500인 이상	4.1	28.6	11.0	31.7	24.6	100.0
합계	26,536 (14.3)	56,214 (30.4)	26,668 (14.4)	33,120 (17.9)	42,573 (23.0)	185,111 (100.0)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2000.

3. 부천지역 노동력의 질적 수준

- 오늘날 노동력의 양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노동력의 질적 측면, 즉 교육 및 훈련에 의해 증가하는 노동력의 인적 자본 투자임. 부천지역은 수도권에 위치해 있는 특성으로 인해 비교적 교육수준과 훈련수준이 높은 노동력이 집중되어 왔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실업계 교육의 낙후와 대졸자 등 고급인력의 지역 외 유출, 기능인력의 훈련부족 등의 문제도 나타나고 있음.

1) 학교교육

- <표 28>에서 부천지역의 각급학교 재학생수를 인구대비로 볼 때 고등학교 재학생 수는 32,000 여명으로서 전국 대비 1.8%를 차지, 전국대비 인구수와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 그러나 그 내역을 보면 일반계(인문계) 고등학교 재학생수가 전체 부천지역 고등학교 재학생수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인력의 핵심공급원인 실업계 고등학교 재학생 수는 전국 대비 1.1%에 불과함. 특히 공업고등학교는 부천지역에 1개교 뿐으로서 고졸 노동력의 공급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전문대 재학생 수는 19,000 여명으로서 전국 대비 2.0%를 차지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4년제 대학 및 대학원 등에 재학하고 있는 고급인력의 공급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고급산업인력의 양성기관인 산업대학 및 기술대학은 부천지역에는 1개교도 없는 형편임.

<표 28> 부천지역 각급학교 재학생 현황(2002)

단위: 천명, %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계	일반계	실업계			
전 국	1,795,509	1,220,146	575,363	963,129	1,771,738	262,867
부 천	32,578	26,431	6,147	19,473	10,429	1,355
전국대비 비율(%)	1.8	2.2	1.1	2.0	0.6	0.5

자료: 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연보}, 2002; 부천시, [부천통계연보], 2002.

- <표 29>에서 부천지역 학교 졸업자의 졸업 후 진로를 보면, 고등학교 졸업자 중 상급학교 진학을 하는 비율은 79.1%이며 특히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90% 가까이가 대학으로 진학하고 있고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도 40% 이상이 대학 진학을 하고 있음. 따라서 고등학교 졸업 후 노동시장으로 나오는 인력은 연간 2천명 정도로 추정됨. 그러나 이들 가운데 얼마 만큼이 지역내 중소기업들에 취업하는 지는 확인하기 어려움.

- 지역내 전문대학과 대학교 졸업자의 거의 대부분은 노동시장에 나오는 인력들이지만 역시 임금과 근로조건이 열악한 지역내 중소기업에 얼마 만큼 취업하고 있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움.

<표 29> 부천지역 각급학교 졸업생 진학률 현황(2002)

단위: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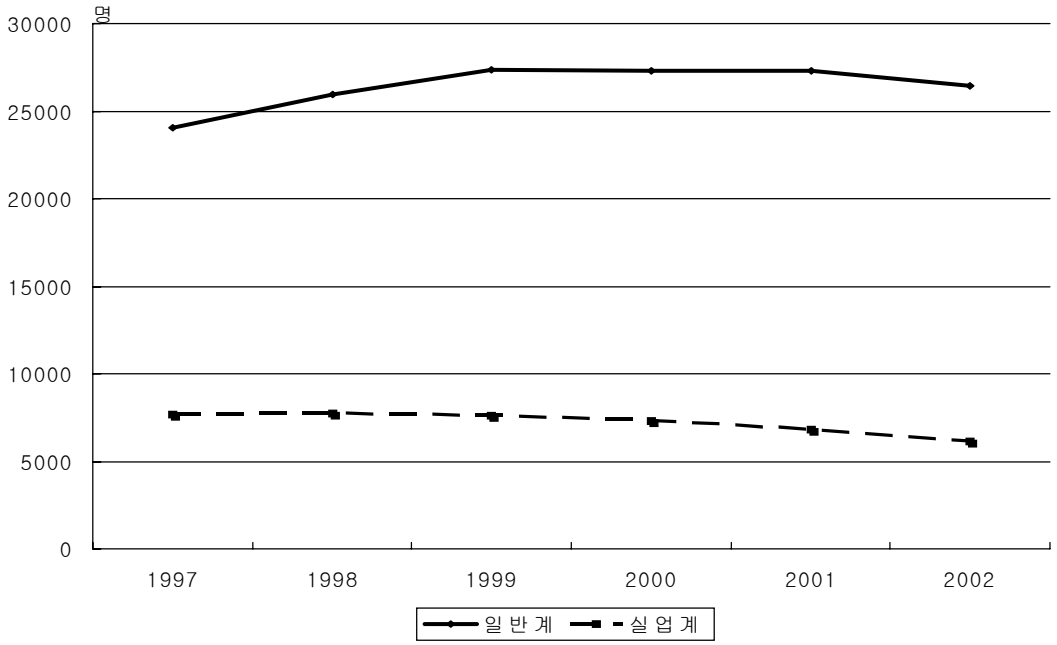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계	일반계	실업계		
졸업자 수	11,370	9,139	2,231	5,276	1,691
진학자 수	8,988	8,079	909	198	241
진학률(%)	79.1	88.4	40.7	3.8	14.3

자료: 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연보}, 2002; 부천시, [부천통계연보], 2002.

- [그림 10]에서 부천지역 일반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 재학생 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일반계 고등학교 재학생 수는 97년 이후 상승세를 보여온 반면, 실업계 고등학교 재학생 수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실업계 고등학교 기피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이는 앞으로 부천지역 노동시장의 반숙련 노동력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10] 부천지역 일반계와 실업계 고등학교 재학생 수 추이



2) 직업훈련

- 직업훈련은 학교교육이 제공할 수 없는 특정 직업에 필요한 직업능력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 됨. <표 30>에서 부천지역 각종 직업훈련기관에서 실시한 직업훈련 현황을 보면, 1997년 이래 훈련자 수가 급증하고 있기는 하나 아직 전체 근로자 수에 비하면 겨우 2% 정도에 불과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

<표 30> 부천지역 직업훈련자 수

단위: 명, %

	합 계	재직자 훈련	실업자 재취업훈련	고용촉진훈련
1997	1,648 (100.0)	1,531 (92.9)	117 (7.1)	117 (7.1)
1998	3,742 (100.0)	1,622 (43.3)	2,120 (56.7)	1,319 (35.2)
1999	7,371 (100.0)	4,884 (66.3)	2,487 (33.7)	563 (7.6)

자료: 부천시, [부천사회지표], 2000.

- 아래에서는 고용보험 원자료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해 2002년 한 해 동안의 부천지역의 직업훈련 실태를 분석한 것임. 전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본 분석의 대상은 제

조업에 한정하였고, 부천과 비슷한 규모와 특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는 안양, 안산, 성남 지역과 비교하여 보았음.

가. 직업능력개발훈련 활용실적

- 고용보험이 포괄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유급휴가훈련, 그리고 피보험자인 개별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수강장려금, 근로자 학자금대부, 실업자재취직 훈련 등이 있음. 이 중 개별근로자의 직업훈련 투자 정도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훈련 종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2002년 한 해 동안 전체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참여인원 중 76.2%가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가했고, 금액측면에서도 43.7%의 비중을 나타내었음. 따라서 본 분석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

-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가입하고 있는 제조업 사업체는 총 178,031개소로 이 중 실제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업장은 13,510개소로 약 7.6%의 비중을 보였음. 지역별로 보면 안산의 참여사업체 비중이 12.2%로 가장 높았고, 부천(9.5%), 성남(6.7%)의 순서를 보였으며 서울의 참여사업체 비중은 5.3%로 가장 낮았음 <표 31>.

<표 31> 지역별 전체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 가입사업장 중 참여사업장 비중(제조업)

(단위 : 개, %)

	부천	안양	안산	성남	서울	인천	전체
직업능력개발사업 가입사업장 (A)	9,233	5,042	9,777	6,575	35,981	15,364	178,031
직업능력개발사업 활용사업장 (B)	879	306	1,195	439	1,901	992	13,510
참여사업장 비율 (B/A)	9.5	6.1	12.2	6.7	5.3	6.5	7.6

자료 : 고용보험DB.

- 부천지역의 활용사업체 비중은 전국평균인 7.6%보다 높은 9.5%의 비중을 보였음. 그러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활용건수를 살펴보면, 다소 상이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 아래 <표 32>은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가입하고 있는 제조업 사업체 가운데 실제 훈련활용건수의 비율을 표시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사업 활용률임. 표에서 보듯이 전국 평균 활용률은 67.6%이며 지역별로 보면 안산의 활용률이 82.2%로 가장 높았고, 안양(67.1%), 성남(39.0%)의 순서를 보였으며 부천의 활용률은 34.8%로 가장 낮았음. 한편 인천은 72.1%, 서울은 41.8%의 활용률을 보였음. 부천지역의 활용률이 낮은 것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활용한 사업체의 비중(9.5%)은 전국 평균(7.6%)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활용한 건수가 적어서, 즉 여러 차례 활용하지 않아서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음.

<표 32> 지역별 전체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 가입사업장 대비 활용건수(제조업)

(단위 : 개, %)

	부천	안양	안산	성남	서울	인천	전체
직업능력개발사업 가입사업장 (A)	9,233	5,042	9,777	6,575	35,981	15,364	178,031
직업능력개발사업 활용건수 (B)	3,125	3,383	8,037	2,564	27,470	6,417	120,296
활용률 (B/A)	33.8	67.1	82.2	39.0	41.8	72.1	67.6

자료 : 고용보험DB.

나. 제조업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참가 인원수 및 지원금액

- 제조업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가한 인원수(연인원 개념)와 지원금액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훈련참가자수와 훈련지원금 모두 서울(159,366명, 212억6백만원), 인천(23,808명, 32억5천8백만원), 안양(21,826명, 24억1백만원), 안산(11,792명, 14억4천5백만원), 성남(7,088명, 9억2천5백만원)의 순서로 많은 비중을 보였음. 부천지역 제조업체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가한 인원수는 4,083명, 지원금액은 3억6천7백만원으로 각각 전체 대비 0.7%, 0.4%라는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음 <표 33>.

<표 33> 지역별 직업능력개발훈련 참가자수 및 지원금액(제조업)

(단위 : 명, 천원, %)

	부천	안양	안산	성남	서울	인천	전체
훈련참가자수	4,083	21,826	11,792	7,088	159,366	23,808	557,899
(비중)	(0.7)	(3.9)	(2.1)	(1.3)	(28.6)	(4.3)	(100.0)
훈련지원금	367,088	2,401,644	1,445,982	925,178	21,206,053	3,257,933	83,378,663
(비중)	(0.4)	(2.9)	(1.7)	(1.1)	(25.4)	(3.9)	(100.0)

자료 : 고용보험DB.

- 한편 부천지역 제조업만을 대상으로 사업체 규모별 직업능력개발훈련 참가자수(연인원 개념) 및 지원금액 추이를 살펴보면, 1,000인 이상 대규모 기업의 활용비중이 훈련참가자수 측면에서 전체의 40.4%, 금액 측면에서 전체의 27.5%를 차지하는 등 규모가 큰 업체에서 직업훈련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집중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 밖의 규모에서는 10~29인 규모와 100~299인 규모에서의 활용비중이 각각 훈련참가수 측면에서는 전체의 13%대, 훈련지원금 측면에서는 전체의 15% 가량으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나머지 집단의 경우 대체로 규모가 작은 집단일수록 훈련참가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34).

<표 34> 부천지역 사업체 규모별 직업능력개발훈련 참가자수 및 지원금액(제조업)

(단위 : 명, 천원, %)

	5인 미만	5~9인	10~29인	30~49인	50~69인	7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999인	1000인 이상	전체
훈련참가자수	50	186	558	234	124	236	534	226	286	1,649	4,083
(비중)	(1.2)	(4.6)	(13.7)	(5.7)	(3.0)	(5.8)	(13.1)	(5.5)	(7.0)	(40.4)	(100.0)
훈련지원금	7,761	21,010	54,324	22,955	14,048	26,383	57,943	27,098	34,650	100,915	367,088
(비중)	(2.1)	(5.7)	(14.8)	(6.3)	(3.8)	(7.2)	(15.8)	(7.4)	(9.4)	(27.5)	(100.0)

자료 : 고용보험DB.

4. 인력부족 현황

-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부천지역은 중소 제조업의 밀집지역으로서 비교적 부가가치가 낮고 임금과 근로조건이 열악한 영세사업체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 반면, 노동력의 공급 면에서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전체적으로 인력부족 현상을 나타내고 있음. 아래에서는 노동부가 조사한 [2003년 노동력 수요동향 분석 결과]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부천지역 소재 사업체들의 인력부족 실태를 분석하고자 함.

1) 규모별 인력부족 현황

- 부천지역의 기업규모별 인력부족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현 종업원 수 대비 약 6.6%의 인력부족률을 나타내고 있지만 기업규모별로는 커다란 차이가 있음. 즉 종업원 5-9인 규모의 영세기업에서는 10%가 넘는 인력부족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 대기업에서는 인력부족률이 매우 낮은 실정임 (표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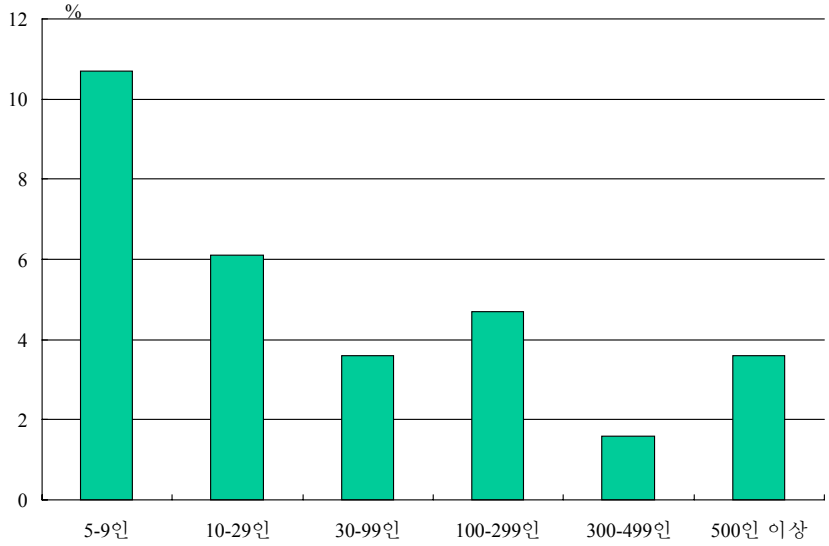
<표 35> 부천지역의 규모별 인력부족 현황

단위: 명, %

규모	현원	부족인원	부족률(%)
전 체	124,721	8,227	6.6
5~9인	34,572	3,699	10.7
10~29인	43,384	2,657	6.1
30~99인	29,416	1,053	3.6
100~299인	12,526	583	4.7
300~499인	3,902	61	1.6
500인 이상	4,823	174	3.6

자료: 노동부, [노동력수요동향조사보고], 원자료 DB.

[그림 11] 부천시 사업체의 규모별 인력부족률



- 부천지역의 규모별 인력부족 현상을 다른 인근 도시들의 그것과 비교해 보면, 부천지역의 전체 인력부족률은 인근 도시들에 비해 확연히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특히 영세 사업체 들의 경우 부천시의 인력부족률이 다른 도시들에 비해 매우 높음 (표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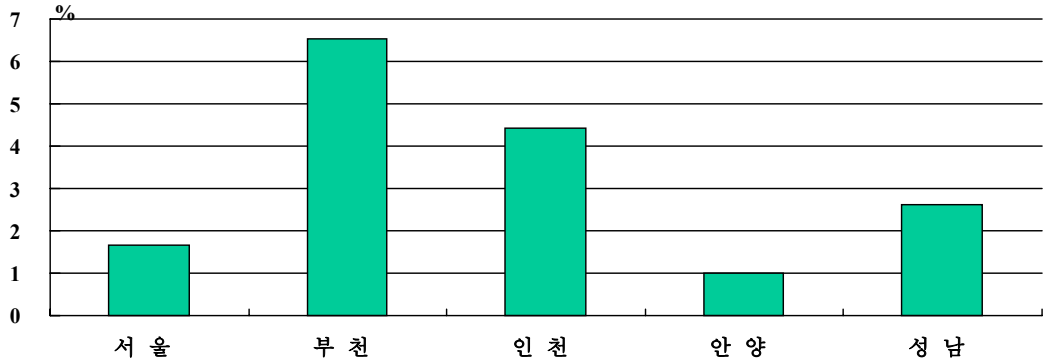
<표 36> 규모별 지역별 인력부족 현황

단위: %

규모	전국	서울	부천	인천	안양	성남
5~9인	3.59	2.54	10.70	6.21	0.84	2.99
10~29인	2.74	1.47	6.12	5.23	0.56	4.17
30~99인	2.28	0.79	3.58	4.32	0.82	2.68
100~299인	2.22	3.26	4.66	4.57	2.00	1.34
300~499인	1.16	2.22	1.57	0.79	0.00	3.89
500인 이상	0.34	0.34	3.60	0.35	0.98	0.00
전체	2.18	1.65	6.53	4.42	1.00	2.61

자료: 노동부, [노동력수요동향조사보고], 원자료 DB.

[그림 12] 지역별 인력부족률 비교



2) 제조업 업종별 인력부족 현황

- 제조업의 업종별 인력부족 현황을 살펴보면 부족인원의 절대수 면에서는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등의 순으로 부족인원 수가 많으며, 부족률 면에서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등의 순으로 인력부족률이 높음 (표 37).

<표 37> 부천지역 제조업 업종별 인력부족 현황

단위: 명, %

제조업 업종별	현원	부족인원	부족률
음·식료품 제조업	2,652	171	6.44
섬유제품 제조업; 봉제의복 제외	393	7	1.8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961	9	0.9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267	11	4.16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343	0	0.00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407	22	1.59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3,323	212	6.3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7,402	958	12.94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3,164	73	2.30
제 1차 금속산업	1,480	61	4.10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8,931	313	3.51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5,869	1,590	6.15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967	61	6.28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9,430	662	7.02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9,872	501	5.0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3,213	230	7.15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304	618	47.3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41	0	0.00
가구 및 기타제품 제조업	3,009	33	1.11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87	0	0.00

자료: 노동부, [노동력수요동향조사보고], 원자료 DB.

3) 직종별 인력부족 현황

- 직종별 인력부족 현황을 보면 부족인원의 절대수 면에서는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단순노무자, 금속-기계 및 관련 기능근로자의 순으로 많으며, 부족률 면에서는 단순노무자, 정밀-수공예-인쇄 및 관련 기능근로자,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등의 순으로 높음 (표 38).

<표 38> 부천지역 직종별 인력부족 현황

단위: 명, %

	현원	부족인원	부족률
추출 및 건축 기능근로자	422	0	0.00
금속,기계 및 관련 기능근로자	10,724	742	6.91
정밀,수공예,인쇄 및 관련 기능근로자	1,845	187	10.13
기타 기능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	2,703	114	4.24
고정장치 및 관련 조작원	5,022	215	4.27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25,395	1,801	7.09
운전기사 및 이동장치 조작원	8,442	305	3.61
행상 및 단순서비스직 근로자	4,246	117	2.75
채광,건설,제조 및 운수관련 단순노무자	9,480	1,165	12.29

5. 근로조건과 임금

1) 임금

- <표 39>에서 보듯이 부천지역 소재 사업체의 평균 임금수준은 2003년 현재 143 만원으로서 인근 도시 소재 사업체의 평균임금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이는 부천지역에 부가가치가 낮은 영세사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사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짐. 부천 지역 사업체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의 33.9%가 월 100 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는 실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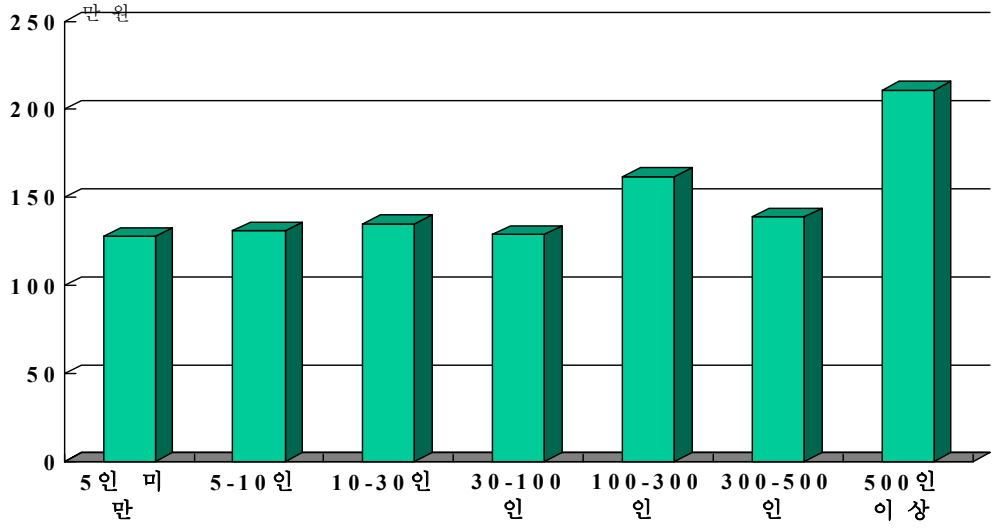
<표 39> 지역별 제조업 임금분포 (2003)

단위: 천원, 명, %

	전국	부천	서울	인천	안양	성남
평균임금 (천원)	1,687.7	1,429.2	1,771.3	1,501.1	1,744.1	1,616.9
50만원미만	2.4	2.7	1.7	2.4	2.9	2.4
50-75만원	8.4	11.1	7.4	8.9	11.5	10.9
75-100만원	13.8	20.1	14.0	17.7	13.6	15.3
100-150만원	26.7	27.7	28.4	28.5	20.9	24.3
150-200만원	19.6	20.5	18.5	21.4	16.9	21.5
200-300만원	20.1	14.1	18.7	17.3	23.5	17.7
300-500만원	8.2	3.3	9.2	3.4	9.6	6.7
500만원 이상	0.9	0.4	2.2	0.4	1.2	1.2

- [그림 13]에서 부천지역 소재 사업체의 기업규모별 임금수준을 보면, 기업규모가 작은 영세 기업일수록 임금수준이 낮아서 5인 미만 규모 사업체의 평균임금은 128만원에 불과한데 이는 500인 이상 기업 평균임금 211만원에 비하면 60%에 불과한 수준임.

[그림 13] 규모별 제조업 평균임금



2) 근로시간

- <표 40>에서 부천지역 소재 제조업 사업체의 월평균 근로시간을 인근 도시들의 그것과 비교해 보면 부천지역 사업체 종사 근로자들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7.4 시간으로서 서울, 인천, 안양 등 인근 도시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임. 특히 전체 근로자의 33%가 법정 근로시간인 주당 44시간 이상을 일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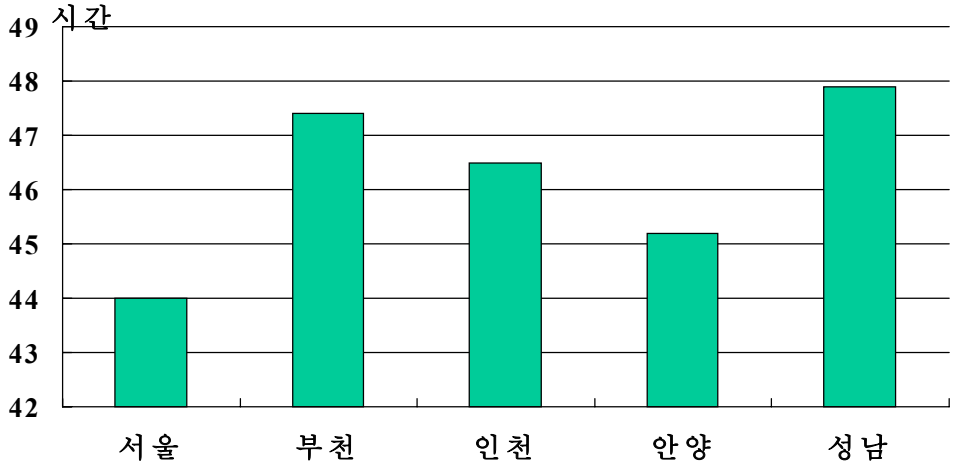
<표 40>지역별 제조업 사업체 주당 평균노동시간 분포

단위: 시간, 명, %

	전국	부천	서울	인천	안양	성남
평균노동시간	47.5	47.4	44.0	46.5	45.2	47.9
18시간 미만	0.8	0.9	0.8	0.9	1.1	1.5
18-30 시간	1.5	1.9	1.7	1.5	1.5	1.6
30-35 시간	2.2	1.3	3.0	2.5	0.8	2.1
35-40 시간	36.2	34.4	48.8	42.9	43.0	29.3
40-44 시간	26.5	28.1	26.9	24.0	33.8	34.5
44-50 시간	15.3	16.2	12.8	11.2	9.7	13.7
50-56 시간	17.6	17.2	6.0	17.0	10.2	17.6
빈도	3,157,632	128,210	458,185	217,346	90,534	70,5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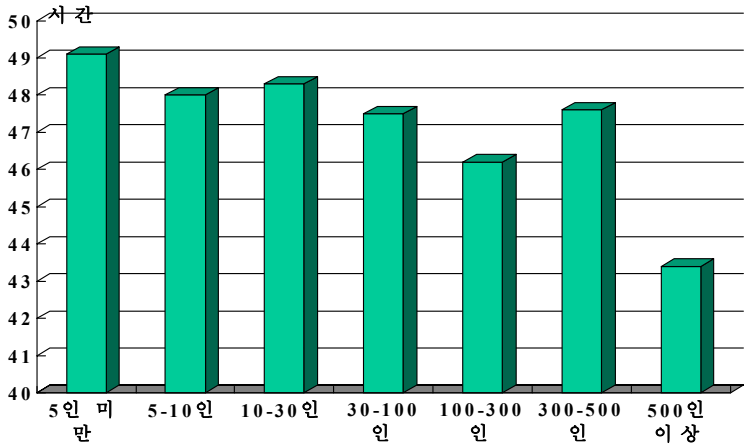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실태조사 DB].

[그림 14] 지역별 평균노동시간 비교



- 또 [그림 15]에서 기업규모별 평균노동시간을 비교해 보면 영세규모 사업체일수록 노동시간이 길어서 5인 미만 사업체 평균 노동시간은 주당 49.1 시간인데 이는 500인 이상 사업체 평균 노동시간 43.4 시간에 비해 주당 6시간이나 많은 것임.

[그림 15] 규모별 평균 노동시간 비교



3) 고용안정

- 고용안정 정도는 근로조건 가운데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서 근로자의 생활안정은 물론이고 기업의 입장에서도 우수인력의 확보와 숙련습득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인임.

- <표 41>를 살펴보면 부천지역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 가운데 고용이 불안정한 임시 및 일일고용 근로자의 수와 그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41> 부천지역 제조업체의 종사상 지위별 종사자 수

단위: 명, %

	1999	2000	2001
제조업 계	74,502 (100.0)	81,422 (100.0)	79,097 (100.0)
자영업주	8,134 (10.9)	8,172 (10.0)	8,115 (10.3)
무급가족	1,431 (1.9)	1,543 (1.9)	1,597 (2.0)
상용종사자	62,374 (83.7)	68,165 (83.7)	65,297 (82.6)
임시 및 일일	2,533 (3.4)	3,463 (4.3)	3,940 (5.0)
무급종사자	30 (0.0)	79 (0.1)	148 (0.2)

자료: 경기도,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판.

- 부천지역 소재 사업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실태를 보면 다른 도시에 비해 매우 열악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음. 즉 <표 42>에서 보듯이 부천지역 소재 사업체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률은 산재보험을 제외하면 20% 대에 머물고 있으며 상여금 적용률은 19.5%, 퇴직금 적용률은 39.2%에 불과함. 이는 전국 평균은 물론이고 인근 도시지역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률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표 42> 비정규직 사회보험 및 부가급여 적용률

단위: %

	전국	부천	서울	인천	성남	안양
고용보험	40.1	26.8	47.9	33.0	30.4	25.9
건강보험	38.5	24.1	42.3	42.5	31.0	18.9
국민연금	36.3	21.7	40.3	38.7	29.4	16.6
산재보험	48.6	41.1	55.1	38.0	34.0	47.6
상여금	19.5	15.6	23.4	16.9	8.2	10.3
퇴직금	39.2	24.1	41.0	51.2	28.3	13.3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실태조사 DB].

4) 근로여건 만족도

- 이상에서 살펴본 열악한 임금 및 근로조건 등으로 인해 부천시에 거주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그다지 높지 못한 실정임.

- <표 43><표 44>에는 부천시가 조사한 [2000년 부천시민 의식조사]의 결과가 나타나 있음. 이에 따르면 조사대상자들 중 급여 및 복리후생에 대해 46.9%는 만족 또는 대체로

만족이라고 대답한 반면, 53.1%는 불만 또는 대체로 불만이라고 대답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불만족인 사람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그밖에도 승진 등 장래성, 작업환경, 노동시간 등에 대해 불만족을 느끼는 사람의 비율이 높아 부천지역 소재 사업체의 전반적인 임금과 근로조건에 불만을 표시하였음.

- 한편 근로자의 속성별로는 여자에 비해 남자가, 중고령층에 비해 젊은 사람들이, 그리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불만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3> 부천시민의 근로여건 만족도 조사결과 (1)

단위: %

	급여 및 복리후생				업무내용				장래성(승진 등)			
	만족	대체로만족	대체로불만	불만	만족	대체로만족	대체로불만	불만	만족	대체로만족	대체로불만	불만
전체 평균	5.9	41.0	44.2	8.9	8.8	54.0	31.2	6.0	6.3	39.7	44.7	9.2
(성별)					1							
남	5.9	40.6	44.6	8.9	8.1	54.5	31.5	5.9	6.0	39.7	45.3	9.0
여	3.9	49.0	37.3	9.8	17.6	47.1	27.5	7.8	9.8	37.3	39.2	13.7
(연령)												
29세 미만	9.7	45.2	40.3	4.8	11.3	58.1	27.4	3.2	9.7	46.8	35.5	8.1
30-39세	5.1	35.4	50.8	8.8	8.1	52.9	34.2	4.7	6.1	39.1	48.3	6.5
40-49세	6.5	40.6	41.8	11.2	8.9	52.4	31.4	7.4	6.2	37.6	44.4	11.8
50-59세	5.9	47.4	41.5	5.2	6.7	57.5	29.9	6.0	4.5	42.9	45.1	7.5
60세 이상	2.3	52.3	34.1	11.1	15.9	52.3	22.7	9.1	9.1	40.9	34.1	15.9
(교육수준)												
초등졸 이하	6.3	34.4	50.0	9.4	6.5	45.2	38.7	9.7	9.7	48.4	29.0	12.9
중졸	4.5	36.4	36.4	22.7	6.1	47.0	37.9	9.1	4.6	29.2	47.7	18.5
고졸	4.6	38.4	48.4	8.5	7.6	50.6	34.7	7.1	5.1	35.5	50.1	9.3
대졸 이상	7.5	45.2	40.4	7.0	10.8	59.7	25.5	4.0	7.5	45.6	39.6	7.3

자료: 부천시, [부천시민의식조사],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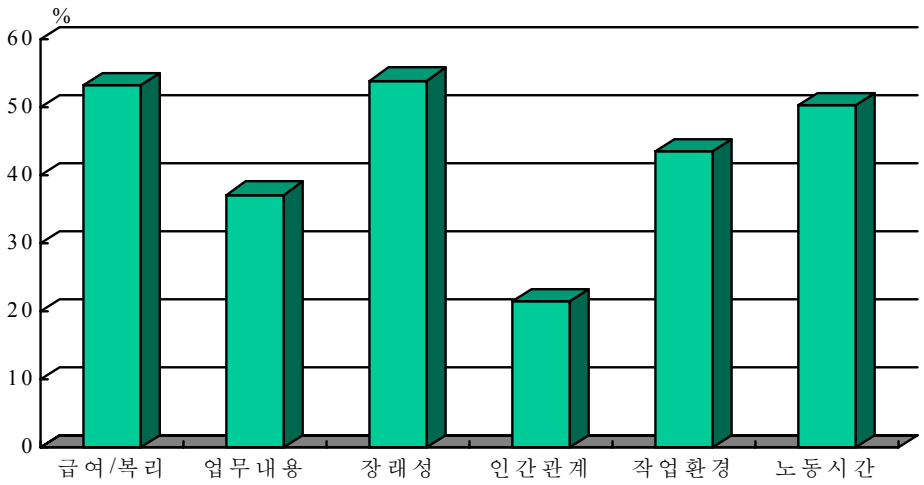
<표 44> 부천시민의 근로여건 만족도 조사결과 (2)

단위: %

	직장내 인간관계				작업환경				노동시간			
	만족	대체로만족	대체로불만	불만	만족	대체로만족	대체로불만	불만	만족	대체로만족	대체로불만	불만
전체 평균	17.1	61.3	16.7	4.9	10.5	46.1	35.9	7.5	7.1	42.6	38.6	11.7
(성별)					1							
남	16.5	61.3	17.4	4.8	9.5	46.6	36.4	7.5	6.7	43.0	38.9	11.5
여	22.0	60.0	10.0	8.0	21.6	37.3	31.4	9.8	13.7	33.3	37.3	15.7
(연령)												
29세 미만	25.8	62.9	9.7	1.6	19.4	43.5	32.3	4.8	11.3	46.8	25.8	16.1
30-39세	17.6	62.0	15.6	4.7	9.8	41.0	41.0	8.1	6.5	36.2	43.0	14.3
40-49세	17.1	59.3	17.4	6.2	10.6	47.2	34.8	7.4	6.8	46.0	37.4	9.8
50-59세	12.7	66.4	19.4	1.5	6.7	54.8	32.6	5.9	7.5	44.8	41.0	6.7
60세 이상	14.0	53.5	20.9	11.6	13.6	45.5	27.3	13.6	6.8	40.9	34.1	18.2
(교육수준)												
초등졸 이하	16.7	56.7	16.7	10.0	6.3	37.5	43.8	12.5	3.1	40.6	40.6	15.6
중졸	9.1	53.0	28.8	9.1	6.1	43.9	34.8	15.2	9.5	31.7	41.3	17.5
고졸	16.9	57.9	19.6	5.6	8.8	42.1	40.6	8.6	5.9	37.9	42.1	14.2
대졸 이상	18.8	66.8	11.5	2.9	13.4	51.7	30.3	4.6	8.4	49.9	34.2	7.5

자료: 부천시, [부천시민의식조사], 2000

[그림 16] 부천시민의 근로여건 불만족도*



주: 불만족도='대체로 불만' + '불만'

6. 요약과 결론

- 지역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의 하나는 지역 내에 풍부하고 질 높은 인력을 확보하고 이들에게 질 높은 일자리를 제공하여 주는 것임. 그러나 부천지역의 중소기업들은 적절한 양질의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는 물론, 정상적 운영조차 어려울 정도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부천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부족의 실태와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부천지역 노동시장의 수요 및 공급실태를 분석하고 그 결과로 나타난 노동력의 수급상의 격차와 임금 및 근로조건의 실태, 그리고 부천지역 기업들의 인력부족의 실태 등을 분석하였음.

- 먼저 노동력 수요 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그 동안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여 오던 부천지역 경제가 90년대 중반 이후 여러 가지 여건변화로 인해 성장세가 둔화됨에 따라 취업자 증가율도 급속하게 둔화되었음. 이에 따라 고용흡수력 면에서도 부천지역 노동시장은 90년대 들어 고용흡수력의 저하 현상을 나타내고 있음.

- 고용구조 면에서는 종래의 제조업 중심의 취업구조로부터 3차 산업 중심의 취업구조로 급속한 변화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나 다른 수도권 도시들에 비하면 여전히 제조업 취업인구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편임.

- 규모별로는 대규모 사업체 종사자의 비중이 줄어드는 대신 영세기업 종사자의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 다음으로 노동력 공급 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80년대-90년대 전반까지 급속한 증가세를 보여 왔던 부천시의 인구규모는 90년대 후반 이후 급격한 성장둔화를 보이고 있음. 이에 따라 15세 이상의 잠재노동력 인구와 경제활동인구 규모 역시 90년대 이후 뚜렷한 성장세의 둔화를 보여주고 있음. 부천지역 노동력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80년대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 왔으나 90년대 들어 감소한 뒤 최근 다소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음.

- 부천지역으로 유입되는 인구의 전입률은 90년대 후반 이후 차츰 둔화되다가 최근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다른 지역으로 전출되는 전출율은 역시 90년대 후반 이후 감소하다가 최근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음. 이에 따라 인구의 순전입률은 현재 거의 전,출입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임. 이는 과거에 높은 노동력 흡인력을 보여왔던 부천시가 차츰 그 흡인력을 잃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 노동력의 구성 면에서 먼저 성별 구성을 살펴보면 여성노동력의 비중이 꾸준히 상승하여 2000년 현재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35% 수준에 이르고 있음. 그러나 부천시의 여성 노동력 비중은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아직 낮은 수준으로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여성 노동력의 증가가 예상됨. 연령별 구성 면에서는 학령기 노동력 인구의 급속한 감소와 더불어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력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 또 교육정도별 구성 면에서는 전체적으로 노동력 인구의 고학력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음. 이러한 노동력 공급구성의 변화는 노동시장에서 부문별 인력 과부족 현상을 일으키고 있음.

- 노동력의 양적 측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노동력의 질적 측면, 즉 교육 및 훈련에 의해 축적되는 인적 자본 투자임. 먼저 학교교육 면에서 전체 고등학교 졸업 노동력의 공급은 전국 평균과 비슷하지만 산업인력의 중심 공급원인 실업계 고등학교 재학생의 비중은 매우 미미한 수준임. 한편 대학교 졸업 이상의 고급인력의 공급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산업인력의 양성기관인 산업대학 및 기술대학은 부천지역에는 1개교도 없는 형편임. 고등학교 졸업자의 거의 대부분은 상급학교에 진학하며 노동시장으로 나오는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임.

- 직업훈련 면에서는 직업훈련기관의 수와 질이 매우 부족하며 이에 따라 직업훈련자 수는 미미한 실정임.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가입하고 있는 가입사업장의 비율은 다른 도시에 비해 높지만 실제 활용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기업측의 보다 활발한 참여가 필요함.

- 이상에서 살펴본 노동력 수요, 공급 상의 과부족으로 인해 지역노동시장에서 노동력 수급격차가 나타나고 있음. 규모별로는 영세기업 및 소규모 기업에서 인력부족 현상이 심하며, 업종별로는 자동차업종과 고무 및 플라스틱제조업에서 인력부족률이 매우 높음. 직종별로는 정밀기능근로자와 단순노무자의 부족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부천지역 사업체 취업자 중 임시, 일용 근로자 등 고용이 불안정한 근로자의 비중이 증대하고 있어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가중되고 있음. 이들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보험의 적용률은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임.

- 임금면에서는 부천시 제조업의 평균임금이 전국 평균의 85%, 서울시 평균임금의 80%에 불과하며 근로시간 면에서도 부천지역 근로자들의 월평균 근로시간이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임. 즉 전체적으로 볼 때 부천지역 노동시장의 근로여건은 고용의 안정성, 임금, 근로시간 등 여러 측면에서 열악한 상태임.

- 이러한 열악한 임금 및 근로조건으로 인해 부천시 거주 근로자들의 근로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그다지 높지 못한 실정임. 부천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조사대상자 중 현재 하고 있는 일이나 근로여건, 복지후생 등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근로자 비중이 만족하는 근로자 비중보다 높은 편임.

Ⅲ. 부천지역 중소사업체 실태조사 결과

1. 조사의 개요

- 사업체 조사로 부천 공업지역의 사업체 2100여 개소를 조사함.

- 조사대상사업체는 업종 · 규모별로 층화추출을 통해 선정됨.
  · 업종의 선택은 제조업 제 4차 분류 8개 업종을 택하였으나 '조립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제조업'은 분류가 광범위하므로 '조립금속제품, 기계 및 전기제조업, 통신·광학·의료기기, 자동차 및 부품'으로 세분화함
  · 규모별로는 1-4인, 5-29인, 30-49인, 50-99인, 100인 이상의 다섯 가지로 나눔

- 업종과 규모를 고려한 표본을 고용보험 자료와 부천상공회의소의 기업체현황조사 자료를 연계하여 층화추출하였으나 실제 수거에는 업체의 협조미비로 어려움이 있었음.

- 설문조사 기준시점은 2003년 10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 약 3주간이며 부천상공의소 주관으로 방문응답조사를 실시하여 2100개소 중 435개만 유효표로 수집됨

- 응답업체의 특성<표 3-1>
  · 업종별로 '기계 및 전기제조업'이 24.2%, '통신·광학·의료기기'가 23.0%, '화합물, 석유, 석탄, 고무 및 프라스틱제품제조업'이 15.7%, '조립제품금속'이 12.0%로 전체 제조업의 74.9%를 차지함
  · 규모별로 '5-29인 이하'가 60.8%, '30-49인 이하'가 17.5%로 50인 이하의 업체가 78.3%를 차지함
  · 부천상공총람(2002년)의 업종별 제조업체 현황과 종업원수 제조업체 현황은 <표3-2>와 같음.

<표3-1> 응답업체의 특성

(단위 : 업체수, %)

			업체수	비율
전체			434	100
제조업	음식료품 및 담배제조업		5	1.2
	섬유, 의복 및 가죽산업		11	2.5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인쇄 및 출판업		10	2.3
	화합물, 석유, 석탄, 고무 및 프라스틱제품제조업		68	15.7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석유 및 석탄제품 제외)		3	0.7
	제 1차금속산업		6	1.4
	조립금속제품		52	12.0
	기계 및 전기제조업		105	24.2
	통신 · 광학 · 의료기기		100	23.0
	자동차 및 부품		11	2.5
	기타 제조업		7	1.6
	기타(산업코드분류불능)		56	12.9
규모	4인 이하		42	9.7
	5-29인 이하		264	60.8
	30-49인 이하		76	17.5
	50-99인 이하		42	9.7
	100인 이상		10	2.3
노조	없음		409	96.2
	있음		16	3.8
			평균	
매출액		전 체	47억 4천 2백만원	
		1-49인 업체	30억 6천 2백만원	
		50인 이상 업체	174억 9천 1백만원	
임금	대졸 초임	전 체	106.8만원	
		1-49인 업체	106.4만원	
		50인 이상 업체	109.4만원	
	고졸 초임	전 체	106.2만원	
		1-49인 업체	106만원	
		50인 이상 업체	105.9만원	

자료 : 「부천시 중소기업 인력수급실태 설문조사」, 2003.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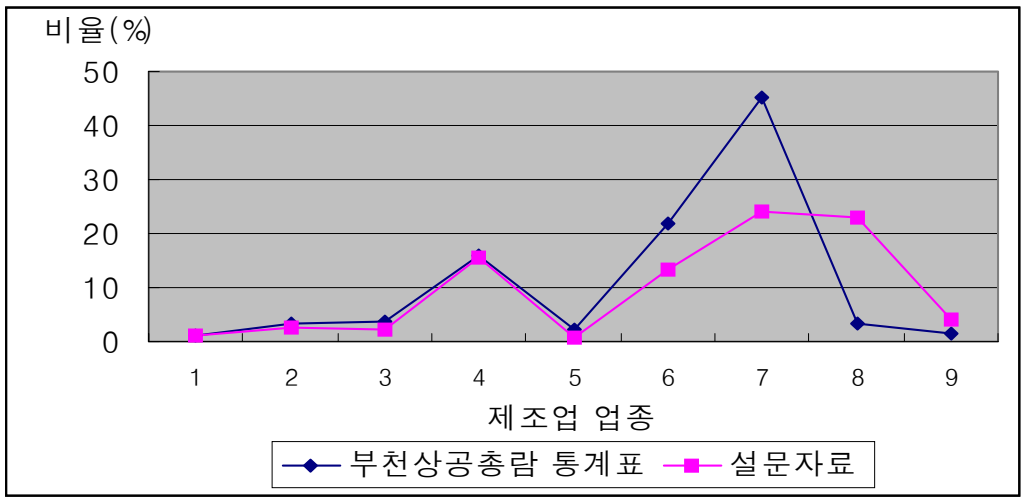
· 부천상공총람의 통계표와 설문자료의 제조업 업종별 특성의 분포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 <그림3-1>과 같음.
· 1번인 음식료품 제조업에서 5번인 비금속광물제조업까지의 분포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음식료품 제조업은 부천상공총람의 경우 1.1%, 설문자료의 경우 1.2%이며 비금속광물제조업은 각각 2.1%, 0.7%)
· 6번인 금속 가공업부터 7. 기계 및 전기제조업, 8. 통신 · 광학 · 의료기기는분포가 큰 차이를 보임(금속가공업은 부천상공총람의 경우 21.7%, 설문자료의 경우 13.4%로 8.3%의 차이가 나며 특히 기계 및 전기업의 경우 각각 45%, 24.2%로 약 21%의 차이가 남)
· 부천상공총람의 통계표와 설문자료의 제조업 규모별 특성의 분포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 <그림3-2>와 같음(규모는 100인 이상이 부천상공총람의 경우 0.8%, 설문자료의 경우 2.3%인 경우를 제외하고 1-4인의 경우 각각 56.4%, 9.7% 그리고 5-49인의 경우 각각 42.9%, 88%로 분포차이가 큼)

<표3-2> 부천상공총람의 통계표 - 업종별 · 규모별 제조업체 현황

(단위 : 업체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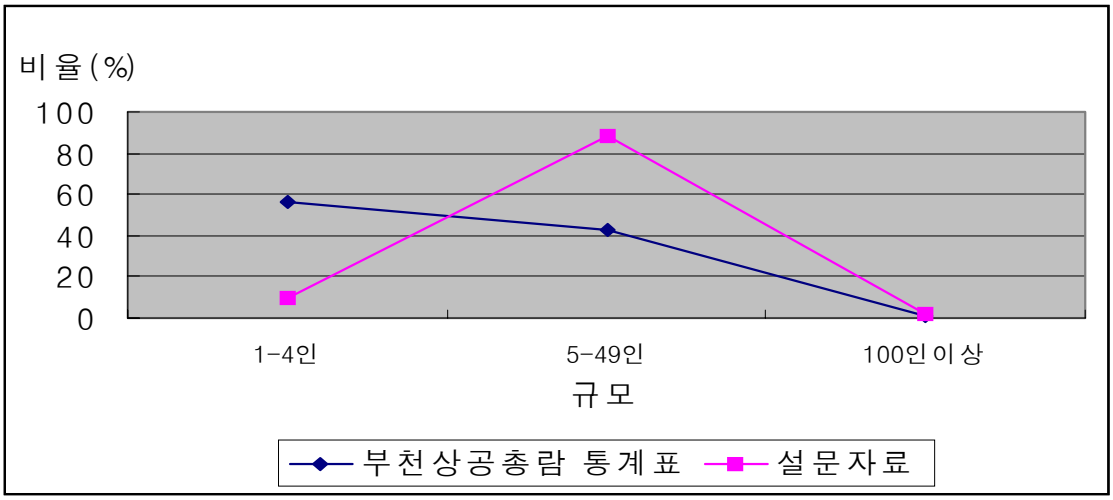
		응답수	비율
전체		8610	100
제조업	음식료제조업	91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 모피 · 신발)	300	3.5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펄프, 종이)	166	1.9
	출판 · 인쇄업	319	3.7
	화합제품 제조업(고무 · 플라스틱 · 유류)	1390	16.1
	비금속광물제조업(유리, 광물)	181	2.1
	금속 가공업(조립금속)	1869	21.7
	기계 · 장비 제조업	1823	21.2
	전기 · 전자업	2046	23.8
	통신 · 광학 · 의료기기	291	3.4
	기타 제조업	134	1.6
규모	4인 이하	4853	56.4
	5-19인 이하	264	33.8
	20-49인 이하	76	7.4
	50-99인 이하	42	1.7
	100인 이상	10	0.8

<그림3-1> 부천상공총람의 통계표와 설문자료의 제조업 업종별 분포비교



주 : 1. 음식료제조업, 2. 섬유제품 제조업(의복·모피·신발), 3. 출판·인쇄업
4. 화합제품 제조업(고무·플라스틱·유류), 5. 비금속광물제조업(유리 광물)
6. 금속 가공업(조립금속), 7. 기계 및 전기제조업, 8. 통신·광학·의료기기
9. 기타 제조업

<그림3-2> 부천상공총람의 통계표와 설문자료의 규모별 분포비교



- 노조유무별

· 사업체의 96.2%가 조직되어 있지 않음.

· 규모가 클수록 노조의 조직률이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표-3).
(규모가 1-4인의 경우 0%, 5-29인의 경우 1.9%, 30-49인의 경우 4%,
50-99인의 경우 14.3%, 100인 이상인 경우 22.2%)

<표3-3> 규모별 노조유무

(단위 : 업체수, %)

		전체	없음	있음
		빈도(비율)	빈도(비율)	빈도(비율)
전체		425(100)	409(96.2)	16(3.8)
규모	1-3인	39(9.2)	39(100)	0(0)
	5-29인	260(61.2)	255(98.1)	5(1.9)
	30-49인	75(17.7)	72(96)	3(4)
	50-99인	42(9.9)	36(85.7)	6(14.3)
	100인+	9(2.1)	7(77.8)	2(22.2)

자료 : 「부천시 중소기업 인력수급실태 설문조사」, 2003. 11

- 매출액
  - 평균 약 47억원임.
  - 매출액이 가장 높은 산업은 '화합물, 석유, 석탄, 고무 및 프라스틱제품제조업으로 약 86억원이며 다음으로 매출액이 높은 산업은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인쇄 및 출판업'으로 약 76억원임.
  - 규모가 클수록 매출액이 커지는 경향이 있음(표3-4).
    (1-4인의 경우 약 6억, 5-29인의 경우 약 31억, 30-49인의 경우 55억, 50-99인의 경우 64억원, 100인 이상인 경우 285억원)

- 당기순이익의 경우 '조립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제조업'이 약 9억 6천만원으로 가장 높고 '화합물, 석유, 석탄, 고무 및 프라스틱제품제조업'이 6억 7천만원으로 그 다음으로 높음(표-4)

<표3-4> 산업별 · 규모별 매출액과 당기순이익

(단위 : 업체수)

		매출액		당기순이익	
		평균	빈도	평균	빈도
전체		**47억 4천 2백만원**	**283**	**7억 7천 9백만원**	**188**
제조업	음식료품 및 담배제조업	47억 7천 4백만원	3	40억원	1
	섬유, 의복 및 가죽산업	30억 6천만원	8	9천 8백만원	4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인쇄 및 출판업	**76억 9천 1백만원**	7	4억 9천 1백만원	4
	화합물, 석유, 석탄, 고무 및 프라스틱제품제조업	**85억 7천 9백만원**	40	6억 6천 9천만원	27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석유 및 석탄제품 제외)	14억원원	1	.	0
	제 1차금속산업	**71억 5천 1백만원**	6	1억 6천 3백만원	6
	조립금속제품	20억 6천 6백만원	39	2억 7천 1백만원	32
	기계 및 전기제조업	55억 2천 2백만원	75	22억 6천 6백만원	48
	통신 · 광학 · 의료기기	37억 1천 2백만원	64	5천 7백만원	42
	자동차 및 부품	56억 4천 4백만원	8	3억 2천 5백만원	5
	기타 제조업	24억 3천 9백만원	5	2억 8천 7백만원	4
	기타(산업코드분류불능)	26억 8천 4백만원	27	1억 7천 2백만원	15
규모	1-4인	**5억 6천 8백만원**	15	2천 9백만원	6
	5-29인	**31억 4천 8백만원**	162	11억원	98
	30-49인	**54억 7천만원**	60	3억 1백만원	49
	50-99인	**64억 3천 8백만원**	37	4억 1천 1백만원	28
	100인+	**285억 4천 3백만원**	9	17억 5천 3백만원	7

자료 : 「부천시 중소기업 인력수급실태 설문조사」, 2003. 11

- 임금

· 대졸초임(전문대졸 포함)의 경우 106.8만원, 고졸초임의 경우 106만원임.

· 대졸초임의 경우 50인 미만인 업체(106.4만원)보다 50인 이상인 업체(109.4)의 임금이 더 많음.

· 고졸초임의 경우 50인 미만인 업체(106만원)와 50인 이상인 업체(105.9)의 임금이 비슷함.

· 이는 사업체조사이므로 부천지역 근로자조사와 비교 필요함.

※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보고서(노동부, 2002년)에 따르면 전국 평균 제조업의 고졸 초임, 전문대졸초임, 대졸초임은 각각 86.1, 89만원, 104.3만원만원으로 임금부분 응답은 신뢰성에 의문이 있음.

2. 인력 수급 현황

1) 설비투자, 해외이전계획

- 향후 3년간 설비투자는 현상유지가 56.9%, 증가가 40.2%, 감소가 3%임. 따라서 인력수요의 증가가 예상됨

· 업종별로 '섬유, 의복 및 가죽산업', '기타 제조업'을 제외한 나머지 제조업의 경우 사업체의 약 40% 이상이 향후 3년간 설비투자를 증가시킬 것으로 나타남.
· 섬유, 의복 및 가죽산업'의 경우 사업체 모두 현상유지할 것이라고 응답했고 기타 제조업'의 경우도 14.3%는 설비투자의 감소를 85.7%는 현상유지할 것으로 응답 (표3-6).
· 규모별로 50-99인의 경우 53.9%가 설비투자 증가에 응답해 가장 높은 인력수요 증가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됨.

<표3-5> 설비투자, 사무실 또는 공장의 해외이전계획

(단위 : 업체수, %)

		빈도수	비율
향후 3년간 설비투자 계획	증가	161	**40.2**
	감소	12	3.0
	현상유지	228	56.9
사무실 또는 공장의 해외이전계획	예	67	16.1
	아니오	348	**83.9**

자료 : 「부천시 중소기업 인력수급실태 설문조사」, 2003. 11

- 사무실 또는 공장의 해외이전계획

· '아니다'로 대답한 사업체가 전체의 83.9%였으며, '예'로 대답한 사업체는 16.1%임(<표3-5>).
· 업종별로 '화합물, 석유, 석탄, 고무 및 프라스틱제품제조업'과 '제 1차금속산업'이 해외이전계획이 '있다'에 33.3%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다음으로 '기타 제조업'이 25.8%가 높은 응답률을 보임(표3-7).
· 규모별로 규모가 커질수록 '예'로 응답한 사업체가 많아지는 경향이 있음. (1-4인의 경우 16.1%이나 5-29인 업체부터 100인 이상인 업체까지 14.7%에서 33.3%까지 꾸준히 증가함)(표3-7)

<표3-6>향후 3년간 설비투자 계획

(단위 : 업체수, %)

		전체		증가		감소		현상유지	
		빈도수	비율	빈도수	비율	빈도수	비율	빈도수	비율
전체		401	100	161	40.2	12	3	228	56.9
제조업	음식료품 및 담배제조업	4	100	2	50	0	0	2	50
	섬유, 의복 및 가죽산업	7	100	0	0	0	0	7	100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인쇄 및 출판업	10	100	5	50	1	10	4	40
	화합물, 석유, 석탄, 고무 및 프라스틱제품제조업	66	100	26	39.4	2	3.0	38	57.6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석유 및 석탄제품 제외)	3	100	0	0	0	0	3	100
	제 1차금속산업	6	100	6	100	0	0	0	0
	조립금속제품	46	100	18	39.1	3	6.5	25	54.4
	기계 및 전기제조업	97	100	34	35.1	2	2.1	61	62.9
	통신 · 광학 · 의료기기	95	100	41	43.2	1	1.2	23	55.8
	자동차 및 부품	10	100	3	30	1	10	6	60
	기타 제조업	7	100	0	0	1	14.3	6	85.7
	기타(산업코드분류불능)	50	100	26	52	1	2	23	46
규모	1-3인	37	100	11	29.7	0	0	26	70.3
	5-29인	246	100	102	41.5	6	2.4	138	56.1
	30-49인	69	100	26	37.7	3	4.4	40	58
	50-99인	39	100	21	53.9	1	2.6	17	43.6
	100인+	10	100	1	10	2	20	7	70

자료 : 「부천시 중소기업 인력수급실태 설문조사」, 2003. 11

<표3-7> 업종별·규모별 사무실 해외 이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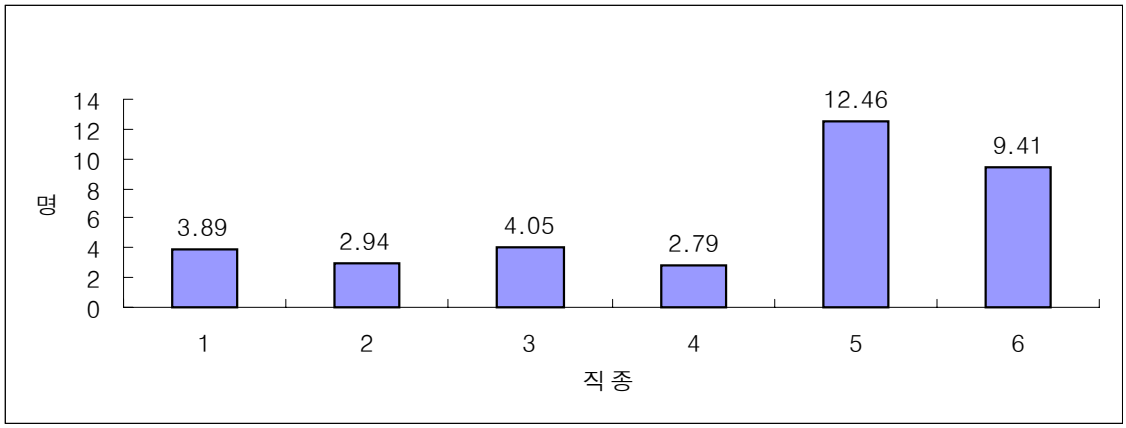
(단위 : 업체수, %)

		전체		예		아니오	
		빈도수	비율	빈도수	비율	빈도수	비율
전체		415	100	67	16.1	348	83.9
제조업	음식료품 및 담배제조업	5	100	0	0	5	100
	섬유, 의복 및 가죽산업	8	100	2	25	6	75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인쇄 및 출판업	10	100	2	20	8	80
	화합물, 석유, 석탄, 고무 및 프라스틱제품제조업	65	100	8	12.3	57	87.7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석유 및 석탄제품 제외)	3	100	1	33.3	2	66.7
	제 1차금속산업	6	100	2	33.3	4	66.7
	조립금속제품	51	100	7	13.7	44	86.3
	기계 및 전기제조업	100	100	15	15	85	85
	통신·광학·의료기기	98	100	20	20.4	78	79.6
	자동차 및 부품	10	100	1	10	9	90
	기타 제조업	7	100	2	28.6	5	71.4
	기타(산업코드분류불능)	52	100	7	13.5	45	86.5
규모	1-4인	41	100	3	7.3	38	92.7
	5-29인	252	100	37	14.7	215	85.3
	30-49인	72	100	13	18.1	59	81.9
	50-99인	41	100	11	26.8	30	73.2
	100인+	9	100	3	33.3	6	66.7

2) 인력현황

A. 직종별 인력현황 및 변동현황-현재 인원

[그림3-3] 직종별 인력현황 및 변동현황-현재 인원



주: 1. 관리인력, 2. 연구개발/기술인력, 3. 사무인력, 4. 서비스영업인력,
5. 생산기능인력, 6. 단순노무인력

- 현재인원은 생산기능인력이 12.5명과 단순노무인력이 9.4명으로 가장 많으며 서비스영업인력이 2.8명, 연구개발/기술인력이 2.9명으로 가장 적음(그림3).

- 현재인원이 가장 많은 두 직종 생산기능인력과 단순노무인력을 업종별 · 규모별로 보면 아래와 같음.

· 생산기능인력 (표-8)
  * 업종별로 '음식료품 및 담배제조업'이 22.5명으로 평균 현재인원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섬유, 의복 및 가죽산업'이 20.4명으로 많음(표-8).
  * 규모별로 1-4인의 경우 2.5, 5-29인의 경우 6.6명, 30-49인의 경우 15.9명, 50-99명의 경우 30.7명, 100인 이상의 경우 73.5명으로 규모가 커질수록 생산기능인력도 많아짐.

· 단순노무인력 (표-8)
  * 업종별로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인쇄 및 출판업'이 30.3명으로 평균 현재인원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자동차 및 부품'이 54명으로 많음.
  * 규모별로 규모가 커질수록 단순노무인력도 많음
  (1-4인의 경우 1.4, 5-29인의 경우 4.2명, 30-49인의 경우 11.8명, 50-99명의 경우 18.1명, 100인 이상의 경우 68.5명)

<표3-8> 직종이 생산기능인력·단순노무인력에서 현재인원·부족인원·증가인원

(단위 : 업체수, %)

		현재인원				부족인원				증가인원			
		생산기능인력		단순노무인력		생산기능인력		단순노무인력		생산기능인력		단순노무인력	
		빈도수	평균	빈도수	평균	빈도수	평균	빈도수	평균	빈도수	평균	빈도수	평균
전체		366	12.5	255	9.4	194	1.9	145	1.5	186	2.1	145	1.9
제조업	음식료품 및 담배제조업	4	22.5	3	0.3	2	1	2	.	2	1.5	2	2
	섬유, 의복 및 가죽산업	9	20.4	7	10.4	4	1.3	4	2	5	1.2	4	0.7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인쇄 및 출판업	10	18.5	7	30.3	5	4.2	5	6.6	3	1	3	2.2
	화합물, 석유, 석탄, 고무 및 프라스틱제품제조업	66	16.4	54	11.5	31	1.9	27	1.4	33	3.5	28	.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석유 및 석탄제품 제외)	2	12.5	1	1	1	2	0	.	1	2	0	1
	제 1차금속산업	6	7.7	3	5.7	3	1.3	2	1	4	8.5	2	1.9
	조립금속제품	44	12.5	31	7.9	25	1.8	18	3.2	21	1.8	16	1.5
	기계 및 전기제조업	88	11	62	6.7	54	1.3	42	1.9	54	1.1	42	2.2
	통신·광학·의료기기	86	11	51	10.6	38	1.5	24	1.6	37	2	29	10.2
	자동차 및 부품	6	6.2	7	16.4	6	1	3	3.1	5	1.2	4	7.2
	기타 제조업	6	6.2	1	4	3	4.7	0	.	1	1	0	1.9
	기타(산업코드분류불능)	39	7.2	28	5.5	22	3.3	16	2.3	20	2	15	1.1
규모	1-4인	25	2.5	14	1.8	11	1.1	9	0.3	11	1.6	10	1.7
	5-29인	224	6.6	146	4.2	114	1.6	85	1.1	110	1.6	84	1.6
	30-49인	68	15.9	53	11.4	40	1.4	30	1.3	37	2.3	29	2.5
	50-99인	39	30.7	34	18.1	23	3.4	18	3.1	23	3.1	19	7.3
	100인+	10	73.5	8	68.5	6	5.8	3	10.7	5	6.4	3	.

자료: 「부천시 중소기업 인력수급실태 설문조사」, 2003. 11

주: 현재·부족·증가인원의 6개의 직종 중 생산기능인력과 단순노무인력 두 직종의 평균인원이 많고, 업종을 고려할 때도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므로 두 직종만 제시함.

- 현재인력의 특징 (표3-9)

<표3-9> 현재 인력의 특성1

(단위 : 업체수, %)

		평균	표준편차
평균 연령		35.5세	4.8
평균 근속년수		4.1년	2.8
여성의 비중		36.3%	24.2
비정규직의 비율		22%	25.6
외국인의 비율		14.7%	20
이직율		11.2%	13.4
주거지가 부천·인천인 사람들의 비중		80.8%	22.7
평균 임금	대졸초임(전문대졸 포함)	106.8만원	
	고졸초임	106만원	
		빈도수	비율
근로자의 대표 학력	중졸이하	2	0.5
	고졸	**322**	**75.6**
	전문대졸	**71**	**16.7**
	대졸	31	7.3

자료 : 「부천시 중소기업 인력수급실태 설문조사」, 2003. 11

주: 평균연령부터 평균임금까지는 단위를 값에 직접 달았으며 근로자의 대표학력의 단위가 업체수와 %임

- 근로자의 평균 연령은 35~6세로 산업별 · 규모별로 큰 차이가 없음.

- 근로자의 평균 근속년수는 약 4년.
  · 업종별로 '음식료품 및 담배제조업'의 경우 평균 근속년수가 2년으로 가장 짧으며, '기타 제조업'의 경우 근속년수가 5.5년으로 가장 김(표10).
  · 규모별로는 큰 차이가 없음.

- 여성의 비중
  · 여성의 비중은 평균 36.3명으로 업종별로는 '섬유, 의복 및 가죽산업'이 50.1%, '기타 제조업'이 53.5%로 가장 높음(표10).
  · 규모별로 큰 차이가 없음.

<표3-10> 업종별 · 규모별 평균근속, 여성비중, 비정규직

(단위 - 평균근속 : 업체수, 년; 여성비중, 비정규직 : 업체수, 비율)

		평균근속		여성비중		비정규직	
						생산기능 인력	단순노무 인력
		빈도수	평균	빈도수	평균	빈도수 (비율)	빈도수 (비율)
전체		412	4.1	237	36.3	78(39)	115(57.5)
제조업	음식료품 및 담배제조업	5	2.4	4	37.5	0(0)	2(100)
	섬유, 의복 및 가죽산업	9	4.8	9	50.1	2(25)	6(75)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인쇄 및 출판업	9	4.1	7	47.4	2(25)	5(62.5)
	화합물, 석유, 석탄, 고무 및 프라스틱제품제조업	65	4	35	37.4	14(37.8)	22(59.5)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석유 및 석탄제품 제외)	2	5	2	25	2(100)	0(0)
	제 1차금속산업	6	4.3	5	27.4	2(40)	3(60)
	조립금속제품	49	4.5	31	31.7	8(32)	17(68)
	기계 및 전기제조업	101	4.3	54	31.4	21(48.8)	20(51.2)
	통신 · 광학 · 의료기기	96	4	55	40.7	11(35.3)	22(64.7)
	자동차 및 부품	11	4	7	24.3	0	6(100)
	기타 제조업	6	5.5	2	53.5	2(66.7)	1(33.3)
	기타(산업코드분류불능)	53	3.5	26	37.5	14(53.9)	11(42.3)
규모	1-4인	34	3.3	12	40.8	10(55.6)	7(38.9)
	5-29인	252	4	132	33.4	45(41.3)	62(56.9)
	30-49인	75	4.5	52	37.7	10(30.3)	23(69.7)
	50-99인	42	4.3	33	41.5	13(41.9)	15(48.4)
	100인+	9	5	8	45.6	0(0)	8(88.9)

자료: 「부천시 중소기업 인력수급실태 설문조사」, 2003. 11

주: 비정규직의 경우 6개의 직종 중 생산기능인력과 단순노무인력이 비정규직 활용의 95%이상을 차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위 표에는 두 직종만 제시하였음.

- 비정규직의 비율

・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율은 22%임.

・비정규직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직종은 단순노무인력이 57.5%로 가장 높았으며, 생산기능인력이 39%로 두 직종에 비정규직의 96.5%를 활용.

・업종별로 볼 때 기타제조업이 비정규직을 생산기능인력에 가장 많이 활용(66.7%). 그 외의 제조업의 경우 비정규직을 생산기능인력에 활용하는 비율은 30%내외임(표10).

・규모별로 100인 이상인 업체와 30-49인 업체가 각각 비정규직의 88.9%, 69.7%를 단순노무인력으로 활용했고, 다른 규모의 업체들은 비정규직을 단순노무인력으로 활용하는 비율이 50%내외임(표10).

- 외국인의 비율

・근로자 중 외국인의 비율은 14.7%임.

・외국인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직종은 생산기능인력이 54%로 가장 높았으며, 단순노무인력이 42.1%로 높음(표-11).

・생산기능인력과 단순노무인력 두 직종에 전체 외국인의 96.1%를 활용.

・업종별・규모별로 큰 차이는 없음.

<표3-11> 직종별 외국인의 비율

(단위 : 업체수(%))

	전체	관리인력	연구개발/기술인력	사무인력	서비스영업인력	생산기능인력	단순노무인력
전체	152 (100)	1 (0.66)	2 (1.32)	2 (1.32)	1 (0.66)	82 (53.95)	64 (42.11)

자료 : 「부천시 중소기업 인력수급실태 설문조사」, 2003.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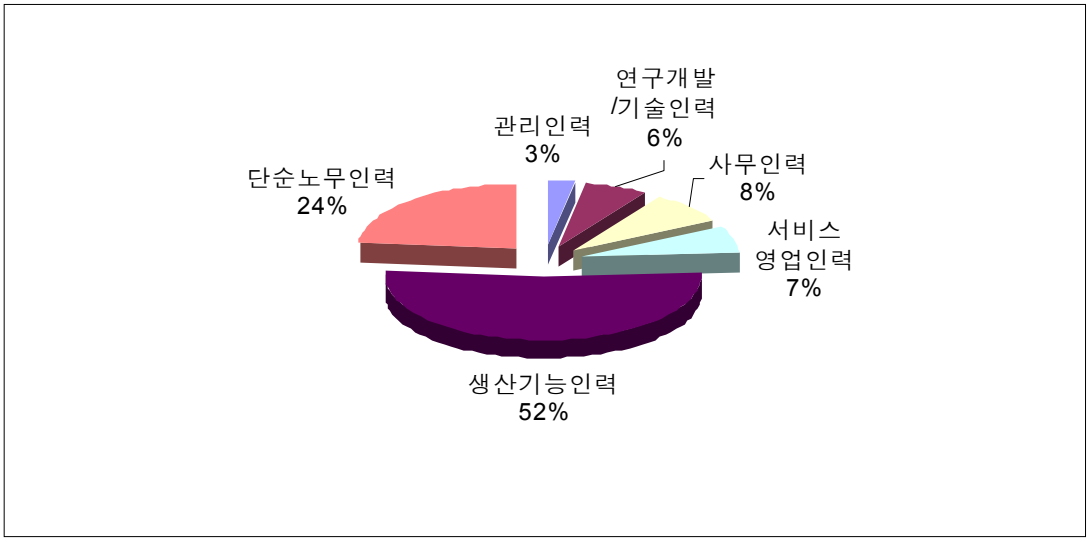
- 이직율

・근로자들의 이직율은 평균 11.2%임(표-9).

・생산기능인력이 52.5%로 가장 높으며, 단순노무인력이 23.6%로 높음(그림3-4)

・업종별・규모별로 큰 차이는 없음.

[그림3-4] 이직율이 가장 높은 직종



- 주거지가 부천 · 인천인 사람들의 비중
  · 전체 근로자의 80.76로 매우 큼.
  · 음식료품 및 담배제조업과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의 경우 각각 52.8%, 60%로 부천·인천 거주자가 80%내외인 다른 업종에 비해 비중이 낮은 편.
  · 규모별로 큰 차이가 없음(표3-12).

<표3-12> 업종별 주거지가 부천·인천인 사람들의 비중

(단위 : 빈도수, %, 값)

		빈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418**	**80.8**	**22.7**
제조업	음식료품 및 담배제조업	5	52.8	37
	섬유, 의복및 가죽산업	8	81.3	17.8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인쇄 및 출판업	9	75.9	27.9
	화합물, 석유, 석탄, 고무 및 프라스틱제품제조업	66	82.2	18.2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석유 및 석탄제품 제외)	3	60	17.3
	제 1차금속산업	50	81.8	23.5
	조립금속제품	102	78.1	22.9
	기계 및 전기제조업	98	83.2	21.2
	통신·광학·의료기기	10	70.2	28.1
	자동차 및 부품	260	80.7	22.7
	기타 제조업	7	84	29.2
	기타(산업코드분류불능)	54	82.7	25

자료 : 「부천시 중소기업 인력수급실태 설문조사」, 2003. 11

- 근로자의 평균임금
  · 대졸초임이 106.8만원이며, 고졸초임이 106만원임.
  · 업종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 규모별로 50인 이상의 업체의 경우 대졸초임을 평균적으로 더 많이 줌 (표3-1)
  (50인 미만인 업체 - 대졸초임 : 106.4만원, 고졸초임 : 106만원,
  50인 이상인 업체 - 대졸초임 : 109.4만원, 고졸초임 : 105.9만원)

- 근로자의 대표학력
  · 전체 사업체의 75.59%가 근로자의 대표학력이 고졸이라고 응답함.
  · 업종별 · 규모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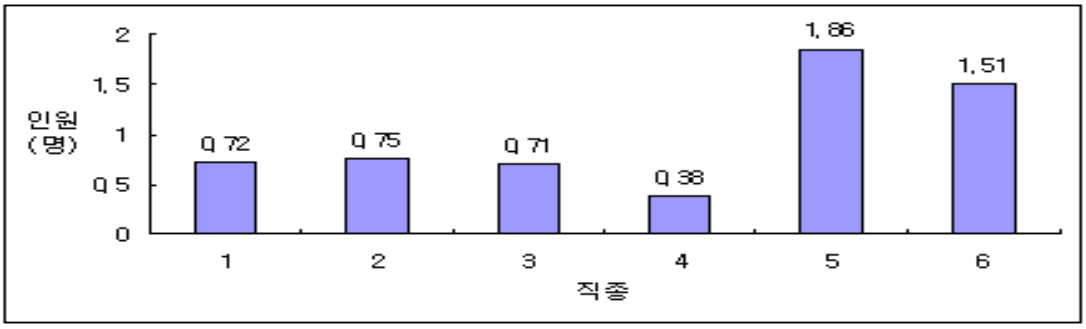
B. 직종별 인력현황 및 변동현황-부족 인원

- 부족 인원은 생산기능인력이 1.86명, 단순노무인력이 1.51명임으로 가장 많음 (그림3-4).

- 업종별로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인쇄 및 출판업'이 생산기능인력이 4.2명, 단순노무인력이 6.6명으로 두 직종 모두에서 가장 인력이 부족함(표3-8)

- 규모별로 생산기능인력과 단순노무인력은 규모가 클수록 인력이 부족함.
(생산기능인력 : 1-4인의 경우 1.2, 5-29인의 경우 1.6명, 30-49인의 경우 1.4명, 50-99명의 경우 3.4명, 100인 이상의 경우 3.4명으로 규모가 커질수록 생록 생산기능인력이 많음. 단순노무인력 : 1-4인의 경우 03, 5-29인의 경우 1.1 , 30-49인의 경우 1.3, 50-99명의 경우 3.1 , 100인 이상의 경우 10.7명으로 규모가 커질수록 단순노무인력도 많아짐) (표3-8)

[그림3-4] 직종별 인력현황 및 변동현황-부족 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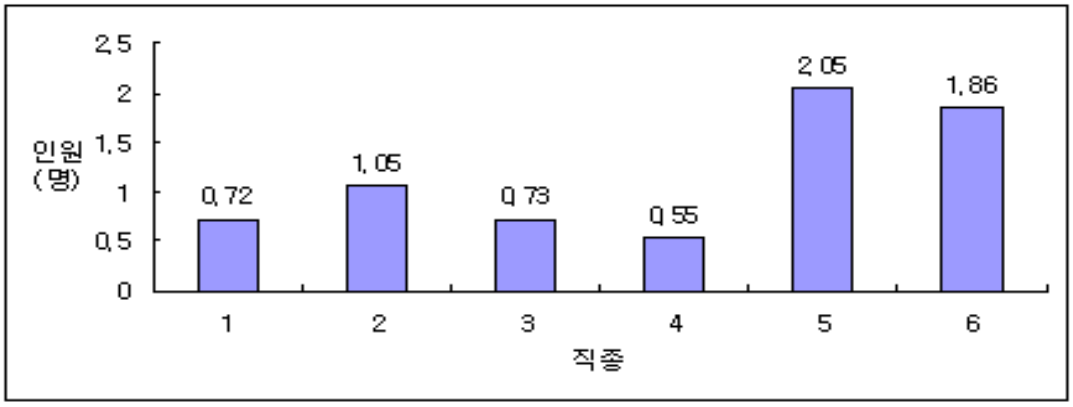


주: 1. 관리인력, 2. 연구개발/기술인력, 3. 사무인력, 4. 서비스영업인력,
5. 생산기능인력, 6. 단순노무인력

C. 직종별 인력현황 및 변동현황-증가 인원

- 1년 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력은 생산기능인력이 2.05명, 단순노무인력이 1.86명으로 가장 많음(그림3-5).
- 규모가 클수록 증가할 생산기능인력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생산기능인력 : 1-4인의 경우 1.6, 5-29인의 경우 1.6명, 30-49인의 경우 2.3명, 50-99명의 경우 3.1명, 100인 이상의 경우 6.4명으로 규모가 커질수록 생산기능인력이 많음.) (표3-8)
- 업종별로 뚜렷한 차이가 없음.

[그림3-5] 직종별 인력현황 및 변동현황-증가 인원



주: 1. 관리인력, 2. 연구개발/기술인력, 3. 사무인력, 4. 서비스영업인력,
5. 생산기능인력, 6. 단순노무인력

3.). 인력 수급 실태

A. 채용 희망 인력(표-13)

<표3-13> 채용 희망 인력의 특성

(단위 : 업체수, %)

		빈도수	비율
학력별	중졸이하	34	7.4
	고졸	271	**59**
	전문대졸	116	**25.3**
	대졸이상	38	8.3
성별	남성	358	**76.3**
	여성	111	23.7
혼인별	미혼	193	38.4
	기혼	310	**61.6**
경력별	무경력자	104	22.6
	경력자	357	**77.4**
국적별	한국인	398	**91.1**
	외국인	39	8.9
고용형태별	정규직	391	**90.3**
	비정규직	42	9.7
직업훈련 선호분야	컴퓨터, 정보, 통신분야	59	23.2
	어학분야	4	1.6
	경영관리분야(재무, 경영, 생산, 사무등)	43	16.9
	기계장비분야	148	**58.3**
	전기, 전자분야	86	**33.9**
	기타	48	18.9

자료: 「부천시 중소기업 인력수급실태 설문조사」, 2003. 11

주: 복수응답 가능

- 희망 학력(표13)

・가장 희망하는 학력은 고졸로 59%이며 다음으로는 전문대졸로 25.3%임.

・업종별 ・ 규모별로 큰 차이는 없음.

- 가장 희망하는 성별(표3-13)

・남성으로 76.3%를 차지하며, 여성은 23.7%를 차지함.

・업종별로 대부분의 산업의 약 70%이상이 남성을 선호했으며,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인쇄 및 출판업'의 경우의 절반 정도가(44.4%) 여성을 희망함(표3-14).

・규모가 클수록 여성을 희망하는 사업체가 많아지는 경향이 있음(표3-14). (1-4인의 경우 17.1%, 5-29인의 경우 21.1%, 30-49인은 30.2%이고 50-99인은 28.9%이며 100인 이상의 경우는 41.7%로 여성을 희망하는 사업체의 비율이 커짐.)

<표3-14> 희망 성별

(단위 : 업체수, %)

		전체		남성		여성	
		빈도수	비율	빈도수	비율	빈도수	비율
전체		469	100	358	76.3	111	23.7
제조업	음식료품 및 담배제조업	5	100	4	80	1	20
	섬유, 의복 및 가죽산업	9	100	5	55.6	4	44.4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인쇄 및 출판업	13	100	8	61.5	5	38.5
	화합물, 석유, 석탄, 고무 및 프라스틱제품제조업	73	100	54	74	19	26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석유 및 석탄제품 제외)	4	100	3	75	1	25
	제 1차금속산업	7	100	6	85.7	1	14.3
	조립금속제품	52	100	41	78.8	11	21.2
	기계 및 전기제조업	114	100	90	78.9	24	21.1
	통신・광학・의료기기	112	100	84	75	28	25
	자동차 및 부품	13	100	10	76.9	3	23.1
	기타 제조업	7	100	6	85.7	1	14.3
	기타(산업코드분류불능)	60	100	47	78.3	13	21.7
규모	1-4인	41	100	34	82.9	7	17.1
	5-29인	285	100	225	79	60	21.1
	30-49인	86	100	60	69.8	26	30.2
	50-99인	45	100	32	71.1	13	28.9
	100인+	12	100	7	58.3	5	41.7

자료: 「부천시 중소기업 인력수급실태 설문조사」, 2003. 11

주 : 복수응답 가능

- 혼인별
  · 기혼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61.6%).
  · 경력자를 선호하는 경향 때문으로 여겨짐.
  · 업종별 · 규모별로 뚜렷한 차이는 없음.

- 경력
  · 경력자를 선호(77.4%)함.
  · 업종별 · 규모별로 뚜렷한 차이는 없음.

- 국적
  · 한국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함(91.1%).
  · 업종별 · 규모별로 뚜렷한 차이는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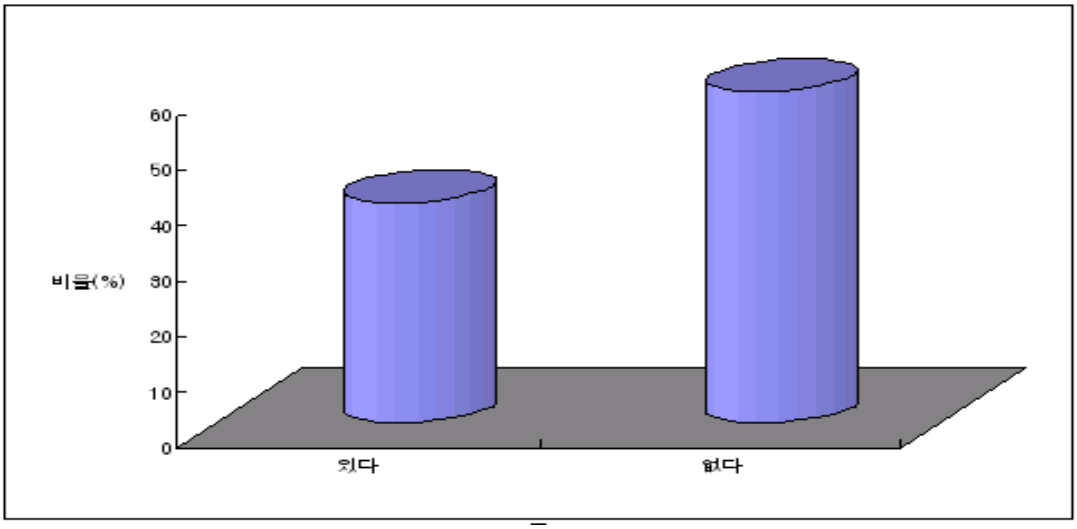
- 고용형태별
  · 정규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큼(90.3%)
  · 업종별 · 규모별로 뚜렷한 차이는 없음.

- 직업훈련 선호분야
  · '기계장비분야'가 58.3%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전기 · 전자분야'가 33.9%를 차지함.
  · 이는 현재인원 중 다른 직종의 현재인원은 3~4명인데 반해 생산기능인력과 단순노무인력은 각각 12.5, 9.4명이고, '기계 및 전기제조업(24.2%)'를 비롯한 여러 업종이 위 분야들과 연관되었으므로 위 기계 장비분야와 전기 · 전자분야를 교육받은 인력을 선호한다고 여겨짐.
  · 규모별로 큰 차이가 없음.

B. 충원 어려움(표15)

- 응답한 전체 사업체의 62%가 인력 충원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그림6).

[그림3-6] 인력 충원의 애로 여부



- 충원이 가장 어려운 직종은 생산기능인력으로 62.4%이며 다음으로는 단순노무인력으로 13.9%임.

- 두 직종 모두 가장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직종이므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여겨지며 생산기능인력의 경우 단순노무인력에 비해 정규직을 많이 쓰는 경향이 있으므로 충원이 더 어려워졌다고 여겨짐(표10).

<표3-15>인력충원 어려움을 가장 많이 겪는 직종

(단위 : 업체수, %)

		전체	관리 인력	연구개발 / 기술인력	사무 인력	서비스 영업인력	생산기능 인력	단순노무 인력
		빈도수 (비율)	빈도수 (비율)	빈도수 (비율)	빈도수 (비율)	빈도수 (비율)	빈도수 (비율)	빈도수 (비율)
전체		303 (100)	10 (100)	39 (100)	11 (100)	12 (100)	189 (100)	42 (100)
제조업	음식료품 및 담배제조업	3(100)	0(0)	1(2.6)	0(0)	1(8.3)	1(0.5)	0(0)
	섬유, 의복 및 가죽산업	7(100)	0(0)	0(0)	0(0)	0(0)	6(3.2)	1(2.4)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인쇄 및 출판업	7(100)	0(0)	0(0)	0(0)	0(0)	4(2.1)	3(7.1)
	화합물, 석유, 석탄, 고무 및 프라스틱제품제조업	48(100)	3(30)	3(7.7)	0(0)	2(16.7)	33(17.5)	7(16.8)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석유 및 석탄제품 제외)	3(100)	0(0)	0(0)	0(0)	0(0)	2(1.1)	1(2.4)
	제 1차금속산업	5(100)	0(0)	0(0)	0(0)	0(0)	3(1.6)	2(4.8)
	조립금속제품	38(100)	1(10)	4(10.3)	2(9.1)	2(16.7)	25	4(9.6)
	기계 및 전기제조업	63(100)	1(10)	11(28.3)	3(27.3)	1(8.3)	47(24.9)	9(21.6)
	통신・광학・의료기기	66(100)	3(30)	11(28.3)	3(27.3)	3(24.0)	37(15.6)	9(21.6)
	자동차 및 부품	8(100)	1(10)	0	0	1(8.3)	2(1.1)	4(9.6)
	기타 제조업	6(100)	1(10)	0(0)	1(9.1)	0(0)	3(1.6)	1(2.4)
	기타(산업코드분류불능)	40(100)	0(0)	9(23.1)	2(18.2)	2(16.7)	26(13.8)	1(2.4)
규모	1-3인	23(100)	0(0)	3(7.7)	0(0)	0(0)	18(9.5)	2(4.8)
	5-29인	187(100)	6(60)	22(56.4)	9(81.8)	10(83.3)	118(62.4)	22(52.4)
	30-49인	51(100)	4(40)	9(23.1)	2(18.2)	1(8.3)	23(12.2)	12(28.6)
	50-99인	35(100)	0(0)	5(12.8)	0(0)	1(8.3)	24(12.7)	5(11.9)
	100인+	7(100)	0(0)	0(0)	0(0)	0(0)	6(3.2)	1(2.4)

자료: 「부천시 중소기업 인력수급실태 설문조사」, 2003. 11

주: 복수응답 가능

C. 충원 애로 사유(표16)

- 1순위로는 중소기업근무기피 인식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으며(35.1%), 다음으로 자격 요건에 맞는 인력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높음(29%)
- 2순위로는 부천 지역 근무 기피 인식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으며(30.8%), 다음으로 자격 요건에 맞는 인력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높음(22.7%)
- 위 설문 결과와 사전 조사를 위한 실무자와의 인터뷰의 결과 근로자의 81%가 부천·인천 주거자이기는 하나 지역기피현상으로 주요 충원애로사유로 부천 지역 근무 기피를 꼽음.

<표3-16> 충원 애로 직종과 사유

		응답수	비율
충원 애로 직종	관리인력	10	3.3
	연구개발/기술인력	39	**12.9**
	사무인력	11	3.63
	서비스영업인력	12	3.96
	생산기능인력	189	**62.4**
	단순노무인력	42	**13.9**
충원 애로 사유1	인력에 대한 정보부족 때문	27	10.4
	자격 요건에 맞는 인력이 없어서	75	29
	중소기업 근무 기피 인식	91	**35.1**
	부천 지역 근무 기피 인식	48	**18.5**
	상호간 임금 조건이 맞지 않아서	4	1.5
	열악한 작업환경	12	4.6
	기타	2	0.8
충원 애로 사유2	인력에 대한 정보부족 때문	16	6.8
	자격 요건에 맞는 인력이 없어서	53	**22.7**
	중소기업 근무 기피 인식	49	20.9
	부천 지역 근무 기피 인식	72	**30.8**
	상호간 임금 조건이 맞지 않아서	3	1.3
	열악한 작업환경	33	14.1
	기타	8	3.4

자료: 「부천시 중소기업 인력수급실태 설문조사」, 2003. 11

주: 충원 애로직종의 경우 복수응답 가능

D. 구인경로(표17)

- 주요구인경로 1순위로는 '신문, 라디오, TV등 매체'가 25.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인터넷을 통해'가 17.5%, '노동부 워크넷'이 14.9%으로 높음.
- 주요구인경로 2순위로는 '인터넷을 통해'로 19.5%로 가장 높았고, '연고채용'이 15.8%, '노동부 워크넷'이 14.2%으로 높음.

<표3-17>주요구인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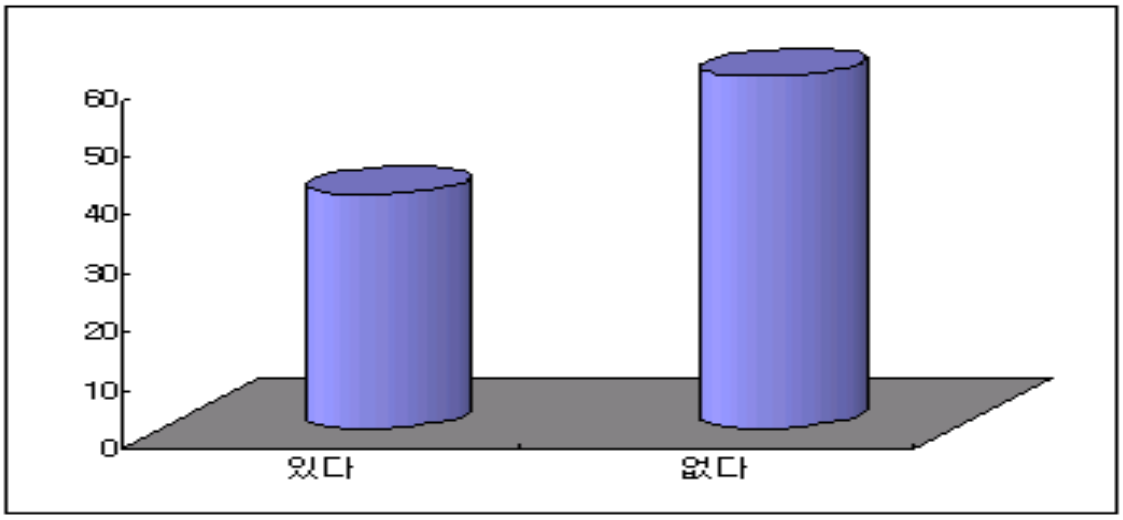
		응답수	비율
주요구인경로 1순위	사내공모	57	13.4
	신문, 라디오, TV등 매체	110	**25.9**
	인터넷을 통해	74	**17.5**
	노동부 워크넷	63	**14.9**
	연고채용	59	13.9
	학교나 학원에 요청	11	2.6
	공공훈련기관	2	0.5
	국공립 직업안정기관	2	0.5
	민간소개기관	22	5.2
	인력채용박람회	1	0.2
	별보	10	2.4
	기타	13	3.1
주요구인경로 2순위	사내공모	36	9.6
	신문, 라디오, TV등 매체	46	12.3
	인터넷을 통해	73	**19.5**
	노동부 워크넷	53	**14.2**
	연고채용	59	**15.8**
	학교나 학원에 요청	26	7
	공공훈련기관	3	0.8
	국공립 직업안정기관	8	2.1
	민간소개기관	13	3.5
	인력채용박람회	8	2.1
	별보	23	6.2
	기타	26	7

자료 : 「부천시 중소기업 인력수급실태 설문조사」, 2003. 11

E. 3D 업종[1)]

- 응답한 사업체의 60%가 3D 업종이 '없다'고 응답함(그림7참고).

[그림3-7] 3D 업종 유무



* 업종별로 부천시 제조업의 63.1%를 차지하는 업종(음식료품 및 담배제조업,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 인쇄 및 출판업, 제 1차금속산업~자동차 및 부품 : <표3-18>참고) 3D 업종이 없다고 응답했음. 그러나 그 외의 제조업은 3D 업종이 '있다'라는 응답했으며 그 비율이 50%를 상회했고, 기타 제조업의 경우 85.7%가 3D 업종이 있다고 응답함(표3-18).
* 규모별로 큰 차이가 없음.

- 부천시 제조업의 3D 업종의 종사자는 평균 약 9명 정도임(표3-19).
(3D업종이 있다고 응답한 사업체의 생산기능인력과 단순노무인력은 각각 11명,10.2명임)
- 3D직무 인력해결정책으로 응답수의 58.48%가 '외국인 연수생 또는 산업기능요원 등 정부의 직접적인 인력공급확대'를 들었으며, 다음으로 29.82%가 '자동화 장비 또는 대체원료 등의 개발에 대한 국고보조'를 들음(표3-20).

1) Dirty (더럽고), Difficult (힘들고), Dangerous (위험한)의 머릿글자로 지난 80년대 이후 소득수준 및 생활수준이 대폭 향상함에 따라 근로자들이 일하기를 꺼리는 업종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음. 업종별로 조선 기계 해운 건설업등 주로 노동집약적 산업이 많으며 기업 규모별로는 복리후생 수준이 낮은 중소기업의 조립업종 등이 많이 포함됨. 3D현상의 만연으로 인해 서비스업에는 인력이 많이 모여들고 제조업에는 인력이 모자라는 양극화 현상이 빚어지고 있음.

<표3-18> 업종별 3D 업종 유무

(단위 : 업체수, %)

		전체		있다		없다	
		빈도수	비율	빈도수	비율	빈도수	비율
전체		413	100	166	40.2	247	59.8
제조업	음식료품 및 담배제조업	5	100	1	20	4	80
	섬유, 의복 및 가죽산업	9	100	5	55.6	4	44.4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인쇄 및 출판업	10	100	5	50	5	50
	화합물, 석유, 석탄, 고무 및 프라스틱제품제조업	63	100	35	55.6	28	44.4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석유 및 석탄제품 제외)	3	100	2	66.7	1	33.3
	제 1차금속산업	6	100	2	33.3	4	66.7
	조립금속제품	50	100	22	44	28	56
	기계 및 전기제조업	101	100	42	41	59	59
	통신 · 광학 · 의료기기	97	100	29	29.9	68	70.1
	자동차 및 부품	10	100	2	20	8	80
	기타 제조업	7	100	6	85.7	1	14.3
	기타(산업코드분류불능)	53	100	16	30.2	37	69.8

주 : 복수응답 가능

자료 : 「부천시 중소기업 인력수급실태 설문조사」, 2003. 11

<표3-19>3D 직무의 종사자수

(단위 : 업체수, %)

빈도수	평균	표준편차
169	9.3	13.8

자료 : 「부천시 중소기업 인력수급실태 설문조사」, 2003. 11

<표3-20> 3D직무 인력해결정책

	응답수	비율
외국인 연수생 또는 산업기능요원 등 정부의 직접적인 인력공급확대	100	58.5
자동화장비 또는 대체원료 등의 개발에 대한 국고보조	51	29.8
3D직무가 많은 업종에 대하여 중국 등 인력이 풍부한 나라에 공동진출 지원	9	5.3
기 타	11	6.4

자료 : 「부천시 중소기업 인력수급실태 설문조사」, 2003. 11

주 : 복수응답 가능

4). 교육훈련

- 신규 취업자의 직무수행능력은 대체로 학력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남(표-21).
  · 직무수행능력은 '보통'으로 4가지 경우 모두 전체 응답의 50%를 상회함.
  · 다음으로 '우수'로 전체 응답의 약 30%를 차지함.
  · 직무수행능력을 보통이상과 미흡으로 나눠보면 '보통이상'에서 대학졸업 이상자 83.2%, 전문대학 졸업자 88%,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86.8%, 직업훈련과정 이수자 89.5%로 큰 차이는 없으나 직업훈련과정 이수자의 직무수행능력을 다소 높게 평가함.
  · 업종별·규모별 차이가 없음.

<표3-21> 신규 취업자의 직무수행능력

(단위 : 업체수, %)

		빈도수	비율
대학졸업 이상자	탁월	5	1.4
	우수	106	29.8
	보통	185	52
	다소 미흡	42	11.8
	미흡	18	5.1
전문대학 졸업자	탁월	4	1.1
	우수	117	31.9
	보통	202	55
	다소 미흡	33	9
	미흡	11	3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탁월	7	1.9
	우수	118	31.1
	보통	204	53.8
	다소 미흡	40	10.6
	미흡	10	2.6
직업훈련과정 이수자	탁월	8	2.5
	우수	89	28.3
	보통	185	58.7
	다소 미흡	28	8.9
	미흡	5	1.6

자료 : 「부천시 중소기업 인력수급실태 설문조사」, 2003. 11

- 신규 취업자의 재교육 여부는 전체 사업체의 59.4%가 '예'라고 응답(표3-22).

<표3-22>신입사원의 재교육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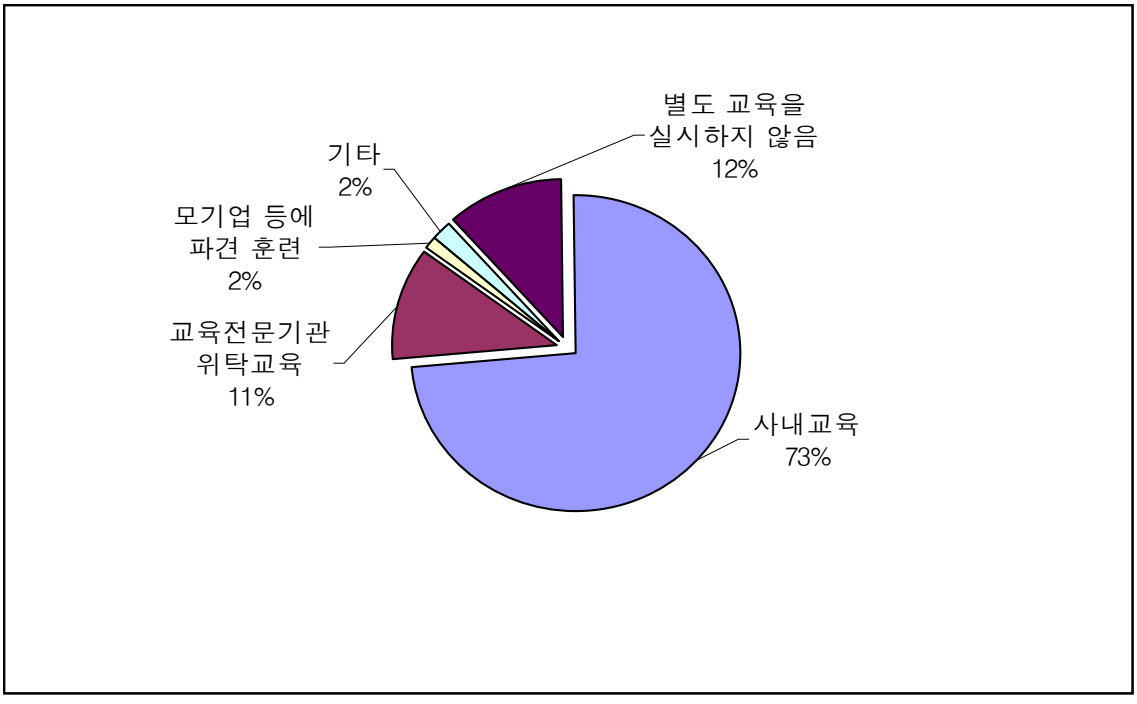
(단위 : 업체수, %)

	예		아니오	
	빈도수	비율	빈도수	비율
전체	237	59.4	162	40.6

자료 : 「부천시 중소기업 인력수급실태 설문조사」, 2003. 11

- 재직자 교육방법
  - 사내교육이 가장 많았으며(73%), 다음으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12%), 그리고 교육 전문기관 위탁교육(11%)순임(그림8)
  - 업종별 · 규모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그림3-8] 근로자(재직자)의 교육 · 훈련 방법



- 근로자에게 별도의 교육을 시키지 않은 경우 : 이유(표-23)
  - '별도의 교육이 필요가 없어서'란 응답이 56.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조업 차질의 우려'로 15.9%로 많음
  - 업종별 · 규모별로 큰 차이는 없음.

<표3-23> 별도의 교육을 시키지 않는 이유

(단위 : 업체수, %)

	빈도수	비율
별도의 교육의 필요가 없어서	96	56.5
조업차질 우려	27	15.9
교육비용 부담으로	11	6.5
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서	16	9.4
기타	20	11.8

자료 : 「부천시 중소기업 인력수급실태 설문조사」, 2003. 11
주 : 복수응답 가능

- 교육전문기관에 위탁교육 : 위탁교육방식(표24)
  · '대학 · 연수원 등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중 선택하여 일부직원에게 위탁'이 전체 응답의 41.7%로 가장 많았으며, '조합을 통한 업종 고유기술과 관련된 맞춤식 교육'이 16.7%로 많음
  · 업종별 · 규모별로 큰 차이는 없음.

<표3-24> 위탁교육의 방식

(단위 : 업체수, %)

	빈도수	비율
조합을 통한 업종 고유기술과 관련된 맞춤식 교육	16	16.7
대학, 연수원 등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중 선택하여 일부직원 위탁	40	41.7
업종내 기술 우수기업에 직원 파견근무등을 통한 기술 습득	14	14.6
기타	26	27.1

자료 : 「부천시 중소기업 인력수급실태 설문조사」, 2003. 11
주 : 복수응답 가능

3. 실태조사의 요약 및 시사점

1) 실태조사의 요약

- 부천 상공 총람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업체 현황을 보면 부천시 중소기업 제조업체의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기계 및 전기

제조업(24.2%)', '통신 · 광학 · 의료기기(23%)', '화합물, 석유, 석탄, 고무 및 프라스틱제품제조업(15.7%)', '조립금속제품(12%)'임.

- 매출액은 평균 약 47억원으로 임금은 월평균 대졸초임(전문대졸 포함)이 약 107만원, 고졸초임이 약 106만원으로 학력별 초임차이는 거의 없음.

- 인력 수급 현황은 설비투자의 증가로 인력 수요의 증가가 예상되었으며 공장 또는 사무실의 해외이전계획은 응답업체의 80%이상이 없었음

- 인력현황은 생산기능인력과 단순노무인력이 다른 직종에 비해 현원도 가장 많았으나(각각 12.46 · 9.41명) 부족인원도 가장 많아서(1.9 · 1.5명) 앞으로 인력의 증가가 예측되는 직종임.

- 현재 부천 제조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의 특징
  · 평균연령이 35~6세이고 평균 4년을 근무함.
  · 종사자 중 여성의 비중은 약 36%이고 비정규직의 비율은 22%로 정규직이 더 많음.
  · 이직율은 약 11%로 평균 근속년수를 고려했을 때 그다지 높은 비율은 아니라고 여겨짐.
  · 근로자의 대표학력은 고졸이 가장 많았으며(75%), 다음으로 전문대졸이 많음(약 17%)
  · 제조업의 근로자의 약 80%가 부천 · 인천에 거주함.

- 비정규직과 외국인의 경우 대부분 생산기능인력과 단순노무인력에 종사함.

- 사업체의 희망인력
  · 고졸 또는 전문대졸로 남성을 원함.
  · 기혼자를 원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경력자를 원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임.
  · 외국인보다는 한국인을 원하며 정규직을 원함.
  · 직업훈련 선호분야는 기계장비분야와 전기 · 전자분야임.

- 부천 제조업 사업체들은 절반 이상이(62%) 인력충원의 어려움을 겪는데 (모든 직종에서 업체당 현원이 평균 약 6명일 때, 부족인원 평균 1명으로 부족율은 17%임. 그중 생산기능기력과 단순노무인력 두 직종의 평균 현원은 11명으로 부족인원은 1.7명이고 부족율은 15%임)충원이 가장 어려운 직종은 생산기능인력이며 다음으로는 단순노무인력임. 이러한 충원애로사유로 '중소기업근무기피, 부천지역기피, 자격요건에 맞는 인력이 없어서'등으로 사업체의 희망인력과 실

제 인력과 조건이 일치하지 맞지 않아서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임.

- 부천 제조업의 경우 3D업종이 '있다'라고 답한 사업체가 약 40%인데, 3D업종이 있을 경우 이 직무에 종사자수는 평균 9.3명임(3D업종이 있다고 응답한 사업체의 생산기능인력과 단순노무인력은 각각 11명, 10.2명임)

- 부천 제조업 사업체의 80%이상이 신규 취업자의 업무능력을 보통이상이라고 생각한다고 응답했으며, 학력별로 특이할만한 차이는 없었으나 직업훈련과정 이수자 경우 다른 학력자들에 비해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신규 채용자의 59.4%를 재교육시키는데, 교육방법은 사내교육이 7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로 12%임.

2) 정책시사점

- 부천 지역 실태조사상에 나타난 정책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첫째, 제조업 전 업종에서 생산기능직 인력과 단순노무직 인력이 부족하며,

둘째, 대졸 초임은 100만원 고졸초임은 80만원에 불과하여 전국 임금평균에 비하여 임금수준이 낮음. 또한 사업체에서 파악할 때, 중소기업기피가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임금이외의 근로조건도 좋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줌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체에서는 경력직을 원하고 있으므로 노동수요측의 조건에 비하여 경력직 및 기능인력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천지역의 노동시장상의 수급이 공급부족일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줌.

넷째, 충원 애로 사유는 중소기업근무기피·부천지역기피·자격요건에 맞는 인력이 없어서 등이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 근로환경 개선 등을 통한 중소기업 이미지 쇄신과 캠페인 등을 통한 부천지역의 이미지 쇄신이 요구됨.

다섯째, 기능인력의 양성을 위한 지역차원의 공동직업훈련 시설이 필요하며, 자격요건에 맞는 인력 수급을 위한 기업 및 정부 차원에서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여겨짐.

여섯째, 유휴노동력의 활용을 위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일곱째, 교육훈련 부분에서 사내교육과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전체의 85%이고, 신규 취업자의 업무능력평가에서 직업훈련과정 이수자에 대한 평가가 가장 높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업 자체에서보다는 부천시 자체에서의 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고려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여겨짐.

여덟째, 지역기피 등이 나타남. 이는 지역에 대한 프라이드를 높이는 켐페인이나 지역협의체의 설립이 중요하며, 지역내 종합복지 확충도 노동력 공급확충을 위한 중요한 하나의 방안임을 시사.

Ⅳ. 정책과제

1. 인력부족해소의 기본방향

가. 지역 중소기업 인력수급정책의 기본방향

- 현재 부천지역 중소기업, 특히 제조업체들은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이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결정적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역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을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여성 노동력의 활용, 외국인 노동력의 도입 증대, 산업기능요원제도의 확충 등 각종 방안이 제안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방안들은 단기적 성격의 것들로서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가 낮은 영세기업들을 온존시킴으로써 산업구조 고도화를 지연시키는 비효율을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신중히 고려해야 할 사항임.

- 현재 한국의 제조업 부문 중소기업들이 당면하고 있는 인력부족 문제는 기본적으로 종래의 전통적 제조업 업종이 중국 등 경쟁국가의 출현으로 사양 산업화되면서 동시에 IT산업 등 새로운 성장산업이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력수요 구조의 급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즉 한편으로는 사양산업의 한계기업들의 지불능력 취약과 열악한 임금 및 근로조건 등으로 인해 이 부문에 대한 노동력의 기피현상이 심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이 성장해 가는 산업에서는 그에 필요한 고도기술 및 기능을 가진 노동력의 확보가 어렵다는 사정이 작용함으로써 나타난 것이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현상임.

- 따라서 앞으로 지역 중소기업 인력수급정책의 기본방향은 한편으로는 부천시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지식, 정보, 기술, 문화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의 개편과 기존 산업의 생산성 향상, 자동화, 임금 및 복지수준의 향상 등을 통해 '매력 있는 기업'을 만듦으로써 고급인력을 유인하고 지역 경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며(노동시장 수요측면의 정책), 다른 한편으로는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력의 양성과 각종 유휴인력에 대한 고용기회의 제공, 고용정보 인프라의 구축, 고급인력의 지역 내 정주기반의 구축 등을 통해 고급인력을 기업에 공급하고 지역 주민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노동시장 공급측면의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부천시 차원에서 지역 주민의 연령구조, 교육훈련 시스템, 경제규모,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부응하는 지역인력 장기수급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산업별, 계층별, 성별, 연령별 수급계획을 중, 장기적 관점에서 세우고 현실 여건 변화에 따라 3-5년마다 수정하여야 함. 이와 같은 지역차원의 종합적인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각종 정책방안을 추진하는 등 지방자치체 차원에서의 고용, 인력정책의 중요성이 재인식되어야 할 것임.

나. 인력수요 측면에서의 정책

- 중소 제조업체의 취약한 임금 및 근로조건, 작업환경, 복지수준 등이 중소기업에 대한 취업기피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 개선책이 필요함.

-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직장환경 개선, 복지후생시설 확충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를 활성화시켜야 함. 중소제조업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세제혜택을 주는 한편, 장기근속 근로자에 대해서는 주택자금, 교육비 등 각종 복지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유도하여야 함.

- 입지조건이 취약한 제조업체에 대해 지역별 보육시설, 주택단지 조성 등 공동복지시설을 지원하는 시책이 필요함.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대기업의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이를 기금으로 조성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방안 고려.

- 중소기업의 임금 및 복지 향상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중소기업의 지불능력 향상에 있으며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자동화, 생산합리화, 기술개발 투자 등에 대한 지원 확충,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으로 중소기업의 적정 이윤 보장.

다. 인력공급 측면에서의 정책

- 경제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고급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증가하고 있음. 전문직, 기술직, 관리직 등 고급인력의 수요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들을 지역 내에서 양성하거나 다른 지역으로부터 유인하는 한편, 이들 고급인력이 지역 내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앞으로 산업의 기술집약화 과정에서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고급인력, 특히 이공계 대졸인력의 공급부족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학정원의 과감한 조정과 새로운 공과대학의 신설, 또는 유치 등의 조치가 필요함. 학과별로는 장차 높은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첨단기술관련학과 증원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임. 아울러 인문사회계 학과 가운데서도 경제경영, 국제화 관련 계열 등 산업지원에 꼭 필요한 인력을 배출하는 부문에 대해서는 과감한 정원확대가 필요함. 정원확대와 아울러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은 앞으로 지역산업의 인력수요에 대비하여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임. 대학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고등교육에 대한 획기적 투자증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우수인력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거나 제조업 외의 다른 부문에 취업하는 현상이 계속된다면 지역의 기술인력부족을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고급기술인력이 지역에 정주하면서 기술개발과 자기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종 기반시설(주택, 교육, 여가시설 등)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산업인력의 부족은 여성, 고령인력 등 유휴노동력의 활용에 의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음. 여성인력 특히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여성근로자가 가정생활과 직업생활을 양립시킬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정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이를 위해 현재 절대적으로 부족한 탁아시설을 대폭 확대하여야 함. 특히 저소득 근로여성을 위한 공공탁아시설의 신설, 공단 단위의 공동탁아시설의 신설 및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함. 한편 기업에서의 남녀차별적 고용, 인사, 노무관리 관행이 철폐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고 나아가 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의 이용 확산 등 고용관리면에서의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고령인력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년제도, 재고용제도의 정비가 필요함. 우선 공공부문부터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퇴직자를 촉탁 등의 형식으로 재고용하는 등의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들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도록 조세, 금융상의 유인책을 마련해야 함. 또한 고령인력에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여 취업을 촉진하도록 함.

-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인력의 고용허가제를 보완하여 특수한 숙련을 가진 외국인 노동력에 대해서는 국내 체류기간을 연장하고, 산업기능요원 역시 적어도 현재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라. 직업안정과 직업훈련

- 향후 예상되는 산업구조 및 취업구조의 변화와 이에 수반한 대규모 고용조정 등을 감안할 때 현재의 직업안정기관수로서는 충분히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됨. 더욱이 현행 직업안정기관의 대부분이 사설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어 각종 부작용과 비효율의 문제가 제기됨. 따라서 앞으로 국공립 직업안정기관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사설 직업안정기관에 대해서는 엄격한 평가와 지도, 감독을 통해 그 질적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앞으로 예상되는 산업구조 및 취업구조의 변화에 수반한 고용불안정에 대비하여 관내 노동력의 이동 실태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분석을 통해 직종별, 기능별 구인, 구직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필요한 기업과 취업희망자에게 효율적으로 연결시키도록 함. 이를 위해 노동부의 직업안정망과 연계하여 부천시 차원의 인재은행과 직업상담코너 등을 설치하고 전문직원을 배치하여 필요한 기업과 취업희망자에 대한 상담, 소개, 정보제공 등을 하도록 함. 노동부의 고용전산망체제와 연계하여 지역 단위의 취업정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기업-대학-노동단체-공공기관을 on-line으로 연결시켜 효율적인 취업정보제공과 직업알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발생하는 잉여인력에 대해서는 재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새로운 기술에의 적응은 물론, 필요하다면 다른 직종에의 취업도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이를 위해 공공직업훈련기능을 강화하고 기업의 사내직업훈련에 대한 지원도 보다 확충되어야 할 것임. 개별 중소기업의 훈련능력이 취약하므로 대기업-대학-중소기업을 연결하는 훈련 컨소시엄을 만들어 인력훈련에 대처하여야 할 것임.

마. 부천시 지역노사정파트너쉽의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부천시 노사정파트너쉽은 지역노사정협의회를 통해 구축되고 있음. 1999년 5월 말 처음 지역노사정협의회가 개최된 이후 지금까지 11회의 회의를 거치면서 대표적인 지역협의회의 성공사례로 성장하고 있음. 지역노사정협의회는 지방정부와 노동부, 지역의 노사정 대표와 학계 및 사회단체 등의 전문가로 구성 노사당사자와 협의하여 노동쟁의를 조정·중재하는 등 지역단위 노사관계의 안정에 기여함. 노사관계와 아울러 지역단위의 고용문제, 근로자 복지문제 등 제반 노동문제를 논의하고 관련정책을 협의함. 특히 노사정 지역파트너쉽에 의한 지역노동시장 운영은 중앙정부 주도 방식이나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의 부분적 권한 이양 방식 보다 더 우월한 성과를 낳는 것으로 밝혀짐 (OECD 1997). 노사정 협력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사회복지 정책, 주택·교통정책간 연계를 통해 정책유효성과 지역내 투자인프라 구축을 확보할 수 있음.
- 부천지역은 비록 300인 이상 기업이 9천여개의 제조업체 가운데 열개 정도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중소기업 중심이며 이들의 절반은 금속, 기계, 전기, 전자 산업에 집중되어 있음. 이들 기업은 저임금과 저숙련 근로자 중심으로 생산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나마 이들 근로자 고용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음. 계속 저임금, 저숙련 중심의 Low-road의 생산으로 가게 될 경우 지역경제의 활성화 어려움은 증가할 것으로 보여 장기적으로는 고임금, 고기능의 High-road 전략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여야 할 것임. 중단기적으로 저임금, 저숙련 근로자의 취업알선과 취업조건을 개선함과 동시에 이들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확대를 통해 장기적 전략을 준비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산업구조고도화와 고용확대를 위한 노사정 역할 (△ 중도, ○ 적극). 양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방안과 노사정의 역할을 보면 아래의 표로 정리할 수 있음. 노사정간 파트너쉽은 여러 층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각 층의 협력을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각층에서 이루어지는 협력을 조정하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임.

	노	사	정
산업구조고도화/고용확대			
- 투자확대	△	○	○
-노동/부가가치생산성 증가	○	○	△
-인적자원개발	○	○	○
-정책 효율성제고	△	△	○

- 우선 투자여건 개선과 고용창출을 위해 보다 지역노사정파트너쉽이 활성화되어야 함. 국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노사정 공동노력 경주하여야 하며 투자확대를 통해 산업구조 고도화를 촉진함. 이러한 투자확대가 고용창출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고용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함.

- 투자여건 개선과 고용창출은 우선 저임금이지만 숙련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는데서 시작될 수 있도록 함. 저임금 근로자의 취업알선과 취업조건을 개선함과 동시에 이들에 대한 지역차원에서의 직업능력개발을 강화함. 여성의 취업이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지역 육아, 교육, 교통, 음식료 서비스 제공이 고용과 보다 연계되도록 함. 저임금 근로자의 취업이 활성화 되도록 지역내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고 기업 이동시 불이익 저하나 비정규직과 정규직간 대등한 복지를 제공하도록 유도함.

- 부천지역 노사정파트너쉽은 여타 사회주체간 협력을 조율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담당하여야 함. 개별 사업장의 노사파트너쉽을 지도하여 기업경쟁력을 제고함. 부천지역 학교-직업훈련-현장간 파트너쉽을 구축하여 시장에서 수요되는 기술과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여 취업을 확대하고 산업구조고도화의 기반 마련. 시민단체가 신규 고용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해 취업알선 등 노동시장 서비스 인프라 기능을 담당하도록 도모
- 부천시는 특히 다음과 같은 협력지원체제를 마련하여야 할 것임. 부천지역 경제-투자-산업-복지를 연계한 종합적인 정책개발, 운영, 평가, 지원 체제 구축. 인근 지역 정부와의 파트너쉽을 통해 주택·교통정책의 지원을 통해 생산, 소비, 고용의 촉진과 확대도모. 노동부와 산하 기관간의 파트너쉽을 통해 권역내 직업능력개발, 복지, 교육기관 활용성 제고

2. 구체 정책과제

1) 지역별 업종별 중소기업 직업훈련센터설립

- 지역별 업종별로 중소기업 특별 육성지원이 필요할 경우 중소기업 지역협의체 컨소시움이 요구할 경우 직업훈련센터를 설립하여 중소기업인력 부족과 청소년 실업문제를 동시

에 해소

- 고용보험법 17조와 동시행령 20조에 의하면, 지역의 실업예방 및 재취업촉진을 위하여 고용보험기금 지원 가능

2) 고령자, 여성 및 장기실업자의 활용과 “중소기업 취업적응 프로그램”의 개발

- 본인이 원하는 직장으로의 취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고령자, 여성 및 장기실업자 중에서 중소기업 취업희망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개발, 직업훈련실시후 인력부족이 심한 중소제조업체에 파견시켜 근무

- 급여는 고용보험기금이나 중소기업 관련기금에서 일정비율 보조하는 공공근로ㅇ형태 근무제도의 도입
  ・이를 위하여 업종별로 고령자, 여성 등이 취업가능한 직무에 대한 수요조사 실시 후 중소기업에서 요구하는 주문식 직업훈련 실시
  ・ 이 때 부천시에서 자금지원하고 부천상공회의소에서 사업대행

3) 비진학 중도탈락 청소년 직업훈련수요 파악

- 학교,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사), 사회선도기관과 연계하여 지역별로 비진학 중고교 중도탈락자 인적사항과 직업훈련 수요를 파악하여 이들을 기능인력 양성 대상으로 인력풀을 데이터화

-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 사업단 산화 전국 8개 인력개발원을 청소년 전문 직업훈련기관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개정
  ・대상지역, 부산, 인천, 광주, 경기, 홍천, 옥천, 공주, 군산

- 청소년 관심 있는 훈련직종과 중소기업인력부족 직종을 개설하고 맞춤훈련 강화
  ・훈련과정을 메카트로닉스, 일렉트로닉스, 정보통신설비, 기계설계제작 등 청소년 관심직종 및 기계정비, 용접, 건설 등 인력부족 직종을 훈련과정에 포함
  ・인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주와 훈련기관 합동으로 훈련생을 모집하게 하고 훈련약정 또는 취업약정계약을 체결후 훈련시키는 맞춤훈련의 강화

- 학교 중도탈락자가 직업훈련 이수시 졸업학력 인정
  · 예를 들어 고교 2학년에서 중퇴한 자가 1년 훈련후 사업장에 1년 취업한 경우 고등학교 학력인정 (교육부와 업무 협의 필요 사항)

4) 중소기업공동복지시스템 구축

- 중소기업 기피 요인 제거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공동복지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이는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저하와 규모의 경제를 동시에 보완시킬 수 있는 방안임.
  · 중소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로 협력하여 각각 회원으로 참여하는 종합적인 근로자 복지조직을 구축하고 이에는 부천시 및 노동부 산자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
  · 예를 들어 탁아소의 설치나 임대주택단지의 조성등 개별 중소기업에서 하기 힘든 사업을 규모의 경제를 창출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조합을 결성하여 시행
  · 생활안정 자금 지원, 근로자 자녀 학비지원, 3D 직종의 경우 신규취업자도 복지혜택 수혜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5) 중소기업작업환경개선 지원

- 「Clean 3D 사업」 확대 실시 노동부에 요구
  · 노동부 산재예방기금을 재원으로 실시하고 있는 중소기업 작업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기피인식 개선과 중소기업 인력부족 및 청년층 실업해소를 위하여 계속사업으로 유지
    * 특히, Clean 사업장 조성지원 사업계획 수립시 제조업 사업장 7,000개소에 대해 사업장당 평균 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평균 자금지원 금액이 약 1,1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추가적인 재원확보가 필요함.
  · 노동연구원의 조사(2001)에 따르면 상당수의 구인업체가 산업안전공단에서 지원하는 작업환경개선지원금의 인지도가 30%에 불과하여 홍보가 필요함

6) 직장체험 중소기업으로 대상 확대

- 재학중 기업연수 및 중소기업 현장체험활동(3개월)에 참가할 수 있도록 여름방학기간을 최소한 3개월 이상으로 늘리고 겨울방학기간을 현재보다 줄이는 학기제도 개편
- 직장체험에 대한 학점인정 확대조치
  · 예: 1998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경북대의 샌드위치 교육 프로그램은 대학 2~3학년 학

생들을 대상으로 계절학기(6주), 학기제(24주), 학년제(48주)의 직장체험학점인정으로 지역기업내 현장교육과정으로 이루어 짐. 담당 지도교수로부터의 지도 또한 병행

* 교육부협조사항

7) 기업의 교육만족도조사 실시

- 기업의 교육만족도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근로자 직업 능력과 자질을 파악하여 교과과정 편성에 반영
  - 호주 직업교육연구센터(NCVER)는 격년으로 기업의 교육만족도 조사(National Employer Satisfaction Survey) 실시
    * 조사 및 학교로의 배포에 필요한 예산 배정

8) 주문식 교육의 활성화

- 산학협력 및 교육의 현장성 강화를 위하여 최근 전문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문식 교육과정과 같이 산업체와 교육기관이 교육과정을 협력하여 편성 운영해 나가는 방안에 대한 지원이 필요
  - 주문식 교육이 전문대학에서 대학으로 확대되도록 지원
    * 주문식 교육에 기업이 학교에 비용일부를 지원할 경우 손비인정 세금감면

9) 학교교육과 산업수요의 정보전달

- 중장기 인력수급전망(2005~2010)을 부천시나 상공회의소에서 작성하여 부천주위 각 학교에 배포
  - 산업 31개부문, 직업 중분류(27개)별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을 각급 학교 진로지도교사 및 취업상담실에 배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직업 세분류(419개)별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을 위한 『인력수급전망 인프라 구축』 지속추진 (2000-2005년)

- 『2004년 한국의 직업지도(Job Map)』를 작성하여 취업 및 진로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포

- 산업소분류(194개), 직업 세분류(419개)별 고용량・임금수준・고용형태・교육수준・자격

증 등이 수록된 직업지도를 배포하고 인터넷에서 검색가능 하도록 『Work-Net』에 수록하여 진로 및 취업지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10) 중소기업 해외 자격증 취득 연수 지원(예: 독일 Maister 자격취득 지원)

- 중소기업에서 기술 자격증 취득 지원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키우고 그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에서 청년층 실업자 흡수를 도모
  · 독일의 Maister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해외 직업훈련에 교육훈련비와 비행기비용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

- 현재 독일에 있는 김선영 씨가 진행 중인 내용을 소개하면, 독일의 Maister를 받기 위한 대상은 실업자이던 취업중인 자이든 불문하고 고교 졸업후 기능공 자격증을 가지고 직업경력 4년이상인자, 또는 전문대 해당학과를 졸업하고 직업경력 2년이상인 자로서, 1년간 현지 독일어실습과 2년간의 훈련후 Maister 자격증 취득하는 것인 바,
  · 비용이 아래와 같이 3년간에 4000만원 이상 소요되므로 정부에서 일부, 기업에서 일부, 본인이 일부 부담하는 식으로 운영해야 할 것임.
    * 정부 지원은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해야 할 것인 바, 현재 법상으로도 해외직업훈련 지원이 가능함

※ 비용 내역

◦ 1년간의 어학 코스 시 : 어학코스비 매달 400 유로 (년 4800 유로)
방세 매달 300 유로 (년 3600 유로)
의료보험비 매달 100 유로 (년 1200 유로)
생활비(별도) 매달 300 유로 (년 3600 유로)

◦ 1년간 독일 공장 현장 실습 시 : 방세, 보험비 및 생활비 (위 참조)

◦ 마이스터 학교 입학시 : 입학비 및 수업료 일시불 4000-5000 유로
방세, 보험비 및 생활비 (위 참조)

◦ 계약 체결 및 비자 발급, 공장 및 학교 소개 수수료 :
계약시 일시불 2000 유로

[부록 1]

I. 전국 중소기업 인력부족의 실태와 원인

1. 중소기업 인력부족의 실태

- 한국의 중소기업들, 특히 제조업체들은 상시적인 인력부족을 경험하고 있음. 인력부족률은 특히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한 중소 사업장에서 매우 높은 편임.

-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동부의 조사에 의하면 2002년 현재 전산업에 걸친 인력부족률은 2.49%이지만 종업원 5-9인 규모에서는 4.53%, 10-29인 규모에서는 3.08%로서 영세규모로 내려갈수록 인력부족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 직종별로는 생산관련직, 서비스-판매-농림어업직, 단순노무직 등에서 인력부족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제조업의 경우 전산업 평균에 비해 인력부족률이 훨씬 높은데 5-9인 규모 제조업의 생산관련직 부족률은 11.87%로서 매우 높은 수준임.

<표 1> 사업체 규모별 인력부족률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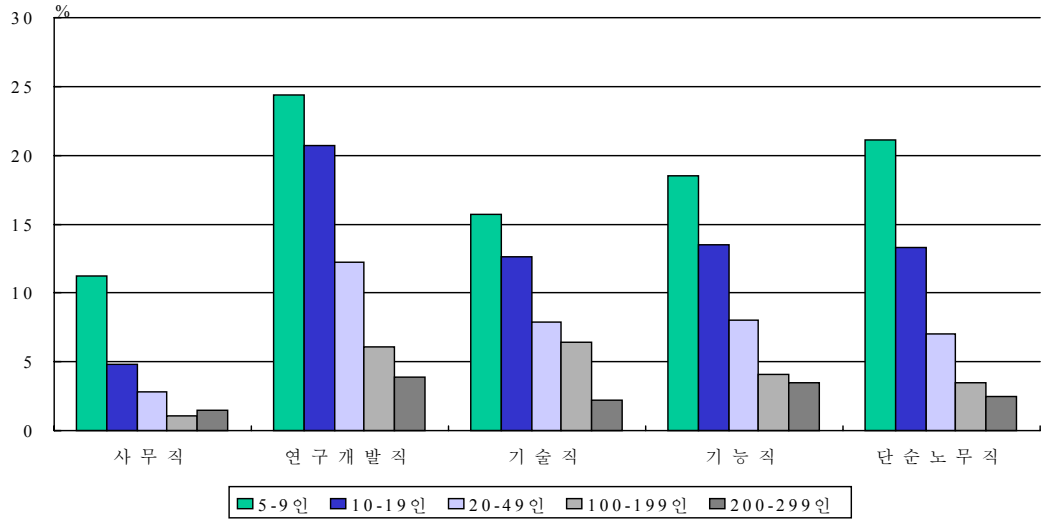
단위: %

	전 체	관리-전문-기술직	사무직	서비스-판매-농림어업직	생산관련직	단순노무직
전 산 업	2.49	1.39	1.65	2.88	4.20	2.36
5-9인	4.53	2.74	2.94	5.74	9.45	4.26
10-29인	3.08	1.90	1.98	2.60	5.85	3.04
30-99인	2.43	1.26	1.48	1.12	4.36	2.61
100-299인	2.04	0.64	0.68	1.99	3.68	1.65
399-499인	1.03	0.40	0.69	2.44	1.62	1.16
500인 이상	0.73	0.53	0.40	1.18	1.05	0.56
제 조 업	3.43	1.67	2.30	0.91	4.46	4.45
5-9인	8.57	4.18	4.92	4.27	11.87	11.27
10-29인	5.69	2.89	3.76	2.03	7.75	5.85
30-99인	3.84	1.87	2.33	0.90	5.06	4.43
100-299인	2.10	1.05	1.01	0.68	2.74	3.26
399-499인	0.57	0.43	0.66	0.14	0.61	0.73
500인 이상	0.76	0.51	0.05	0.00	1.01	0.84

자료: 노동부, [노동력수요동향조사보고서],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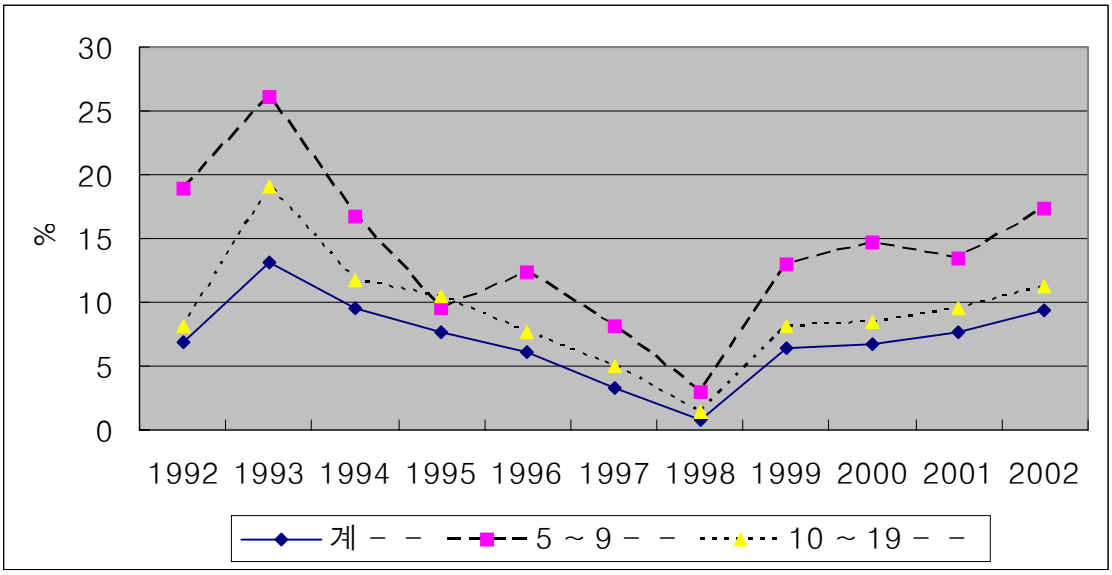
- 한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사한 제조업 중소기업의 인력부족률은 노동부의 조사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조업 종업원 300인 미만 중소기업 전체의 상시종사자 부족률은 2002년 현재 9.3%이며 특히 연구개발직과 생산직 기술인력의 부족률이 매우 높음. 또 규모별로 보면 종업원 5-9인의 영세규모 사업체의 인력부족률은 17.4%에 달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직 부족률은 24.4%에 달하고 있음.

[그림 1] 중소기업 상시종사자 부족률(2002)



-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현상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거의 만성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90년대 초에 매우 높은 수준에 있었던 중소기업의 인력부족률은 1997년 말의 IMF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거의 사라졌으나 이후 경기회복과 함께 다시 높아져 2002년에는 90년대 초의 수준으로 다시 복귀하였음.

[그림 2] 중소기업 인력부족률의 추이(1992-2002)



자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실태조사], 2002로부터 작성.

-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현상은 단순한 인력의 양적 부족문제 뿐만 아니라 인력의 질적 문제도 동반하고 있음. 즉 중소기업은 숙련기술을 가진 적절한 인재를 충원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인력부족을 메우기 위해 고령인력, 비정규직, 외국인 노동자 등을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다시 생산성 저하와 잦은 이직률 등의 문제를 낳고 있음.

- <표 3>에서 연령별 인력구성비를 보면 영세기업일수록 고령인력 활용비율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즉 50대 이상 인력의 비율은 종업원 100-299인 규모의 기업에서 11.2%인 반면, 종업원 19인 미만 규모의 기업에서는 15.5%에 달하고 있음. 또 비정규직 활용비율은 영세규모의 기업일수록 높은데 100-299인 규모 기업에서는 비정규직 활용비율이 50%를 넘는 기업이 4.8%에 머무르는 반면, 19인 미만 규모 기업에서는 이 비율이 36.3%에 이르고 있음. 또 외국인 노동자 활용율을 보면 활용기업비율 면에서는 규모별로 비슷하지만 활용기업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 활용정도 면에서는 전체 인력의 30% 이상을 외국인 노동자로 사용하고 있는 비율이 19인 미만 규모 기업에서는 29.0%에 달하는 반면, 100-299인 규모 기업에서는 이 비율이 8.4%에 머물고 있음.

<표 3> 종업원 규모별 인력구성비(2002)

단위: %

	전 체	19인 미만	20-49인	50-99인	100-299인
<연령별 구성비>					
10대	0.38	0.10	0.17	0.39	0.91
20대	22.54	17.58	22.60	25.35	27.23
30대	30.68	34.32	32.80	33.58	33.93
40대	29.65	32.47	30.33	27.22	28.77
50대	11.22	12.49	11.11	10.86	9.87
60대	2.55	3.04	2.99	2.59	1.28
<비정규직 활용비율>					
평균비정규인원(명)	6	5	7	12	21
10% 미만	16.3	5.2	31.3	48.1	51.2
10-30% 미만	39.5	38.7	45.7	33.8	29.3
30-50% 미만	16.5	19.9	10.1	10.4	4.9
50-70% 미만	12.6	16.2	6.3	3.9	2.4
70-90% 미만	6.0	7.3	4.8	2.6	0.0
90% 이상	9.1	12.8	1.9	1.3	2.4
<외국인노동자활용비율>					
활용기업비율	27.0	28.6	23.8	25.0	27.7
활용정도					
10% 미만	43.1	30.7	59.6	70.2	75.0
10-30%	35.1	40.2	28.5	26.6	16.7
30-50%	10.6	14.1	5.7	1.1	6.3
50-70%	7.0	8.9	4.8	2.1	0.0
70% 이상	4.3	6.0	1.3	0.0	2.1

자료: 중소기업청, 산업연구원, [중소기업 인력실태 조사보고서], 2002.

2. 중소기업 인력부족의 원인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원인은 중소기업의 인력수요상의 문제점과 인력공급의 변화, 그리고 정부의 제도적, 정책적 변화 등의 요인에서 찾을 수 있음.

1) 중소기업 인력수요의 특징

- 중소기업의 낮은 임금과 취약한 근로조건 및 작업환경, 복지수준 등은 중소기업의 인력부족을 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표 4>에서 중소기업 부족인력을 충원하는 데 있어 애로요인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근무 기피의식'이 36.3%로 가장 높으며 '임금조건이 맞지 않아서' '작업환경이 열악' 등의 요인이 지적되고 있음. 그런데 근로자들이 중소기업 근무를 기피하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것도 결국은 중소기업의 임금 및 근로조건이 열악한 때문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의 인력부족을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그 열악한 임금 및 근로조건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 이처럼 임금 및 작업환경의 열악성을 인력부족의 원인으로 드는 비율은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4> 중소기업 부족인력 충원 애로요인(기능직)

단위: %

	인력정보 부족	국내에 해당인력 없어서	중소기업 근무 기피 의식	임금조건이 맞지 않아서	작업환경이 열악	회사소재지의 지역여건
중소제조업 전체	6.0	8.6	36.3	23.8	13.9	11.4
19인 미만	6.4	8.2	38.3	21.2	15.7	10.2
20-49인	5.0	10.9	31.8	29.3	9.6	13.4
50-99인	6.8	6.8	10.5	7.9	3.3	4.6
100-299인	5.9	5.9	32.4	26.5	14.7	14.7

자료: 중소기업청, 산업연구원, [중소기업 인력실태 조사보고서], 2002.

- 중소기업 임금 및 근로조건의 열악성 외에도 최근 산업구조 자체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것도 중소기업 인력난을 심화시키는 한 요인 되고 있음. 즉 경제구조 전체로 제조업의 비중이 줄어들고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으며 제조업 내에서도 의복, 비금속광물, 피혁제품, 섬유제품 등 전통적인 경공업의 비중이 줄어드는 대신 조립금속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전자-전기장비 등 기술집약형 첨단산업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음(표 5 참조). 이러한 급속한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기술인력 수요의 증가를 인력공급이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들 업종에서 인력부족을 가져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음.

<표 5> 중소기업 인력수요구조의 변화

단위: %

	1992	2002	변화율
제조업 전체	100.0	100.0	
음식료품	7.1	6.7	-0.4
섬유제품	12.0	10.2	-1.8
의복 및 모피제품	10.3	7.5	-2.8
가죽, 가방, 마구류 및 신발	4.9	2.4	-2.5
목재 및 나무제품	2.0	1.2	-0.8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3.1	2.4	-0.7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3.0	4.2	1.2
화합물 및 화학제품	4.2	4.0	-0.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5.2	7.3	2.1
비금속광물제품	5.8	3.3	-2.5
제1차 금속산업	3.0	2.7	-0.3
조립금속제품	6,6	9.6	3.0
기타 기계 및 장비	10.7	12.5	1.8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계	0.6	1.1	0.5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3.9	5.6	1.7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5.0	6.1	1.1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1.8	2.4	0.6
자동차 및 트레일러	4.4	4.9	0.5
기타 운송장비	0.7	1.7	1.0
가구 및 기타	5.6	4.2	-1.4

자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실태조사], 2002.

2) 인력공급의 규모 및 구조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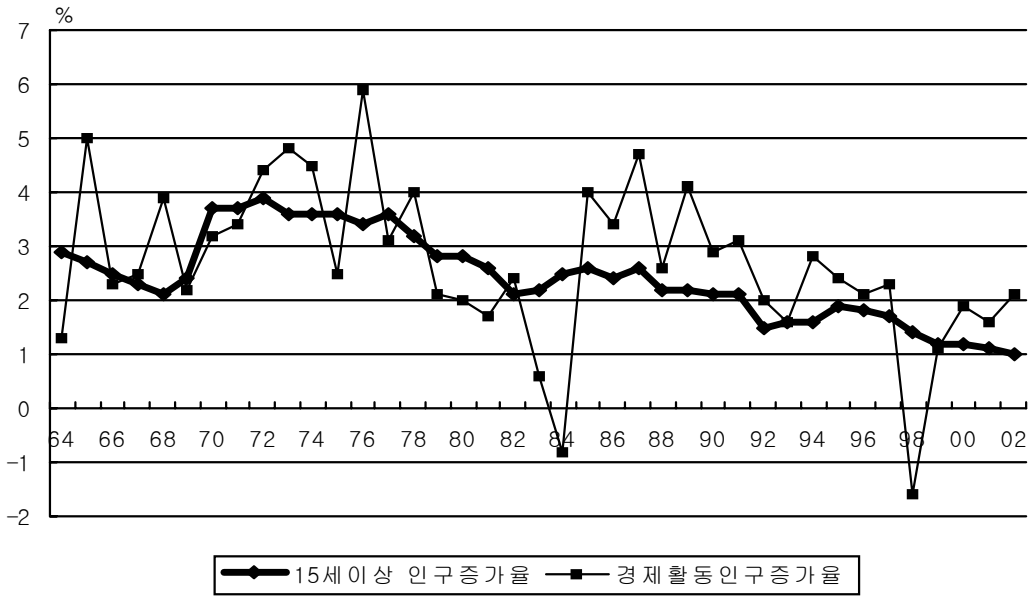
- 인력수요의 변화와 더불어 인력공급의 규모 및 구조의 변화 역시 중소기업 인력부족을 가져온 중요한 요인임.

- 인력공급의 총규모를 좌우하는 15세 이상 인구(생산가능인구)는 1960년대 이후 높은 증가추세를 보임으로써 경제성장을 위한 풍부한 인적자원의 공급원이 되어 왔음. 그러나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70년대 후반 이후 15세 이상 인구증가율은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하여 80년대에는 2%대, 90년대에는 1%대로 떨어졌으며 2002년 현재는 0.9%에 머물고 있음. 통계청의 전망에 따르면 앞으로도 생산가능인구의 증가율은 계속 감소할 것으로 보여 장래 노동력 공급

측면에서 큰 애로가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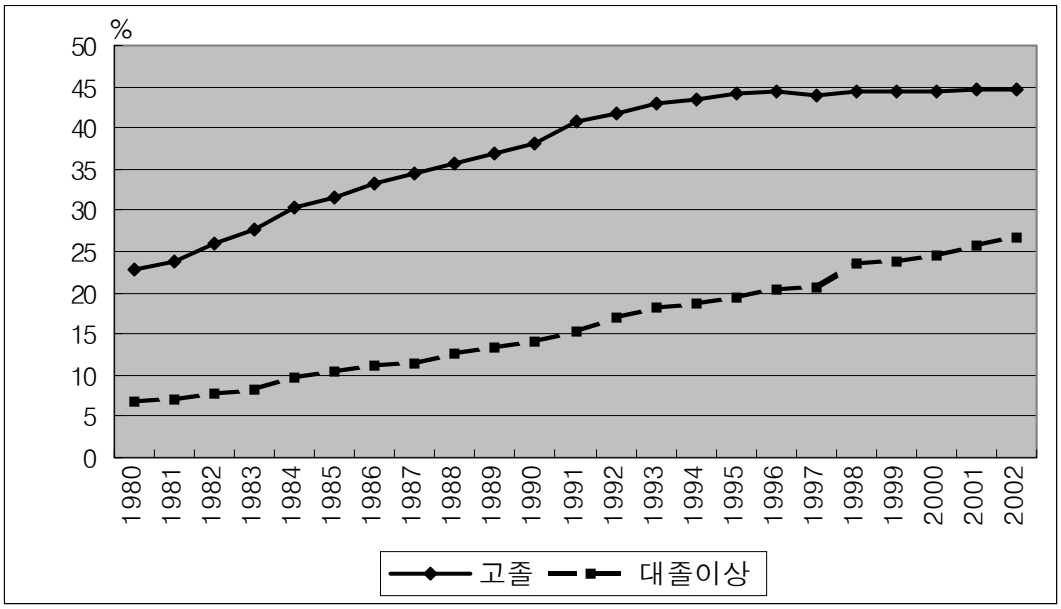
- 15세 이상 인구 증가율의 감소와 더불어 경제활동인구 증가율 역시 급속하게 하락하고 있음. 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은 경기순환과 더불어 등락을 거듭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80년대 후반 이후 하락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대학 진학률의 상승에 따른 청년층 노동력의 감소와 노령화 현상에 따른 노령 인구의 노동시장으로부터의 퇴장이 맞물려 나타난 현상임.

[그림 3] 15세 이상 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증가율 추이



- 노동력 규모 뿐만 아니라 노동력의 구성도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음. 즉 <그림 4>에서 경제활동인구의 학력별 구성의 추이를 살펴보면 고졸자의 비중은 1990년대 중반에 약 45% 수준에 도달한 후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비하여 대졸 이상자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90년대 후반부터 급증하고 있음. 이처럼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학력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이들 고학력자들의 3D 업종 등 중소기업 취업 기피로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그림 4] 경제활동인구의 학력별 구성 추이



3) 제도적 요인의 변화

- 최근 주5일근무제의 도입, 고용허가제의 도입,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조치의 도입 등 일련의 제도변화 역시 중소기업의 인력부족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① 고용허가제의 도입

- 그 동안 정부는 중소제조업 분야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를 운영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2002년 6월말 현재 외국인산업연수생은 5,733개 업체에서 3만 여명이 근무하고 있음. 또 이와는 별도로 다수의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이 중소기업 등에 취업하고 있음. 그러나 이들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 및 각종 사회적 문제 야기 등에 대한 국내외의 비판이 고조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제를 도입하였으며 이후 정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단속 강화와 강제 출국 등을 시행하고 있음. 정부의 이러한 조치로 총 11만 여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부족인력을 이들 외국인 근로자에게 상당 부분 의존해 왔던 중소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고용허가제의 도입 및 외국인 노동자의 출국이 인력난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더욱이 이들 출국 외국인 노동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한국 체류기간이 오래된 숙련공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가중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중소기업 단체들은 3년으로 한정되어 있는 외국인 인력의 체류기간 연장과 외국인 산업연수생 정원의 확대조치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음.

② 주5일근무제의 실시

- 국회에서 주5일근무제 법안이 통과되어 2004년도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됨. 중소기업에 대한 주5일근무제의 도입 시기는 대기업에 비해 연기되어 있기는 하지만 대기업에 주5일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될 경우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그에 따른 초과근무, 휴일근무 등의 기피, 각종 휴일-휴가제도의 사용률 증가, 그리고 신규인력의 중소기업 기피현상 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중소기업 단체 등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주5일근무제 실시 자체는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이 제도의 실시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정부가 각종 중소기업 지원정책으로 보완해주도록 요구하고 있음.

③ 산업기능요원제도의 축소

- 산업기능요원제도는 산업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대체복무제로서 보충역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선발되면 해당업체에서 28개월간 근무하는 것으로 군 복무를 대체케 하는 제도이며 그 동안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해소에 기여해 왔음.

- 그러나 해마다 산업기능요원의 배정인원은 크게 줄어들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들의 인력수요는 이를 초과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임. 2004년도의 경우 중소기업청이 중소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 신청에서는 5천 700여개 업체가 모두 2만여 명을 신청하였으나 2004년도 산업기능요원 전체 배정인원은 4천여 명에 불과하여 인력수요에 크게 미달되는 실정임. 더욱이 국방부는 병역자원 감소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을 2001년 2만명, 2002년 1만7천명, 2003년 8천 500명으로 감축해 왔으며 2005년도에는 이 제도를 완전 폐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임.

④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의 제정과 그 효과

- 정부는 심화되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결을 위해 2003년 8월 “중소기업인력지

원특별법"을 제정,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해 들어갈 예정임. 이 법의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인력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산학협력을 통한 인력수급 원활화를 위해 지역대학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이 필요한 지역인재 양성을 지원토록 하며 ▲중소기업 재직자의 능력개발을 위해 공동훈련시설 설치 및 원격훈련 실시를 지원하고 ▲청년실업자의 중소기업 취업 지원, 외국전문인력의 안정적 활용 지원, 전문연구요원 제도 운영의 내실화 등을 기하며 ▲중소기업 인력유입 촉진을 위한 공동복지시설의 설치와 직무 기피요인의 해소사업 등을 시행하며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단축을 촉진하기 위해 경영상담, 지도활동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설비투자 지원 등을 제공하고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에게 창업지원, 국내외 연수, 주택 우선분양 등을 지원한다는 것임.

- 이러한 내용의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이 실시될 경우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함. 그러나 법률의 내용 가운데 대부분이 과거부터 시행되어 오던 제도들을 종합한 것으로서 획기적인 새로운 내용은 거의 없으며 그 효과가 당장 나타나기보다는 중장기적인 효과를 겨냥한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단기적인 인력부족 해소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부록 2]

부천시 중소기업 인력수급실태 설문지

※ 사업체 ID는 본 조사에서 부여한 ID 기입 ID( )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과 부천상공회의소는 부천시 중소기업 인력 지원정책을 수립하고자 사업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응답내용은 조사 목적 외에는 절대로 사용 되지 않고 비밀이 보장됩니다. 조사에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부천상공회의소(전화:032-663-6601~9)나 한국노동연구원(전화:02-784-9338)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 응답 기준일은 2003년 10월이며 가능한 인력관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께서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응답 단위는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귀 사업장(공장)입니다. 본사를 포함해서 여러 사업장이 있더라도 귀 사업장만을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2003.10.

한 국 노 동 연 구 원 · 부 천 상 공 회 의 소

사업체명			복수 사업장 여부	① 아니오 ② 예 ( )개
주생산품목	, ,			
사업체 설립년도	년 월		사업자등록번호	
종업원 수	명	노동조합유무	① 없음 ② 있음 (조합원수: 명)	
협력업체 관계	① 모기업 ② 협력업체 ③ 해당없음		2002년 재무자료 (회사전체기준)	매 출 액: 백만원 당기순이익: 백만원
작 성 자	직위	성명	전화번호	

인력 수급 현황

□ 이하의 질문은 귀 사업장 인력 수급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 인원이 없는 경우 반드시 '0'을 기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1. 귀 사업장 인력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직종별 인력현황 및 변동현황에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직종구분은 마지막 페이지의 별첨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직종	현재 인원	부족 인원	1년후증감전망	
			증가	감소
1.관리인력	명	명	명	명
2.연구개발 기술인력	명	명	명	명
3.사무인력	명	명	명	명
4.서비스영업인력	명	명	명	명
5.생산기능인력	명	명	명	명
6.단순노무인력	명	명	명	명

문2. 귀 사업장 근로자의 평균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 · · · · · · · · · 약 ( )세

문3. 귀 사업장 근로자의 평균 근속년수는 어떻게 됩니까? · · · · · · · · 약 ( )년

문4. 귀 사업장 근로자 중 여성의 비중(또는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 · · 약 ( )%, 또는 ( )명

문5. 귀 사업장 전체 종업원 중 비정규직의 비율(또는 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 · 약( )%, 또는 ( )명

※ 비정규직은 임시직, 일용직, 인력공급업체로부터 파견받는자, 시간제 근로자(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외국인 근로자 등이 해당됩니다

문5-1. (비정규직이 있는 경우) 비정규직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직종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① 관리인력 ② 연구개발/기술인력 ③ 사무인력 ④ 서비스영업인력 ⑤ 생산기능인력 ⑥ 단순노무인력

문6. 귀 사업장 전체 종업원 중 외국인의 비율(또는 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약( )%, 또는 ( )명

문6-1. (외국인이 있는 경우) 외국인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직종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① 관리인력 ② 연구개발/기술인력 ③ 사무인력 ④ 서비스영업인력

⑤ 생산기능인력 ⑥ 단순노무인력

문7. 귀 사업장 근로자의 대표적인 학력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대표적 학력은 아래의 학력수준별 해당 근로자가 가장 많은 경우를 말합니다

1. 중졸이하 2. 고졸 3. 전문대졸 4. 대졸이상

문8. (올해를 기준으로)귀 사업장 근로자의 월평균 이직율은 어떻게 됩니까?・・

약 ( )%

※ 월평균 이직율 = (월 총 이직자 수÷월 초 총 근로자 수)X100

문8-1. 아래의 6개 직종별 이직율이 가장 높은 직종의 번호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① 관리인력 ② 연구개발/기술인력 ③ 사무인력 ④ 서비스영업인력 ⑤ 생산기능인력 ⑥ 단순노무인력

문9. 귀 사업장 종업원 중 주거지가 부천・인천 지역인 사람들의 비중은 어느 정도 입니까?・・・약( )%

문10. 지난 3년간 필요한 인력의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문10-1. 위 <문10>에서 ①에 응답하신 경우 특히 어느 직종의 인력충원에 어려움을 가장 많이 겪고 있습니까? 해당 직종의 번호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① 관리인력 ② 연구개발/기술인력 ③ 사무인력 ④ 서비스영업인력 ⑤ 생산기능인

력 ⑥ 단순노무인력

문10-2. 위 <문10>에서 ①에 응답하신 경우 그 사유를 아래에서 골라 우선 순위대로 두 가지만 번호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 1순위 ( ), ・・ 2순위 ( )

① 인력에 대한 정보부족 때문 ② 자격 요건에 맞는 인력이 없어서
③ 중소기업 근무 기피 의식 ④ 부천 지역 근무 기피 의식
④ 상호간 임금 조건이 맞지 않아서 ⑥ 열악한 작업환경 ⑦ 기타 ( )

문11. 필요 인력의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u>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대응 방안</u>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1) 자동화나 합리화를 통해 대응 (2) 국내/국외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
(3) 인력 충원 노력 계속 (4) 사업포기 (5) 기타 ( )

문12. 귀 사업장은 어떤 사람들을 채용하기를 희망하십니까? 각 특성별 해당 번호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문12-1.	학 력 별	① 중졸이하	② 고졸	③ 전문대졸	④ 대졸이상
문12-2.	성 별	① 남성	② 여성		
문12-3.	혼 인 별	① 미혼	② 기혼		
문12-4.	경 력 별	① 무경력자	② 경력자		
문12-5.	국 적 별	① 한국인	② 외국인		
문12-6.	고용형태별	① 정규직	② 비정규직		

문13. 귀 사업장의 주요한 구인 경로는 무엇입니까? 해당 경로를 아래에서 골라 우선 순위대로 두 가지만 번호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 1순위 ( ), ・・・ 2순위 ( )

① 사내공모 ② 신문, 라디오, TV등 매체 ③ 인터넷을 통해
④ 노동부 워크넷 ⑤ 연고채용 ⑥ 학교나 학원에 요청
⑦ 공공훈련기관 ⑧ 국공립 직업안정기관 ⑨ 민간소개기관
⑩ 인력채용박람회 ⑪ 벽보 ⑫ 기타 ( )

문14. 귀 사업장에는 3D 업무로 인식하고 근무 또는 취업을 기피하는 직무(일자리)가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교육훈련으로 가십시오)

문14-1.귀 사업장에서 3D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직무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은?・・・
약 (　　명)

문14-2. 귀 사업장의 3D 직무의 인력난 해결에 가장 도움이 되는 정책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① 외국인 연수생 또는 산업기능요원 등 정부의 직접적인 인력공급 확대
② 자동화장비 또는 대체원료 등의 개발에 대한 국고보조
③ 3D 직무가 많은 업종에 대하여 중국 등 인력이 풍부한 나라에 공동진출 지원
④ 기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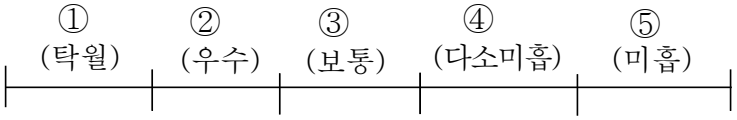
교육훈련

□ 이하의 질문은 귀 사업장 교육훈련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 번호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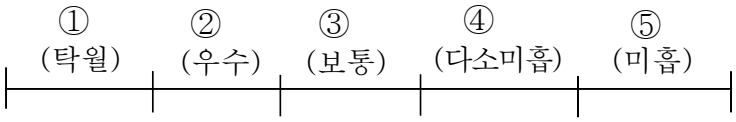
문1. 신규 취업자의 직무수행능력은 귀업장에서 기대하는 수준에 비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해당번호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 직업훈련과정 이수자 : 노동부 또는 민간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과정 이수자(학력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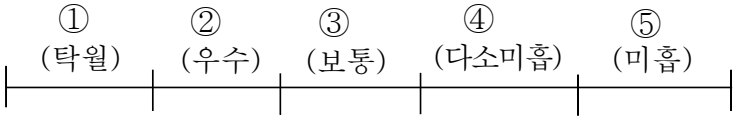
① 대학졸업 이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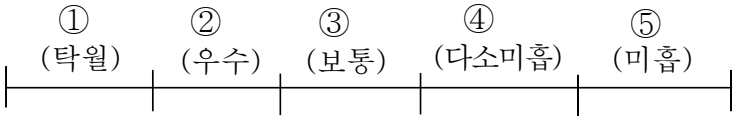
② 전문대학 졸업자



③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④ 직업훈련과정 이수자



문2. 귀 사업장은 신입사원을 채용한 후 별도의 재교육을 실시합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문3. 귀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재직자 교육)방법은?

① 사내교육 ② 교육전문기관 위탁교육(->문3-2로)
③ 모기업 등에 파견 훈련 ④ 기타( )
⑤ 별도 교육을 실시하지 않음(->문3-1로)

문3-1. 재직자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는?

① 별도교육의 필요가 없어서 ② 조업차질 우려 ③ 교육비용 부담으로
④ 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서 ⑤ 기 타( )

문3-2. 위탁교육을 하고 있는 경우 주로 어떤 방식으로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① 조합을 통한 업종 고유기술과 관련된 맞춤식 교육
② 대학・연수원 등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중 선택하여 일부직원 위탁
③ 업종내 기술 우수기업에 직원 파견근무 등을 통한 기술 습득
④ 기타

문4. 귀 사업장은 어느 분야의 직업훈련을 받는 사람을 가장 선호하십니까? ( )

① 컴퓨터, 정보, 통신 분야 ② 어학분야
③ 경영관리 분야 (재무, 경영, 생산, 사무 등) ④ 기계 장비 분야
⑤ 전기, 전자 분야 ⑥ 기타 ( )

경영전반

문1. 귀 사업장은 지난 3년간 설비투자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① 증가 (　　)%　　② 감소 (　　)%　　③ 현상 유지

문2. 귀 사업장은 향후 3년간 설비투자를 얼마나 하실 계획입니까?

① 증가 (　　)%　　② 감소 (　　)%　　③ 현상 유지

문3. 귀 사업장의 해외 공장이 있습니까?

① 아니오　　② 예

문4. 귀 사는 공장이나 사무실의 해외이전 계획이 있으십니까?

① 예 (　년후)　② 아니오

문5. 귀 사업장의 월 평균 임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 번호를 각각 기입하여 주십시오.

대졸 초임 (　　) 고졸초임 (　　)

※ 월평균 임금은 기본급, 월별상여금, 각종 고정적 수당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초과근무제외)

① 50만원 미만　② 50-75만원미만　③ 75-100만원미만
④ 100-125만원미만　⑤ 125-150만원미만　⑥ 150-175만원미만
⑦ 175-200만원미만　⑧ 200-225만원미만　⑨ 225-250만원미만
⑩ 250만원 이상

<부표> 직종분류표

1. 관리직
. 고위임원
. 생산 및 운영부서 관리자
. 기타부서 관리자
. 일반관리자

2. 연구개발 기술인력
. 과학전문가
. 컴퓨터관련 전문가
. 공학 전문가
. 보건의료 전문가
. 교육 전문가
.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
. 법률, 사회서비스 및 종교 전문가

. 문화, 예술 및 방송관련 전문가
. 과학관련 기술 종사자 및 준전문
. 컴퓨터관련 준전문가
. 공학관련 기술종사자
. 보건의료 준전문가
. 교육 준전문가
. 경영 및 재정 준전문가
. 사회서비스 및 종교 준전문가
.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
. 기타 준전문가

3. 사무직
. 일반사무 관련 종사자
. 고객서비스 사무 종사자

4. 서비스직·판매직
. 대인 서비스 관련 종사자
. 조리 및 음식 서비스 종사자
. 여행 및 운송관련 종사자
. 보안서비스 종사자
. 도소매 판매 종사자
. 통신 판매 종사자
. 모델 및 홍보 종사자

5. 생산기술직
. 추출 및 건설 기능 종사자
. 금속, 기계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기계설치 및 정비 기능 종사자
. 정밀기구, 세공 및 수공예 기능 종사자
. 기타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고정기계장치 및 시스템 조작 종사자
. 기계 조작원 및 관련 종사자
. 조립 및 관련 종사자
.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

6. 단순노무직
. 서비스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 농림어업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 제조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 광업, 건설 및 운송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